

한글학교 역사교육 보조교재 및 캠프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자 신주백(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공동연구자 최태성(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
김택수(발산초등학교 교사)
김태진(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연구위원)
김차명(정왕초등학교 교사)
정한나(돌마초등학교 교사)
최정웅(심학초등학교 교사)

I. 연구목적	1
1. 배경과 목적	3
2. 추진 방법과 과정	3
II. 한글학교 역사교사용 보조교재 커리큘럼과 내용	7
1. 전체 개요	9
2. 전근대(초등용)	12
3. 전근대(중등용)	80
4. 근현대	138
III. 한글학교 역사교육 캠프 프로그램(시안)	179
1. 프로그램 개요	181
2. 프로그램	188
3. 프로그램 세부 사항	189
4. 참고	192
IV. 제언	197
● 별첨 : 보조교재용 동영상 목록(파일 별도)	202

한글학교 역사교육 보조교재 및 캠프 프로그램 개발



PART I



연구목적

1. 배경과 목적
2. 추진 방법과 과정

PART I

한글학교 역사교육 보조교재 및 캠프 프로그램 개발

연구목적

1. 배경과 목적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역사적 맥락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한국계' 재외동포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풍부하게 이해시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추는 데 필요한 덕목을 도출한다.
- 이를 위해 한글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역사교육용 보조교재의 시안을 개발하고, 재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 캠프 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2. 추진 방법과 과정

(1) 개발 방향

- 보조교재는
 - 14차시 수업에 맞추고, 전근대(초등용중등용)/근현대로 구분하고,
 - 주제사를 시간축으로 기획하여
 - 전근대 부분을 역사와 문화의 결합, 근현대를 이주사 중심으로 기술한다.
- 역사캠프 커리큘럼 시안은
 - 2박 3일용으로 개발하되,
 - 필요에 따라, 1일, 1박 2일용으로 탄력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추진 방법

■ 담당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 근현대사 집필은 신주백(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책임연구원이,
전근대사는 최태성(별별한국사연구소, 소장) 연구원이 청소년용,
 김택수(인천 발산초등학교 교사), 최정웅(파주 심학초등학교 교사)
 연구원이 아동용을 공동 집필하였다.
- 이들 원고에 대해
동영상 제작은 김차명(시흥 정왕초등학교, 교사) 연구원이,
편집 및 제작은 정한나(성남 돌마초등학교, 교사)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다.
- 역사교육 캠프 프로그램은 김태진(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연구위원),
 김택수 연구원이 기획하였다.

■ 이상의 업무 분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 제		담 당 자	비 고
기존 교재 분석		신주백	
역사교사용 보조교재	커리큘럼 개발 및 교재 집필	근현대사 : 신주백 전근대사 : 최태성(청소년용) 김택수, 최정웅(아동용)	* 월별 회의에서 공동 검토 * 김태진 : 국외 원고 검토 조직
	동영상	김차명	-
	원고 편집 및 제작	정한나	HWP 원고를 이미지 편집 및 제작
한글학교 역사교육 캠프 프로그램 시안		김태진, 김택수	2박 3일용

■ 정례회의 개최

→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매달 만나 검토 회의를 열었다.

■ 원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 HWP 파일로 작성된 원고를 JPEG파일로 편집하였다.

cf) 파일 제작은 사전 계약에 없던 내용임.

→ 국외의 한글학교 선생님들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 제작된 동영상은 별도의 선생님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cf) 동영상 제작은 사전 계약에 없던 내용임.

(3) 추진 과정

■ 원고의 집필 및 수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회의를 열었다.

날 짜	목 적	비 고
2016.06.29	제1차 원고 검토회의	보조교재 집필진 회의
2016.07.25	제2차 원고 검토회의	보조교재 집필진 회의
2016.08.19	제3차 원고 검토회의	보조교재 집필진 회의
2016.09.28	제4차 원고 검토 및 동영상 샘플 검토	제1차 전체 회의
2016.11.01	제5차 원고 검토 및 제2차 전체 회의	
2016.11.28	제6차 원고 검토 및 제3차 전체 회의	동영상 및 해외의 원고검토의견을 회람

** 참고 : 책임자가 동남아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2016. 10. 5~7)에서 일부 시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전체 회의에서는 원고, 제작된 파일, 동영상을 검토하였다.

■ 원고 검토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코디네이트 : 김태진 연구원

→ 경과 : 2016년 11월 1일자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를 일임.

2016년 11월 28일자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검토 결과가 보고됨.

이후 필자들이 검토의견을 반영함.

→ 검토 의뢰 원칙 : 한글학교 교사 또는 경력자
이주민의 현황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역을 안배

→ 감수 위원(6명)

	이름	직책	비고(지역)
1	김선미	재미한국학교미시간협의회 회장	미국
2	박남수	필리핀한글학교협의회 회장	동남아시아
3	심유석	중국한글학교협의회 부회장	중국
4	이정순	유럽한글학교협의회 회장	유럽
5	이훈우	재일본한글학교협의회 회장	일본
6	김성민	중남미한글학교협의회 회장	중남미

→ 감수 의견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다. 원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수 의견은 책임자가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

II

P A R T



한글학교 역사교사용 보조교재 커리큘럼과 내용

1. 전체 개요
2. 전근대(초등용)
3. 전근대(중등용)
4. 근현대

II PART

한글학교 역사교사용 보조교재 커리큘럼과 내용

1. 전체 개요

■ 역사교사용 보조교재

→ 기본 편집 방향 : 14차시

- ☞ 전근대 : 각 7주. 역사와 문화의 결합 / 아동용과 청소년용 분리
- ☞ 근현대 : 7주. 이주사 중심

→ 보조교재의 편집 형식과 구성

- ☞ 기본 방향 : 주제별 접근
전근대 : 역사와 문화의 결합 / 근현대 : 이주사 중심
지역사(또는 각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 ☞ 주제 분량 : 최소 4쪽(짝수 원칙)
- ☞ 구성 1 : 수업목표 / 생각열기(1쪽)
교수학습과정(2~4쪽)
활동(1~2쪽)
- ☞ 구성 2 : 가급적 모든 차시에서 동영상을 적극 활용
수업의 시작 지점을 고려하여 생각열기 차원에서 접근
수업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
- ☞ 편집 시 고려한 사항 :
그림, 문헌, 사진, 도표, 지도 활용 교사의 선택권을 적극 고려
활동에서 탐구형, 확장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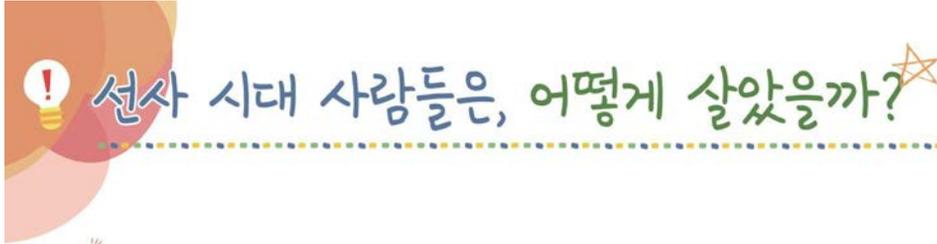
■ 보조교재의 전체 목차

구 분	차 시/대 상	주 제	비 고	동영상	
전근대	1	아동용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선사 유물 관련 활동	○
		중등용	단군, 고조선을 세우다	단군 이야기 활용	○
	2	아동용	살아있는 삼국시대 박물관	삼국 내용 관련 극장책 만들기 활동	○
		중등용	다양한 삼국의 문화가 발전하다	고분 유물 활용	○
	3	아동용	역사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교실 박물관 전시 및 빙고놀이	○
		중등용	찬란한 불교문화가 꽃피다(남북국)	불국사, 석굴암 활용	○
	4	아동용	내가 제일 잘 나가 고려의 찬란한 문화	고려 문화재 감정가 놀이 및 4장마커 활동	○
		중등용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다(고려)	상감청자와 불화 이용	○
	5	아동용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고려의 생활모습	삼베, 목화, 화약 내용 다루기	○
		중등용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를 만들다(고려)	활자 만드는 과정 이용	○
	6	아동용	세종대의 문화와 과학기술	세종대왕과 장영실 이야기	○
		중등용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다(조선)	화폐 이용	○
	7	아동용	판소리에 울고 웃다	판소리와 탈춤	○
		중등용	서민 문화가 성장하다(조선 후기)	풍속화 이용	

구 분	차 시/대 상	주 제	비 고	동영상
근현대	8	개항과 문명화, 세계 자본주의와 만나다		○
	9	첫 공식 이민,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가다		○
	10	망국, 많은 사람이 한반도를 떠나다	만주 이외에 연해주, 미주	○
	11	강제 동원, 강제 이주	강제동원,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
	12	해방과 한국전쟁, 돌아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일본인 인양도 포함	○
	13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다	미국 중심, 서독, 중남미, 캐나다	○
	14	세계화 시대, 이주의 글로벌화와 다양화	통계 제시	

2. 전근대(초등용)

1 차시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업 목표 - 선사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생각 열기 - 이 차시는 학생이 처음으로 우리 역사를 배우는 차시이므로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각 시대별 유적과 유물이 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교수 학습 과정

학 습 준비물 구석기 시대 및 신석기 유물 그림 나타내기, 구석기 시대 및 신석기 시대 분류 카드, 구석기 및 신석기 생활 모습 동영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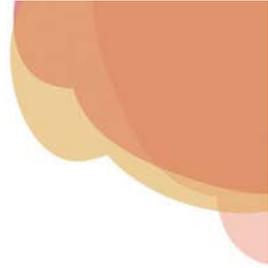
도 입 구석기 시대 및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동영상 보기

전 개 활동1 : 구석기 시대 및 신석기 유물 그림 색칠하고 익히기
활동2 : 구석기 시대 및 신석기 시대 유물 카드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분류하기

정 리 구석기 및 신석기 시대 관련 카드를 살펴보며 시대별 특징을 정리하기

- <도입>**
- 구석기 시대 및 신석기 생활 모습 동영상 시청하기 (참고자료)
 - 구석기 시대에는 먹을거리를 어떻게 구했나요?(사냥, 채집 등)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 주변에 사냥할 짐승과 나무 열매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거리가 풍부한 다른 곳으로 이동)
 -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나요?(움집)
 -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구석기 시대와 달리 어떻게 변했나요?(텐석기 → 간석기)
 - 식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농사, 가축, 빗살무늬 토기)

- <전개>**
- ※ 활동 1 - 구석기 시대 및 신석기 유물 그림 색칠하고 익히기(참고자료 활용하기)
 - 각 시대별 유물의 한글을 익히고 글자로 표현하는 유물의 그림 그리기
 - ※ 활동 2 -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 자료로 들려주기
 -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시대별 유물을 알맞게 분류하기



참고 자료

※ 선사 시대의 구분

인류의 역사는 크게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구분한다. 역사 시대란 인간이 문자를 발명하여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의 시대를 말하며,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을 역사 이전이라는 뜻에서 선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까닭은 인류의 역사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며, 시대를 구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대 구분 방식은 고대, 중세, 근대의 삼분법이나 고려 시대, 조선 시대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왕조를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역사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선사 시대는 이와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사 시대는 돌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석기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석기 시대는 돌로 나누어 뿔석기를 사용했던 더 오래된 시기를 구석기, 이후 등장하는 간석기를 사용했던 시대를 신석기라고 부릅니다.

도구의 발달에 따라 석기 시대 이후를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도 구분합니다. 선사 시대를 도구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까닭은 역사 기록이 없는 선사 시대를 아는 방법은 당시 사람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사 시대는 역사 시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회 발전 단계에 따른 시대 구분 용어인 원시 시대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양호환 외, 『역사 교육의 이론』, 책과 함께 2009.

※ 고고학의 연구 방법

영화나 만화에서는 타임머신을 이용하여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 볼 수 없는 과거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문자 기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유물이나 살았던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자가 없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선사 시대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과학적인 탐구와 함께 역사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이라 하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고고학자'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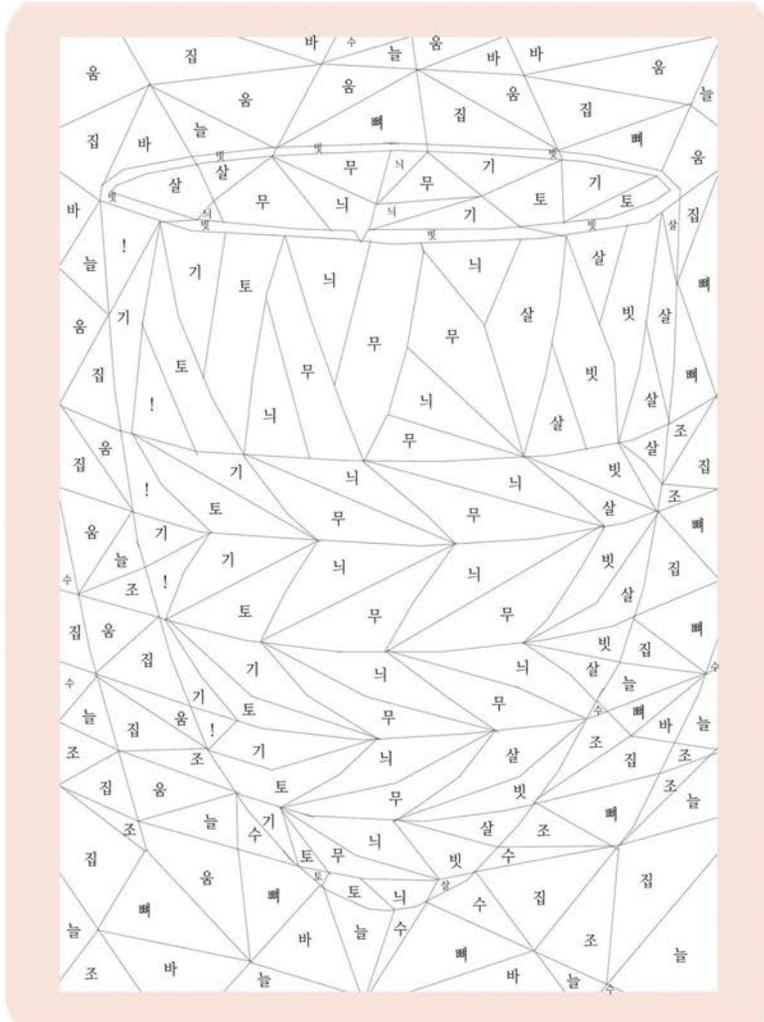
지금까지 발굴된 선사 시대의 유물은 사람이나 동물의 뼈, 돌로 만든 도구, 흙으로 만든 그릇 등이 대부분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유물을 발굴하여 연도를 측정하고, 용도를 알아내며 직접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유물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려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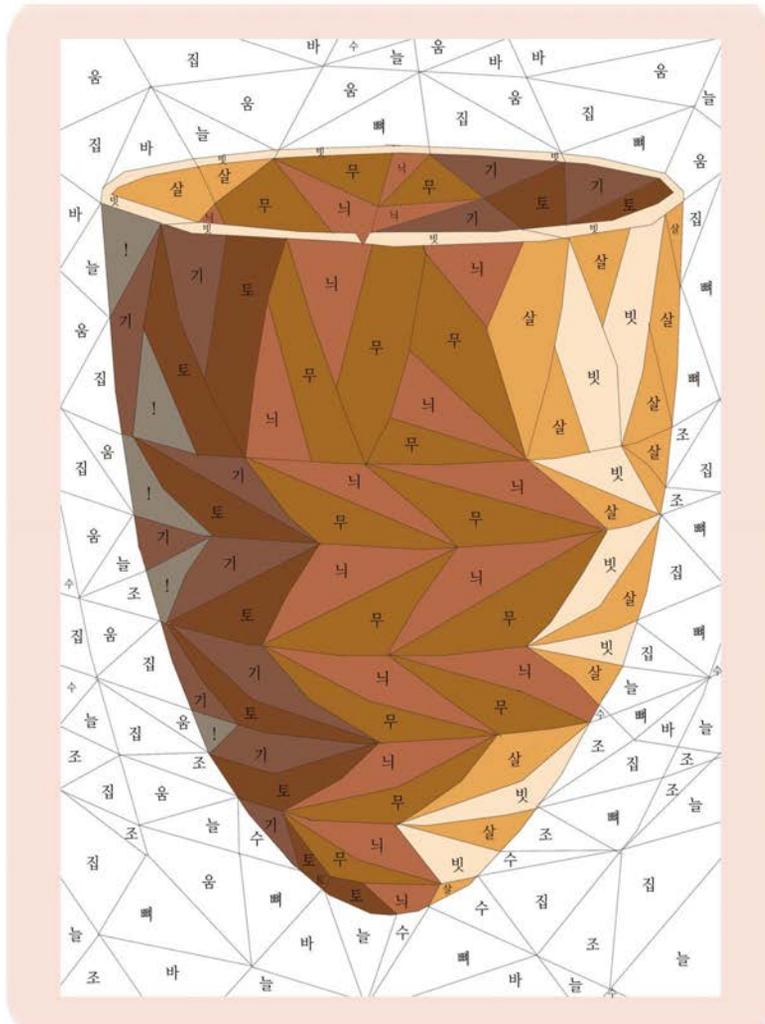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2015.

! 선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활동 1) 다음 글자들 중 같은 글자끼리 같은 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빛, 살, 무, 니, 토, 기, !)
 (예: 빛-노란색, 살-주황색, 무-황토색, 니-빨강색, 토-갈색, 기-보라색, !-하늘색)



활동 1) 다음 글자들 중 같은 글자끼리 같은 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빛, 살, 무, 님, 토, 기, !)
 (예: 빛-노란색, 살-주황색, 무-황토색, 님-빨강색, 토-갈색, 기-보라색, !-하늘색)



! 선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활동 2)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자료를 듣고 주어진 구석기, 신석기 유물 카드를 시대별로 알맞게 분류해서 붙여 보세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이야기 자료

<구석기>

- 구석기 시대에는 땅바닥에 있는 돌맹이를 깨거나 큰 돌에서 돌 조각을 떼어 내어 뿔석기를 만들었습니다.
- 뿔석기는 모양에 따라 짐승을 사냥하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자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는 주로 강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주로 생활한 까닭은 추위를 피할 수 있고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뿔석기를 사용하여 사냥을 하거나 나무 열매를 따고 식물 뿌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하천에 사는 물고기나 조개를 잡아먹었습니다.
-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옷의 형태가 매우 단순하였으며 풀잎이나 동물 가죽을 둘러 몸을 보호하였습니다.

<신석기>

-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아 옮겨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짓고 생활했습니다.
-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은 땅을 파고 나무를 세워 만든 집입니다.
- 도구는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 식생활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가죽을 길렀습니다. 또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 하거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및 신석기 시대 분류 카드

<구석기>



<신석기>



! 선사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정리 선사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정리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어떤 도구와 그릇을 사용했나요?		
먹을 것은 어떻게 구했나요?		
어디에서 살았나요?		
옷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정리 선사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정리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어떤 도구와 그릇을 사용했나요?	편석기를 사용하였다.	간석기, 빗살무늬 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먹을 것을 어떻게 구했나요?	사냥과 나무 열매 채집, 고기 잡이로 먹을 것을 구하였다.	사냥과 나무 열매 채집, 고기 잡이, 가축 기르기 농사로 먹을 것을 구하였다.
어디에서 살았나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으며, 막집에 사는 사람도 있었다.	주로 움집에서 살았다.
옷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풀잎이나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	가락바퀴, 뼈바늘을 이용해 실을 뽑고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었다.

2 차 시

살아있는 삼국시대 박물관



-  **수업 목표** - 삼국의 건국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하여 극장책을 만들어 보고 삼국시대의 유물과 유적의 특징을 찾아본다.
-  **생각 열기** - 이 차시는 삼국의 건국 및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삼국의 문화와 삼국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니다. 더불어 삼국 시대의 유적과 유물 그림을 활용하여 직접 극장책을 만들어 보고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교수 학습 과정

학 습 준비물	삼국의 건국 및 발전 과정 동영상, 삼국 시대 유적 및 유물 분류하기 학습지, 극장책 만들기 자료 등
도 입	삼국의 건국 및 발전 과정 동영상 보기
전 개	활동1 : 삼국 시대 유물 및 유적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이름 적어보기 활동2 : 삼국 시대 유적 및 유물 그림을 이용하여 극장책 만들기
정 리	삼국 시대 극장책을 전시하고 이야기 나누며 정리하기

<도입>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및 발전 과정 동영상 시청하기(참고자료)
<http://www.ebs.co.kr/tv/show?prodId=117174&lectId=10509963>

- 삼국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가요?(고구려, 백제, 신라)
- 삼국 중 가장 먼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신라)
- 고구려와 백제를 세운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요?(주몽, 온조)

- <전개>**
- ※ 활동 1 -삼국 시대 유적 및 유물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기(참고자료 활용)
-각 유적 및 유물의 뜻을 이해하고 이름 적어보기
 - ※ 활동 2 -삼국 시대의 유적 및 유물 그림을 가지고 나만의 극장책을 만들기(참고자료 활용)
-자신이 만든 극장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교실에 전시하기

 참고 자료 (그림, 문헌, 사진, 도표, 지도)

활동 1)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에 대한 극장책 만들기에 활용할 사진들입니다. 세 나라의 문화재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문화재인지 아래 보기에서 찾고, 나라 이름과 문화재 이름을 각 사진 아래에 작성해 보세요.

〈보기〉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 백제 <왕의 금제 관 꾸미개>, 신라 <진홍왕 순수비>,
 고구려 <수렵도>, 신라 <금관총 금관>, 백제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백제 <무령왕릉 석수>, 신라 <천마도>, 고구려 <무용도>

			
고구려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신라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백제 <무령왕릉>	
			
			

-석수 : 무덤을 지키는 짐승 모양의 돌조각

-천마도 :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천마총에서 나온 그림으로 순백의 천마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을 그린 것

! 살아있는 삼국 시대 박물관☆

<교사용>

<보기>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 백제 <왕의 금제 관 꾸미개>, 신라 <진홍왕 순수비>, 고구려 <수렵도>, 신라 <금관총 금관>, 백제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백제 <무령왕릉 석수>, 신라 <천마도>, 고구려 <무용도>			
			
고구려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신라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백제 <무령왕릉>	신라 <진홍왕 순수비>
			
백제 <무령왕릉 석수>	고구려 <수렵도>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	고구려 <무용도>
			
신라 <천마도>	신라 <금관총 금관>	백제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백제 <왕의 금제 관 꾸미개>

※ 삼국 시대 문화의 특징

- 고구려 : 험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고구려인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강인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백제 : 경제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독창성을 발휘한 화려하고 섬세한 예술적 솜씨가 돋보입니다. 이는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신라 :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패기 있으면서도 화려한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 삼국 시대 유적과 유물

〈고구려〉

-수렵도 : 무용총 널방 서벽에 채색된 수렵도는 활달하고 힘찬 고구려인의 기상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큰 나무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 소가 끄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고 왼쪽에 사냥 장면이 전개됩니다. 사냥 장면은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쓴 5명의 말 탄 사람이 활시위를 힘껏 당기며 사슴과 호랑이를 쫓고 있습니다. 산과 산 사이를 쫓고 쫓기는 말 탄 사람과 동물들은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고구려인의 기개를 마음껏 발휘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무용도 : 무용도는 고구려 고분 중 중기에 해당하는 무용총의 벽화입니다. 고구려시대의 의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고구려인들은 신분에 따라 입는 옷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릉비 :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으로 호태왕비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소재하며 고구려에서 가장 큰 비석으로써 4면에 1,802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14년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 고구려 때 만든 금동 불상으로 1963년에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하촌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64년 3월 30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1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백제〉

-무령왕릉 :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고분군 내에 있는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 송산리고분군은 백제의 돌방무덤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 고분군에는 당시 중국양(梁)나라 지배계층 무덤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축조한 벽돌무덤으로서 무령왕릉과 함께 제6호 벽돌무덤이 있습니다.

-왕의 금제 관 꾸미개 : 1971년, 백제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발굴이 이루어졌으니, 바로 공주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에서는 4,600점에 이르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유물 중의 하나가 금제 관 꾸미개(金製冠飾)입니다. 관 꾸미개는 모두 4점 출토되었으며 왕과 왕비의 머리 부분에서 각각 2점씩 쌍을 이룬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령왕릉 석수 : 공주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백제 때 만들어진 석수입니다. 석수(石獸)란 돌로 만든 동물의 상(像)으로 궁전이나 무덤 앞에 세워두거나 무덤 안에 놓아두는 돌로 된 동물상을 말합니다.

-부여정림사지오층석탑 : 높이 8.33m, 국보 제9호.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사지에 있는 석탑으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현재 2기만 남아있는 백제 시대의 석탑입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목조탑을 재해석하여 만들었으며 재료는 석재로 바꾸고 목조탑의 구조를 변용해서, 한국 석탑의 시원으로 불립니다. 단아하면서도 옥개석 처마가 치켜 올라가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살아있는 삼국 시대 박물관☆

※ 삼국 시대 유적과 유물

〈신라〉

-천마도 : 천마도는 1973년 발굴된 신라 시대 고분인 천마총에서 발견된 것으로, 말의 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리는 장니에 그려진 말 그림입니다. 천마는 꼬리를 세우고 하늘을 달리는 모습으로, 다리 앞뒤에 고리모양의 돌기가 나와 있고 혀를 내민 듯 한 입의 모습은 신의 기운을 보여줍니다. 이는 흰색의 천마가 동물의 신으로, 죽은 사람을 하늘 세계로 실어 나르는 역할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금관총 금관 : 최초로 발견된 신라 금관인 금관총(金冠塚) 금관은, 미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워 신라 금관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테 위에 3개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과 2개의 사슴뿔 모양 장식을 덧붙인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뭇가지 모양 장식의 가지는 황남대총 북쪽무덤 및 서봉총 금관과 같이 3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 : 진흥왕은 540~576년의 37년 재위하는 동안 낙동강 서쪽의 가야세력을 완전 병합하였습니다. 또 한강 하류 유역으로 진출해 서해안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동북으로 함경남도 이원지방까지 경략하는 등 정복적인 팽창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영역을 진흥왕이 직접 순수하면서 민심을 살피고 국가에 충성과 절의를 바친 자에 대한 공로의 포상을 선포하고 군신이 함께 경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모두 4개인데, 이들은 약칭해 창녕비·북한산비·마운령비·황초령비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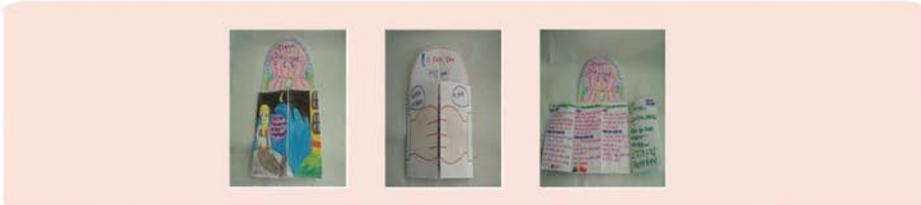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0호로 지정되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모전석탑(模塼石塔)으로,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도 부르며, 원래는 9층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3층만 남아 있고 높이는 9.3m입니다. 634년(선덕여왕 3) 분황사 창건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때 크게 훼손되었다고 하며 지금의 모습은 1915년 일본인들에 의해서 수리 복원된 것입니다. 수리 당시 탑 안에서 사리함과 구슬 등의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활동 2) 나라별로 분류한 위 사진들을 활용하여 나만의 극장책을 만들어 보세요.

1) 극장책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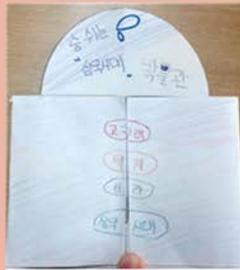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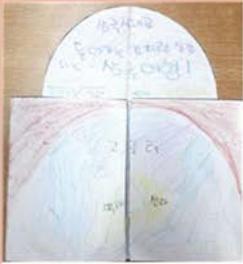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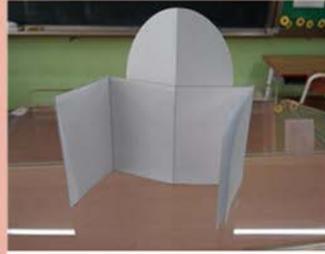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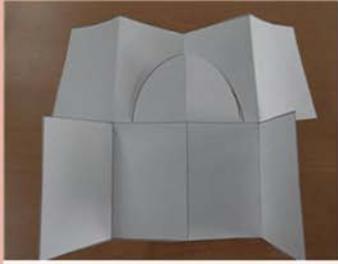
	<p>1. 그림과 같이 종이를 세로로 반 접으세요.</p>		<p>2. 실선을 따라 가위로 오리고 종이를 펴세요.</p>
	<p>3. 그림처럼 종이를 접으세요.</p>		<p>4. 그림과 같이 종이를 앞쪽으로 접어요.</p>
		<p>5. 종이 안쪽에 쪽 수를 적어 넣습니다.</p>	

2) 예시 작품



! 살아있는 삼국 시대 박물관 ☆

3) 실물 만들기 및 예시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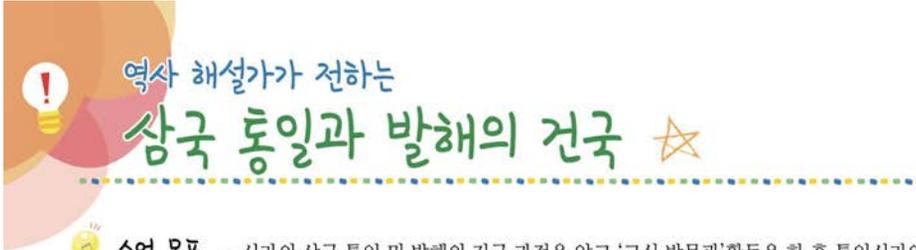




4) 극장책 만들기 학습지

3 차 시

역사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 수업 목표** - 신라의 삼국 통일 및 발해의 건국 과정을 알고 '교실 박물관' 활동을 한 후 통일신라와 발해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그 때 당시의 생활 모습과 문화를 알아본다.
- 생각 열기** - 이 차시는 신라의 삼국 통일 및 발해의 건국 과정을 중심으로 신라와 발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더불어 교실 박물관 활동을 통해 빙고 놀이와 월지 나무 주사위 놀이를 하고(선택활동)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교수 학습 과정

학 습 준비물	신라의 삼국 통일 및 발해의 건국 과정 동영상, 신라 및 발해의 교실 박물관 자료, 빙고 놀이판, 월지 나무 주사위 만들기 자료 등
도 입	신라의 삼국 통일 및 발해의 건국 과정 동영상 보기
전 개	활동1 : 신라 및 발해의 교실 박물관 자료 교실에 게시하고 관람 후 빙고 놀이하기 활동2 : 신라 시대의 월지 나무 주사위 만들어 놀기
정 리	신라 및 발해의 교실 박물관 활동을 하고 난 후 소감 나누며 정리하기

- <도입>**
- 신라의 삼국통일과 후삼국 이야기
<http://www.ebs.co.kr/tv/show?prodId=117174&lectId=10533246>
 - 발해의 건국 과정 동영상 시청하기(참고자료)
<http://www.ebs.co.kr/tv/show?prodId=117174&lectId=10470249>
 -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인가요?(신라)
 - 통일신라는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져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불국사, 석굴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 발해를 세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고구려, 대조영)
 -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던 이 시대를 가르켜 부르는 시대를 무엇이라고 하나요?(남북국 시대)

- <전개>**
- ※ 활동 1
 - 신라 및 발해의 문화 자료를 크게 출력하여 '교실 박물관'을 꾸미고 관람하기(참고자료 활용하기)
 - 각유적 및 유물의 뜻을 이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공책에 적어보고 빙고 놀이하기
 - ※ 활동 2 (선택활동)
 - 신라 시대의 월지(안압지)에서 출토된 14면체 나무 주사위(주령구)를 본 떠 만든 전개도에 나만의 별칭을 만들어 보기 (참고자료 활용하기-전개도를 확대·복사해서 사용가능)
 - 자신이 만든 주사위를 이용하여 가위바위보 등을 통해 친구와 함께 활동하기
 - 주사위에 별칭을 쓸 때 인격을 모독하거나 지나친 장난을 쓰지 않도록 하기.



참고 자료

※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당시 백제는 정치가 혼란하여 신라와 당의 연합군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백제의 계백은 군사 5천여 명으로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군사 5만여 명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신라는 백제의 강한 저항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화랑들의 활약 등에 힘입어 승리하였습니다. 백제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게 도읍인 사비(부여)를 빼앗기고 멸망하였습니다(백제 멸망, 660년). 이후 신라와 당의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고구려는 이를 잘 막아 냈다. 그러나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으로 힘이 약해져 있었고, 왕보다 강한 힘을 가졌던 연개소문이 죽자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다시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도 멸망하였습니다(고구려 멸망, 668년). 한편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망하여 없어진 나라의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부흥 운동을 일으켰으나 힘이 약화되어 실패하였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과 함께 당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당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공격하였으나, 신라는 끈질기게 당에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신라 문무왕은 당의 군대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삼국 통일, 676년).

신라의 삼국 통일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발해의 건국 과정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은 고구려 땅을 직접 다스리고자 하였고, 당에 저항하는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로 당의 이곳저곳에 옮겨 살게 하였습니다. 이때 고구려 장수였던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나와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습니다(발해 건국, 698년).

발해는 점차 고구려의 옛 땅을 대부분 차지하였고,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받았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2015.

역사 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

활동 1) 신라와 발해의 유적 및 유물 사진들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교실에 게시하고 박물관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자유롭게 읽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또는 인상 깊었던 유물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종이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3×3 또는 4×4 빙고 놀이를 해보세요.

<<통일신라의 수도 금성(경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의 위치>



<대표 먹거리 - 황남빵>



경주시 황남동에서 최영화씨가 최초로 만든빵.
안에는 팥이 들어있습니다.

<경주의 신라 유적>



<불국사>



<첨성대>



<문무대왕릉>



<석굴암>

<통일 신라 유물>



<성덕대왕신종
(에밀레종)>



<불상>



<사리를 보관한 통>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불국사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사에 들어가려면 두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위 사진에 있는 계단이 바로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청운교(푸른 구름다리)'와 '백운교(흰 구름다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다리꼴을 뒤집어가면서 쌓아 아주 튼튼한 백운교와 청운교

왜? 백운교와 청운교를 지었지?

▷ 불교의 책에 의하면 부처님의 나라에 가려면 물을 건너고 또 구름 위를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 구름다리(물 건너기), 하얀 구름다리(구름 건너기)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서 문에 들어가면 부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

청운교와 백운교를 건너 입구(자하문) 안으로 들어가면 다보탑과 석가탑이 맞아줍니다.



↑ 불국사를 위에서 본 모습

여러분은 두 탑 중 어느 탑이 더 만들기 힘들 거라 생각하나요? 아마 다보탑이란 의견이 많겠지만, 사실은 석가탑이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완벽한 비례로 아름다움을 표현했기 때문이죠. 이후로 석가탑은 한국형 석탑의 원형이 되어서 이후 탑들이 석가탑을 모방하게 됩니다.



역사 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

신라 인쇄 기술의 발달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통일신라 시대에 불경(불교책)을 인쇄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이 퍼졌습니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쇄할 내용을 하나하나 나무에 새긴 다음 목판에 먹물을 칠하고 종이에 찍어내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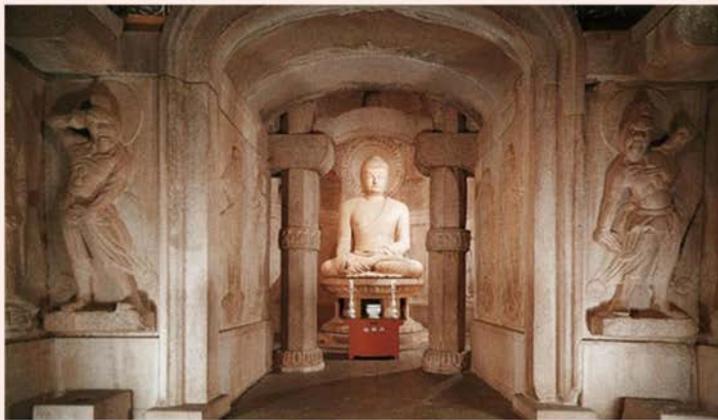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계기?

1966년,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 속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도굴꾼들은 석가탑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탑을 해체하려다 실패했죠. 사람들은 탑이 훼손된 김에 탑을 보수(=수리)할 겸 석가탑을 해체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것이죠!



석굴암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경주에 있는 대표적인 통일신라 유적입니다.
 국보 제24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석굴암은 신라인들이 불교를
 굳게 믿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신라미술의 최고 절정을 보여주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석굴암을 들어가면 이렇게 사각형의 앞방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 절을 하고 공양을 드립니다.
 사진에서 험악한 얼굴을 한 근육질 사람들은 절이나 불상을 지키는 불교의 수호신으로
 인왕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에서 잘 안 보이지만 통로에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통로를 지나면 원형의 방이 나오고 부처님이 연꽃에 앉아 계십니다.
 석굴암에서 신라인의 과학적인 면을 엿볼 수 있는데, 본존불(석굴암 내부의 가장 큰 불상)이
 정확히 동남남 30도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 바다에 아침 해가 떠오르면 햇빛이 부처님의
 이마에 있는 백호(보석-수정)에 반사되어 석굴암 전체가 환해진다고 합니다.



역사 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



석가탑에 얽힌 전설

석가탑은 그림자가 없다고?



백제의
아사달의 기술이
뛰어나다던데...

불국사를 만들던 김대성은 백제 출신 석공인 아사달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사달은 아내인 아사녀를 고향에 남겨두고, 경주로 가게 되었어.



아사달은 석가탑을 짓느라 몇 해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들일 수 없소!

아사녀는 남편을 찾아 경주로 갔어.



탑공사가 끝나면 저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칠 것이요. 그러면 남편을 볼 수 있을 것이요.

하지만 남편을 만날 수가 없었어.



아사녀는 슬픔에 젖어 공사장 주변을 맴돌다가 연못에 석가탑 그림자 비추기를 기다렸어.



한 달이 지나도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자, 그만 연못에 몸을 던졌어.



아사달은 석가탑을 완성하고 연못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를 만날 수 없었어. 끝내 그림자가 비추지 않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첨성대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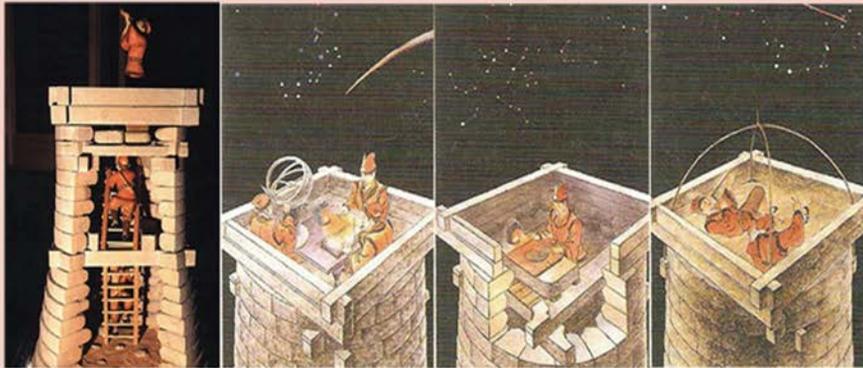


첨성대는 **선덕 여왕** 시기에 만든 천문대입니다.

첨성대 덕분에 신라에서는 일식을 29번이나 관찰했다고 합니다. 왕이 천체의 움직임을 신경 쓴 이유는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 시기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첨성대를 지으면서 신라인들은 돌의 개수를 통해 여러 가지를 상징했는데, 왼쪽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첨성대 이용법



역사 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

발해의 수도 <상경성> 탐구하기



<상경의 위치>



상경용천부(복원도)

-> 제일 앞의 큰 길이 **주작대**로입니다. (당의 영향을 받은 부분임)

상경에서 발견된 불교 영향 유물



발해 상경의 석등(6.3미터)
연꽃무늬에서 불교가 융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의 연꽃무늬 기와, 고구려의 기법과 동일합니다.



상경성에서 발견된 불상.

발해 문왕의 딸 <정효공주묘> 탐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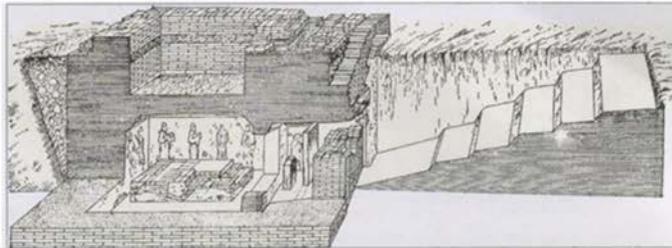
<발견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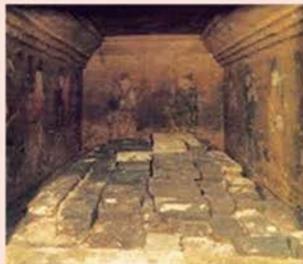
<정효공주묘 내부(복원도)>
앞방에는 문지기 2명,
그밖에 시종, 악사, 내시 등
10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대로 복원한 발해 사람>



계단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면 벽화가 있는 방과 함께 관이 놓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 무덤은 발해가 고구려와 당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나라의 벽돌 스타일>
무덤 칸을 벽돌로 쌓은 뒤 벽화를 그림



<고구려의 모줄임>
천장에 긴 돌을 계단처럼 쌓아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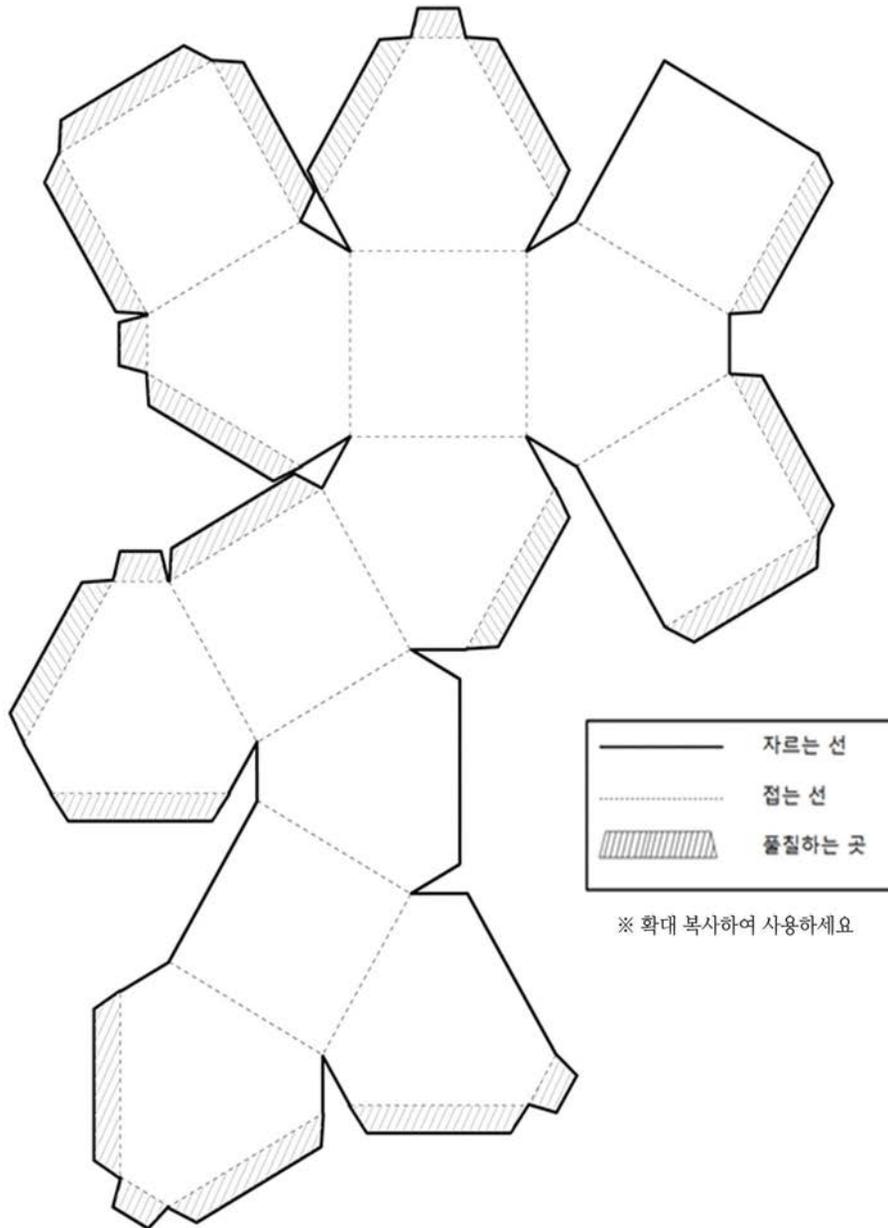
역사 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

※ 빙고놀이 - '교실 박물관'에서 찾은 중요하거나 인상 깊었던 단어를 다음 네모 칸 안에 옮겨 적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3줄 또는 4줄 빙고를 완성한 후 '빙고!'라고 외치면 됩니다.

빙고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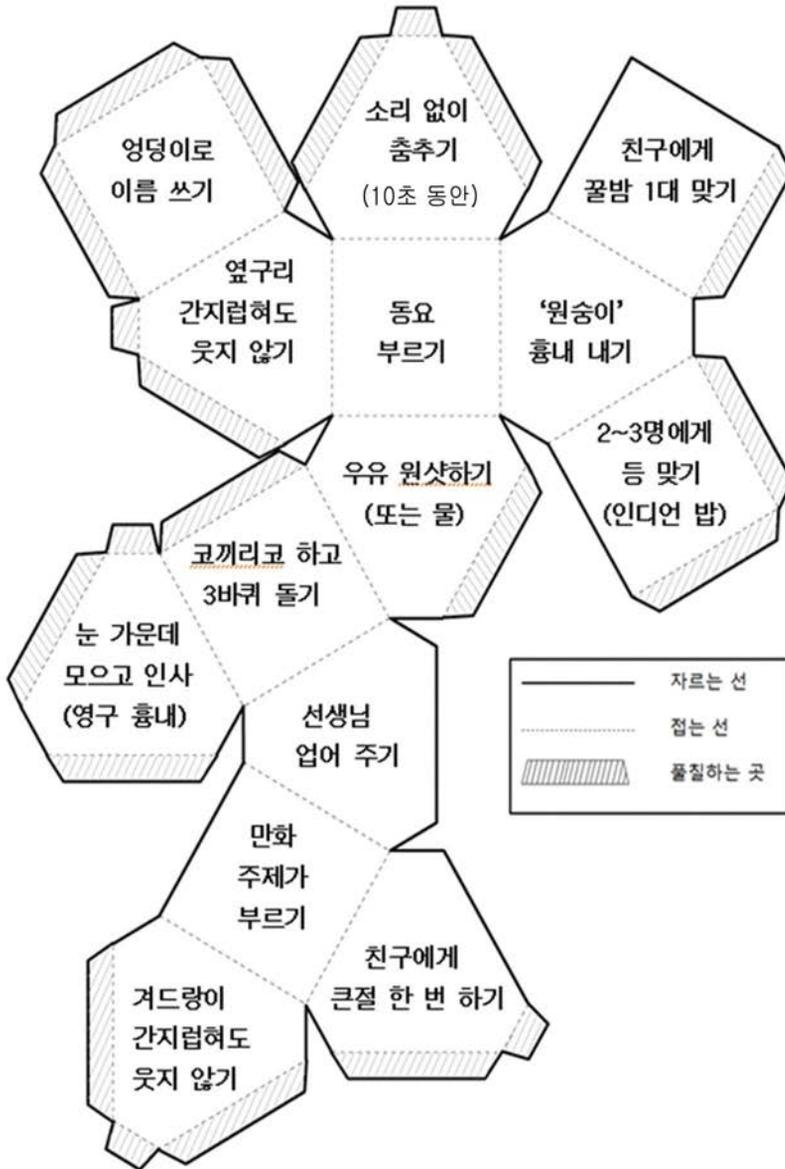
- 활동 2)** 1977년 신라 시대의 월지(안압지)에서 나온 14면체 나무 주사위를(주령구) 본떠 만든 주사위 전개도입니다. 나만의 별칭 주사위를 만들어 보고 친구와 함께 놀아보세요.
(단, 주사위에 인격을 모독하거나 지나친 장난이 적힌 별칭은 하지 않도록 한다.)





역사 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



※ 14면체 주사위, 신라 시대의 주령구

1975년 경주 동궁과 월지(안압지)를 발굴할 때 흥미로운 유물이 하나 출토되었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정사각형 면 6개와 육각형 면 8개로 이루어진 14면체 주사위인데, 면마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사위를 굴린 사람이 글의 지시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금성작무(禁聲作舞)- 노래없이 춤 추기(무반주 댄스)
- 중인타비(衆人打鼻)- 여러 사람 코 때리기
- 음진대소(飲盡大笑)- 술잔 비우고 크게 웃기(원샷)
- 삼잔일거(三盞一去)- 술 석잔을 한 번에 마시기
- 유범공과(有犯空過)-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도 참고 가만있기
- 자창자음(自唱自歎)- 스스로 노래 부르고 마시기
- 곡비죽진(曲臂則盡)- 팔을 구부려 다 마시기(러브샷)
- 논면공과(弄面孔過)- 얼굴 간지러움을 태워도(놀려도) 참기
- 임의청가(任意請歌)- 마음대로 노래 청하기
- 월경일곡(月鏡一曲)- 월경 노래 한 곡 부르기
- 공영시과(空詠詩過)- 시 한수 읊기
- 양간죽방(兩盞則放)- 두 잔이 있으면 즉시 비우기
- 추물막방(醜物莫放)- 더러운 것 버리지 않기
- 자창괴래만(自唱怪來晩)- 스스로 괴래만을 부르기(도깨비 부르기)



〈주령구 원본〉



〈주령구 복사본〉

궁궐 안에 만든 연못에서 발견되었고 술 마시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주연을 열 때에 사용하던 놀이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유물은 복제품입니다. 발굴 직후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전기 오븐에 넣어 서서히 말렸는데, 온도 조절기가 불량해서 화제가 나 완전히 재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1천 년 이상 지하에 있다가 세상 구경을 하자마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시집가고 장가가고 - 가족과 의식주, 2009. 12. 25.

4 차 시

내가 제일 잘 나가 고려의 찬란한 문화



내가 제일 잘나가 고려의 찬란한 문화 ☆



수업 목표

- 다양한 문화재를 통하여 고려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고려의 문화재 카드를 이용한 매칭 카드 놀이와 마커 놀이를 해 본다.



생각 열기

- 이 차시에서는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실용성, 뛰어난 제작기술을 알고 나전 칠기를 소개하면서 나전 칠기의 정교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섬세한 세공 및 제작 기법의 우수함을 배운다. 더불어 해인사 대장경판과 금속 활자를 통해 우리나라 인쇄 기술의 발달을 이해한다. 끝으로 고려의 문화재 카드를 이용한 매칭 카드 놀이와 마커 놀이를 하며 고려의 문화재를 재미있게 알아가 본다.



교수 학습 과정

학 습 준비물	고려청자를 만드는 방법 동영상, 고려의 문화재 카드, 위대한 발명 금속활자 동영상 등
도 입	고려시대의 최고의 문화재인 청자 만드는 방법 및 고려청자의 우수성에 대한 동영상 보기
전 개	활동1 -고려시대 문화재인 고려청자 및 나전칠기, 해인사 대장경판, 직지심체요절에 대해 학습하기 -고려시대의 문화재를 직접 그려 보고 문화재 감정이 놀이하기 활동2 -고려시대 문화재 카드를 이용한 '카드 매칭' 놀이하기 -고려시대 문화재 카드를 이용하여 '4장 마커' 놀이하기
정 리	고려시대 문화재 카드를 이용하여 고려시대 문화재의 우수성에 대해 이해하기

<도입>

- 고려청자 만드는 방법 및 우수성 동영상 시청하기(참고자료)
<https://youtu.be/4SEZQ0le9s8>
-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고려청자)
- 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려청자를 보고 감탄을 할까요?
 (신비한 푸른 빛의 색이 아름답기 때문에,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등등)
- 고려청자와 같이 조상이 만들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가치가 뛰어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화재)

<전개>

- ※ 활동 1
 - 고려시대 문화재인 고려청자 및 나전칠기, 해인사 대장경판, 직지심체요절에 대해 학습하기 (참고자료 활용하기)
 - 고려시대의 문화재를 직접 그려 보고 문화재 감정이 놀이하기
- ※ 활동 2
 - 고려시대 문화재 카드를 이용한 '카드 매칭' 놀이하기
 - 고려시대 문화재 카드를 이용하여 '4장 마커' 놀이하기(고려시대 문화재카드 활용하기)
<https://youtu.be/VxLB8Cl2Itk>
 - 고려시대 문화재 카드를 보고 각 문화재의 특징 또는 우수성 말해보기

참고 및 활동자료(그림, 문헌, 사진, 도표, 지도)

아래 빈칸에 고려시대의 문화재들 중에 하나를 골라 직접 그려보고
문화재의 이름과 함께 나만의 감정가를 책정해 보세요.

문화재 이름 :

감정가 :

- 그림을 본 후 문화재의 이름과 감정가를 맞춰 보는 놀이입니다.
참고로 감정가가 정답과 모두 다르다면 가장 근사한 값을 제시한 사람이 정답자로 정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고려의 찬란한 문화 ☆

※주요 개념 및 용어해설

〈고려청자〉

청자는 송에서 먼저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반도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 초기부터 만들었습니다.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고려청자는 귀족 문화와 더불어 발달하였습니다.

고려의 청자 제작 기술은 12시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청자는 사발, 접시, 잔, 병, 향아리 등 생활에 쓰이는 그릇부터 불교 용품, 제사 용품, 문방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은 청자로 만든 기와를 얹은 집에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2세기 전반에는 순청자가 유명하였습니다. 중국 청자가 약간 진하고 어두운 빛깔이라면 고려청자는 맑고 투명한 빛깔이라 고려청자의 빛깔을 비색(霽色)이라고도 하였습니다. 12세기 후반에는 상감 청자가 유행하였습니다. 상감 기법은 도자기 표면에 흙을 파고 여기에 바탕 재료와 성질이 다르거나 색깔이 다른 재질을 넣어 무늬를 만드는 기법인데 청동이나 다른 조각품에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감 기법을 청자에 적용한 이들이 고려 사람들이었고, 이는 고려만의 독특한 기법이었습니다.

청자의 종류는 다양한데, 매병, 주전자, 대접 등이 주를 이루었고 향로, 화분, 의자, 기와 등도 제작하였습니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짧고 좁은 목과 반구(盤口)형의 구연부,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서 굽까지 내려오는 유려한 S자 곡선을 지닌 고려식 매병입니다. 굽은 얇고 낮게 깎았으며 바닥에는 태토반침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굽바닥을 제외하고 짙은 회청색의 유약을 씌웠는데 빙렬(얼음이 갈라진 금 모양의 무늬)이 세세히 남아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이 대장경판은 고려 고종 때 대장도감에서 새긴 목판입니다. 대장경은 경(經)·율(律)·논(論)의 삼장 또는 일체경을 말하며 불교경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시대에 판각되었기 때문에 고려대장경이라 하며 또한 판수가 8만여 판에 이르고 8만 4천 번뇌에 대치하는 8만 4천 법문을 수록했다 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이 향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낯익은 명품으로 고려 청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에서도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향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향이 빠져나가는 뚜껑과 향을 태우는 화사(火舍),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받침으로 이루어집니다. 뚜껑은 한가운데에 구멍이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하였으며, 이 위에 칠보문이 투각된 구형의 손잡이를 붙여 연기가 넓게 분산 되도록 하였습니다.

〈나전칠기〉

나전칠기도 고려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 주는 예술품입니다. 귀족들은 나전 기법으로 만든 장식용 그릇, 장롱, 상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전'은 자개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 넣거나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을 말하고, '칠기'는 옷칠을 한 상자나 그릇 같은 기구를 말합니다.

〈나전 경함〉

나전(螺鈿)은 야광조개나 진복 껍데기를 종잇장같이 얇게 갈아 사용한 기법입니다. 경함은 불교 경전을 넣어 두는 함입니다.

〈금속활자〉

주자(鑄字)라고도 합니다. 고려·조선 시대의 금속활자는 구리·철·납 등 여러 가지 금속이 사용되었으나, 현대의 금속활자는 납을 주로 하는 합금(合金)입니다. 형태는 사각 기둥으로 자면(字面)에 글자가 뒤집어져서 튀어나게 새겨져 있습니다.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12세기 중엽의 고려시대 청자 주전자로 국보 제116호입니다. 표주박 형태의 병에 물을 따르는 부리와 손잡이를 갖춘 주전자입니다. 몸체는 표주박처럼 아래위의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윗부분에는 수구(水口)와 뚜껑을 갖추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본으로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습니다. 1887년 프랑스의 대리 공사로서 서울에서 근무하던 폴랭 드 플랑시가 한국에서 수집해 간 뒤 파리의 골동품 수집가에게 넘겼는데, 수집가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이 책을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하여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떠났던 박병선은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근무할 때 이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연구와 고증을 거쳐 1972년 파리에서 열린 '세계 도서의 해' 기념 도서 전시회에 이 책을 출품하여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0여 년 앞선 1377년에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은 2001년 9월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관련 동영상〉 <https://youtu.be/Jq-5-on17G4>



내가 제일 잘나가 고려의 찬란한 문화 ☆

<직지심체요절 만드는 과정>



- ◇ 밀랍자 새기기: 밀랍에 한 글자씩 새겨서 부자(어미자)를 만듭니다.
- ◇ 주형을 만들기: 주형토로 밀랍자를 감싸 주형틀을 만듭니다.
- ◇ 쇳물 붓기: 동과 주석, 납을 섞어 녹인 쇳물을 붓습니다.
- ◇ 활자 떼기: 주성된 금속 활자를 떼어 내서 다듬습니다.
- ◇ 조판하기: 인쇄할 내용에 맞춰 활자를 배열합니다.
- ◇ 인쇄하기: 활자판에 먹을 잘 바른 후 인쇄합니다.

〈청자사자유개항로〉

고려 시대의 청자 항로. 높이 21.2cm, 지름 16.3cm. 국보 제60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세 개의 다리가 달린 화사 위에 뚜껑으로 사자를 상형한 항로입니다. 구조적으로는 화사에서 피워진 향의 연기가 사자의 몸을 통하여 벌린 입으로 내뿜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전칠기 팔각함〉

고려 시대에 제작된 나전칠기 팔각함이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높이 8.0cm, 폭 16.4cm이며 흑칠(黑漆) 바탕에 모란넝쿨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란 무늬가 촘촘히 수놓아져 있어 정교함과 예술성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 2) 문화재 카드 매칭 놀이 및 4장 마커 놀이

가. 문화재 카드 매칭 놀이

- 1) 문화재 카드를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 2) 무작위로 두 장의 카드를 뒤집어서 카드 색을 확인합니다.
- 3) 두 장의 카드 테두리 색이 일치할 경우 카드에 적힌 문화재 이름을 말하고 카드를 가져갑니다.
- 4) 두 장의 카드를 뒤집었는데 카드의 테두리 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자리에 카드 앞면이 보이지 않도록 내려놓습니다.
- 5)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카드놀이입니다.

나. 문화재 카드를 활용한 4장 마커 놀이

- 1)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 수 보다 한 개 적은 마커를 준비합니다.
- 2) 첫 번째 놀이 참가자가 한 사람당 4장씩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 3) 카드를 확인할 때는 모두 다 같이 봅니다.
- 4) 카드 4장의 문화재 내용이 서로 같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카드를 옆 친구에게 '패스' 또는 '넘겨'라는 말과 함께 필요 없는 카드를 넘겨줍니다.
- 5)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카드 4장이 모두 같은 문화재 카드가 될 경우 '마커'라고 외치며 책상 위에 놓인 실제 마커를 하나 가져옵니다.
- 6) 마커를 가져 온 사람이 놀이에 승리하게 되며 제일 먼저 '마커'라고 외친 친구가 다음 판 놀이에 카드를 나눠 주는 사람(선)이 됩니다.

- 4장 마커 놀이 동영상 : <https://youtu.be/VxLB8Cl2Itk>



1.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2.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3.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4. 나전 경합 (불교경전합)



5. 고려 금속활자



6.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7. 직지심체요절



8. 청자사자유개향로



9. 고려 나전칠기 팔각합



1.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2.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3.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4. 나전 경함 (불교경전함)



5. 고려 금속활자



6.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7. 직지심체요절



8. 청자사자유개향로



9. 고려 나전칠기 팔각함



1.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2.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3.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4. 나전 경함 (불교경전함)



5. 고려 금속활자



6.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7. 직지심체요결



8. 청자사자유개향로



9. 고려 나전칠기 팔각함



1.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2.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3. 청자 투각 칠보문 향로



4. 나전 경함 (불교경전함)



5. 고려 금속활자



6.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 모양 주전자



7. 직지심체요절



8. 청자사자유개향로



9. 고려 나전칠기 팔각함

5 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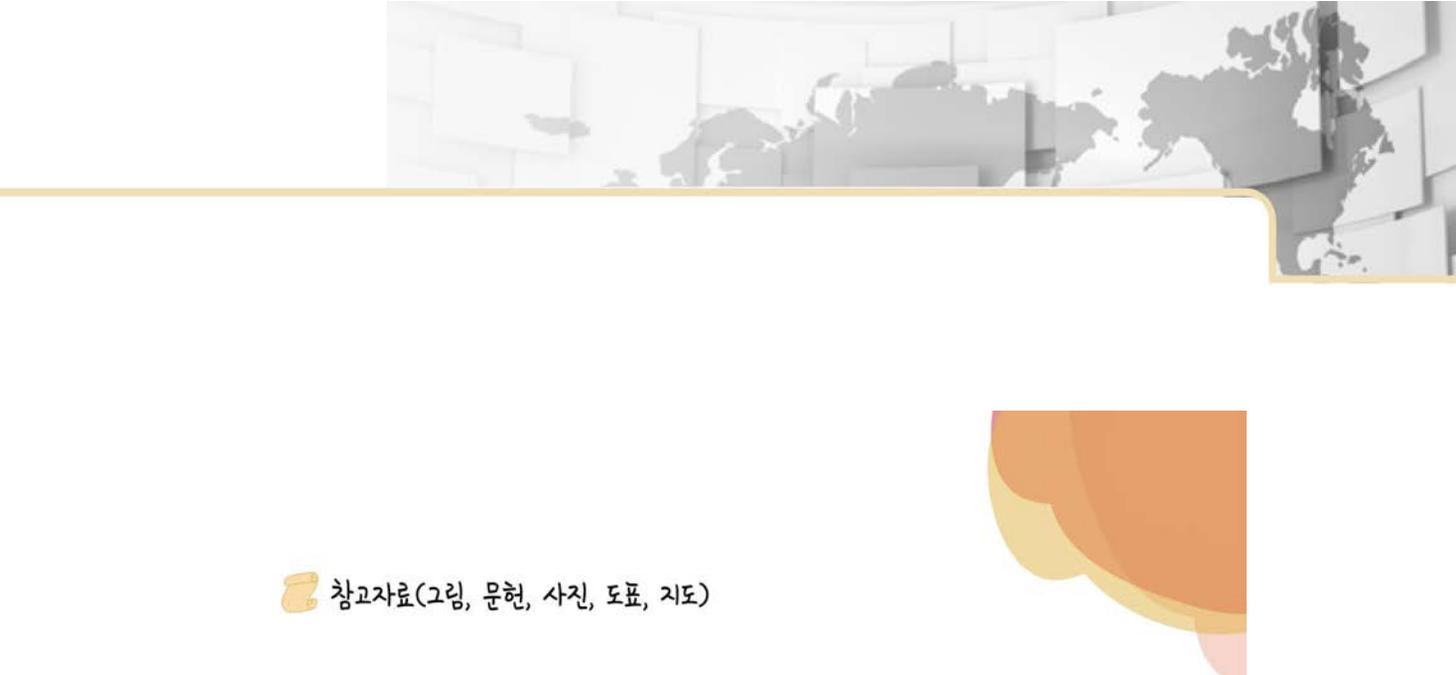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고려의 생활모습

과학 기술로 발전하는 고려의 생활 모습 ☆

- 
수업 목표 - 과학기술의 발달로 변화한 고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고 조상들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 
생각 열기 - 이 차시에서는 목화의 유입과 화약의 개발로 고려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생활 모습의 변화를 이끈 문익점과 최무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목화를 재배 하기 전에 백성들이 겪은 불편함에 대해 알아본 후, 목화 재배로 목화솜을 이용해 따뜻한 옷과 이불을 만들게 되면서 백성들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알도록 합니다. 또 왜구의 침략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었을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하여 왜구를 물리치게 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평화롭게 변화된 것을 알도록 합니다. 목화 씨를 들여온 문익점과 화약을 만들기 위한 최무선의 노력을 알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교수 학습 과정

학 습 준비물	문익점과 최무선 관련 동영상, 활동 1 학습지, 활동 2 학습지, 감사장 등
도 입	<p><고려시대의 최고의 문화재인 청자 만드는 방법 및 고려청자의 우수성에대한 동영상 보기> - 목화씨를 들여온 문익점 : http://www.ebs.co.kr/tv/show?prodId=117174&lectId=10486839 - 무기 발명가 최무선 : http://www.ebs.co.kr/tv/show?prodId=117174&lectId=10433268</p> <p><생각해볼 거리> - 지금 내가 만약 목화씨를 들여온다면 어디에 숨겨서 들여올지 생각해 봅시다. - 최무선이 화약을 만들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p>
전 개	<p><활동1 : 문익점과 최무선의 업적과 생활의 변화 Before & After> - 문익점이 고려에 목화를 들여오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고, 문익점이 고려에 목화를 들여온 후의 상황을 상상하여 만화로 나타내기 -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하기 전 상황을 살펴보고, 화포를 개발한 후의 상황을 상상하여 만화로 나타내기</p> <p><활동2 : 역할극> - 예시 역할극 대본을 참조하여 역할극 수행하기(문익점과 최무선 중 택1) - 모둠끼리 창작대본 작성하여 친구들 앞에서 역할극 발표하기 (문익점과 최무선 중 택1)</p>
정 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장 만들기>



참고자료(그림, 문헌, 사진, 도표, 지도)

〈목화 재배로 변화된 생활 모습 알아보기〉

고려 사람들은 삼베, 모시, 비단, 가죽 등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귀족들은 비단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비단과 가죽은 비싸고 귀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삼베나 모시로 만든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이 옷은 여름에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였으나 겨울 추위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문익점은 원의 사람들이 목화로 지은 옷을 입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목화씨를 고려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인인 정천익과 씨앗을 나누어 목면나무의 재배를 시험하였고 해마다 그 재배량을 늘려나갔습니다. 또한 실을 뽑고 베를 짜는 기술을 배워 나라 전체에 목면재배와 무명이 보급되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목화솜으로 만든 옷과 이불을 사용하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화로 짠 무명은 옷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무명은 삼베보다 옷감이 부드럽고 삼베를 만들 때보다 힘이 덜 들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는 목화 재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민들은 목화 재배에 참여하면서 고려 사람들의 의생활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화약의 제조로 변화된 생활 모습 알아보기〉

고려 말에는 왜구(일본해적)가 자주 쳐들어와 많은 백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곡식이나 물건을 빼앗아 갔고, 관청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훔쳐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훔쳐 갔습니다.

최무선은 왜구를 물리치려면 왜구의 침략 수단인 배를 부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화약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최무선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약과 무기를 만드는 관창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화포를 만들어 진포(군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최무선은 어떻게 화약을 만들게 되었을까?〉

당시 원의 간섭과 왜구의 침략 속에서 최무선은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곧 나라의 힘을 기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원에서 화약 제조 기술을 고려에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무선은 화약 개발을 위해 20여 년 동안 노력하였습니다.

최무선은 벽란도에서 화약을 다루던 원의 기술자를 만나 화약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조정에 건의하여 화통도감을 설치하였고 대장군포 등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1380년 왜구가 5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진포로 침입하자 최무선은 자신이 만든 특수 군함 80여 척과 신무기로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2016.



과학 기술로 발전하는 고려의 생활 모습 ☆

한국사

고려의 과학과 기술
- 문익점의 업적과 관련한 상상 만화 그리기 -

Before & After(활동1)

이름 :

문익점이 고려에 목화를 들여오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고
문익점이 고려에 목화를 들여온 후의 상황을 상상하여 만화로 나타내 봅시다.



〈고려에 목화가 들어오기 전〉



〈고려에 목화가 들어온 후〉

한국사

고려의 과학과 기술
- 최무선의 업적과 관련한 상상 만화 그리기 -

Before & After(활동1)

이름 :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하기 전 상황을 살펴보고
화포를 개발한 후의 상황을 상상하여 만화로 나타내 봅시다.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하기 전>



<최무선이 화포를 개발한 후>

! 과학 기술로 발전하는 고려의 생활 모습 ☆

한국사

고려의 과학과 기술
- 역할극으로 알아보는 고려시대 과학기술의 발달

역할극 표현하기(활동2)

이름 :

문익점이 목화를 가져온 과정과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게 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역할극으로 표현해 봅시다.

목화 - 문익점	화포 - 최무선
<p>등장인물: 나레이션, 문익점, 중국인1(원나라 사람), 고려인1, 중국인2, 고려인2</p> <p>나레이션: 원나라와의 전쟁 후 고려는 원나라로부터 간섭을 받게 되었고, 두 나라는 서로 왕래가 잦아졌다. 한번은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이상한 꽃을 발견하게 된다.</p> <p>문익점 : 여보시오, 이건 무슨 꽃이요?</p> <p>중국인1 : 아, 건 목화라는 건데, 꽃이 아니라 열매가 터진 거라 해~. 겨울에 이걸 옷감 속에 넣으면 엄청 따뜻하다 해~. 우리 사람 이걸로 옷감도 만들어 입는다 해~.</p> <p>문익점 : 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 백성들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군.</p> <p>나레이션 : 하지만 원나라는 귀한 목화씨를 다른 나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국경지대에서 철저히 검문을 실시했다.</p> <p>문익점 : 어떻게 하지? 이 씨를 숨겨야 할 텐데... 울지.(자신의 주머니에 목화씨를 숨긴다.)</p> <p>중국인2 : (이리저리 짐을 살펴보다가)오케이, 고려사람 통과라 해~!</p> <p>문익점 : 쉘쉘~</p> <p>나레이션 : 이렇게 해서 문익점은 목화씨를 무사히 고려로 가져올 수 있었고 목화의 재배와 면직물 생산을 널리 보급하여 백성들의 옷감이 삼베에서 무명으로 바뀌는데 널리 기여하였다.</p> <p>고려인1, 2 : 솜옷~ 만세! 솜이불~ 만세! 문익점~만세!</p>	<p>등장인물: 나레이션, 최무선, 중국인(원나라 사람), 고려장군, 고려병사, 고려 백성</p> <p>나레이션: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많아 백성들의 피해가 극심해 이들을 막을 방법을 고민하게 된 최무선. 원나라 사람에게 화약을 만들 기술을 배우려고 고군분투하게 된다.</p> <p>최무선 : 여보시오, 제발 부탁이니 화약 만드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시게.</p> <p>중국인 : (종이를 숨기며)보지마라해~저리가라 해~ 화약은 우리 중국사람 일급 비밀이라해~</p> <p>최무선 : (주먹을 불끈 쥐며)어떻게든 배워서 꼭 화약을 만들고 말겠어!</p> <p>나레이션 : 최무선은 원나라 사람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화약을 만드는데 중요한 기술을 얻게 되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화약과 화포를 만들게 된다.</p> <p>최무선 : (만세를 하며)야호! 드디어 화약과 화포를 완성했다. 이젠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어!</p> <p>고려장군 : (칼을 빼들며)왜구에게 화포를 쏘라~</p> <p>고려병사 : (적들이 쓰러지고 도망치자)우리가 승리했다! 화포만세! 최무선 만세!!</p> <p>나레이션 : 이렇게 해서 고려의 백성들은 더 이상 왜구의 침입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p> <p>고려백성(고려병사): 화포 만세! 최무선 만세! 고려 만만세!</p>



위 역할극을 참고하여 문익점이 목화를 가져온 과정과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게 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역할극으로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등장인물:



과학 기술로 발전하는 고려의 생활 모습 ☆

한국사

고려의 과학과 기술
- 감사장을 통해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

감사장 쓰기(정리)

이름 :

아래 감사장을 참고하여 문익점과 최무선 중 존경하는 위인 한 분을 선택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만의 감사장을 완성해 봅시다.

감 사 장

시대: 고 려
성명: 문익점

문익점 선생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와 우리나라에서
목화의 재배와 보급확대에 성공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백성들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7년 0월 0일

000 올림

감 사 장

시대:
성명:

년 월 일
올림



! 과학 기술로 발전하는 고려의 생활 모습 ☆

※문익점과 최무선에 관한 스토리텔링 자료

〈문익점과 목화씨〉

문익점이 목화를 들여오기 전에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 부자나 귀족들은 비단이나 명주로 만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추위를 조금은 견딜 수 있었지만 백성들은 얇디얇은 삼베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 문익점은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했어. 문익점은 1329년 강성현(지금의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어. 서른 살에 문과에 급제하여 1363년 원나라로 가는 사신 일행의 서장관(외교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도맡아 쓰는 직책이란단. 문장과 학식이 뛰어나 사람이 선발되었지)으로 뽑혀 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이듬해 문익점은 목화씨를 가지고 귀국했단다.

당시 붓두껍에 목화씨를 몰래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는 후대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받드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덧붙여진 이야기래. 《조선왕조실록》의 태조 7년 6월 13일자에는 “길가의 목민 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네. 붓통이 아니라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온 셈이지.

문익점은 고향으로 돌아와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씨를 심어 길렀단다. 문익점이 심은 씨는 다 죽었고 정천익이 심은 씨 중에서 딱 한 송이의 목화가 피었어. 그 한 송이에서 씨를 받아 다음번엔 여러 송이의 목화를 피우는데 성공했지. 3년 뒤에는 이웃 사람들에게도 씨를 나눠 줄 정도가 되었단다. 목화는 곧 전국으로 퍼져 나갔어. 그런데 목화에서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 일설에는 문익점의 손자 문래가 실 뽑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물레’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 그러나 (태조실록)에는 정천익이 원나라 승려 흥원을 자기 집에 데려와 정중하게 대접하면서 씨 빼는 기구와 실 뽑는 기구를 만드는 법, 옷감 짜는 법을 배워 집의 여자 종에게 가르쳐서 한 필의 무명을 짜게 했단다. “이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어 모든 백성들이 목화로 만든 옷을 입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문익점이 준 것입니다.” (태조실록)은 이렇게 문익점을 칭찬하고 있어. 그가 가져온 목화씨는 우리 의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안겨 주었어. 문익점 이전에 사신으로 갔던 수많은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문익점처럼 목화씨를 가져와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힐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지. 백성을 생각하는 문익점의 마음은 너무도 귀하다고 생각되는구나.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

고려 후기는 왜구의 침략으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어. 하지만 고려 왕조의 지배층은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기만 하고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지.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화약을 만든 이가 있었어. 바로 고려 시대의 과학자이자 무인이었던 최무선이지. 최무선은 일찍이 화약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무기에 사용할 것을 생각했지. 하지만 당시 고려에는 화약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 원은 발달된 화약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만드는 법을 고려에 알려주지 않았단다. 그래서 최무선은 중국에서 오는 상인이 있으면 곧장 달려가서 화약 만드는 법을 물어보곤 했어.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최무선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 최무선은 절망하지 않고 혼자 실험과 연구를 계속했어. 최무선은 실험을 거듭한 끝에 화약 만들기에 성공을 했어. 20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였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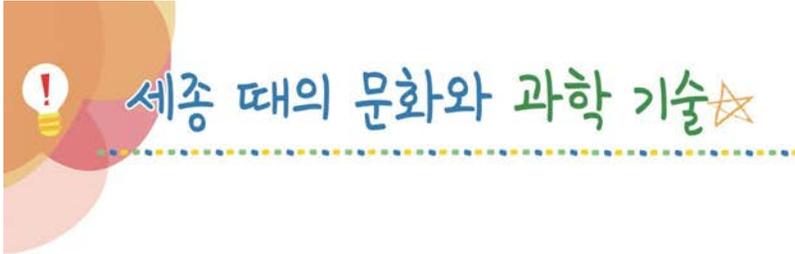
그 후, 최무선은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 화약과 화통을 만드는 관청인 화통도감을 설치하자고 말이야. 최무선은 화통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단다. 화통은 ‘화포, 총통’이라고도 해. 쇠로 만든 기다란 원통인데 뒤쪽에 화약을 다져 넣고 앞쪽에는 쇠포탄이나 쇠화살을 넣은 다음 화약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면 그 힘으로 쇠포탄이나 쇠화살이 날아가는 거야.

〈왜구를 섬멸한 최무선〉

당시 고려의 골칫거리는 왜구였어. 왜구는 일본의 해적이야. 고려 말 1350년경부터 왜구의 침입이 부쩍 심해졌어. 이들은 수십 척, 수백 척의 배로 남해안 바닷가의 마을에 나타났단다. 처음에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식량만 빼앗아갔지만 차츰 대담해져서 바닷가 마을뿐 아니라 육지 깊숙이 지리산 근처까지 들어와 사람을 마구 죽이고 식량과 물건을 빼앗았어. 왜구는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단다. 최무선이 일생을 바쳐 발명한 화약 무기는 왜구를 소탕하는데 맹활약을 했어. 1380년 최무선의 화약무기로 무장한 고려의 함대는 진포(지금의 금강입구)에 침입한 왜구의 배 500척을 불사르고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어. 1389년에는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공격하여 잡혀있던 고려인 10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지. 그 뒤로부터는 왜구의 침입이 눈에 띄게 줄었단다.

6 차 시

세종 때의 문화와 과학기술



수업 목표 - 조선 초기의 문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알아본다.

생각 열기 - 조선 초기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에 집현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봅시다.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혼민정음에 이어 측우기, 앙부일구와 자격루, 혼천의, 간의, 농사법을 소개한 『농사직설』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발명품들과 책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교수 학습 과정

학 습 준비물	세종과 장영실 관련 동영상, 뇌구조 학습지, 땅따먹기 학습지, 다섯고개 학습지
도 입	<p><세종대왕 한글을 만들다> 동영상(5분 1초)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Zs3ZzfGadoU (5분 1초)</p> <p><생각해 볼거리> - 혼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나요? - 세종이 혼민정음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반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p> <p><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동영상(5분 1초)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watch?v=1Z19a8JmFEM</p>
전 개	<p><활동1 : 세종의 뇌구조 그리기> - 세종이 이룬 놀라운 업적과 성취 과정 속의 고민 등을 살펴보고 뇌구조 그리기 (학습지 참조)</p> <p><활동2 : 땅따먹기와 다섯고개 중 택1> - 조선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땅따먹기 게임하기 - 세종 때의 발명품 중 한 개를 골라 다섯고개 놀이하기</p>
정 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기>

참고자료(그림, 문헌, 사진, 도표, 지도)

※조선의 문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 알아보기

〈한글의 창제〉

조선은 세종 때 문화와 과학 기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세종은 젊은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현전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함께하여 유교와 관련된 다양한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제작하고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만들어 반포하였으며, 그 의미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훈민정음은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배우기 쉽고 거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독창적인 문자입니다. 또한 훈민정음은 혀의 위치, 입술과 목구멍의 모양, 하늘·땅·사람의 모양 등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적을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썼습니다. 당시 양반은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한자를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은 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관리들에게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의 장려와 과학기술의 발전〉

조선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업과 관련된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 정리한 『농사직설』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농사법을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조선의 현실에 잘 맞는 농사법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과학 기술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세종은 장영실과 몇몇 신하들에게 혼천의, 간의, 앙부일구, 자격루 등과 같은 과학 기구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인 측우기를 발명하여 각 지역의 강우량을 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 기술의 발명으로 일상생활에서 시각은 물론 절기(계절을 구분하기 위해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것)와 계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농사짓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2016.

※세종의 뇌구조 그리기

-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조선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운 세종의 업적을 알아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겪으셨을 고민 등을 상상하여 세종의 뇌구조를 만들어 봅시다. 영역의 크기가 클수록 고민이나 업적이 큰 것이고 영역이 작을수록 고민이나 업적이 작을 것입니다. 자신이 세종이라 상상하고 활동에 임하면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세종 때의 문화와 과학 기술 ☆

※ 땅따먹기 게임

- 활동유형: 짝활동 또는 토너먼트
-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동전

세종의 업적과 조선 시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점검해보기 위한 활동으로 땅따먹기 게임을 준비하였습니다.

- 활동방법

- 1) 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 2) 이긴 사람의 동전을 원안에 놓고 가볍게 튕깁니다.
- 3) 동전이 놓인 곳에 있는 퀴즈를 이긴 사람이 크게 읽고 답을 말합니다.
※ 동전이 가운데 놓이게 되면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있는 걸 선택하게 하고 정가운데 놓이면 다시 한 번 동전을 튕길 기회를 줍니다.
- 4) 답을 말하면 해당 영역의 땅을 갖게 되고 자신만의 표시(별, 동그라미 등)를 합니다.
- 5) 오답을 말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로 기회가 넘어가고 2)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6) 동전이 상대방의 땅의 경계에 닿으면 자동으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 7) 네모칸 안에 색칠된 곳의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히면 한번 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학 문화재 다섯고개 놀이

- 활동유형: 짝활동/그룹활동/전체활동

-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사진(과학문화재)

조선 시대의 과학 문화재 중 가장 인상 깊은 문화재를 한 가지 선택해서 친구들끼리 맞춰보는 활동입니다. 그림힌트와 문장힌트를 적절히 섞어가며 문제의 난이도를 잘 조절하는 노력이 활동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 참여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활동방법

- 1) 조선 시대의 과학 문화재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 2) 그 문화재와 관련된 힌트를 5가지 생각합니다.
- 3) 배점이 높을수록 힌트의 난이도 역시 어려워집니다.
ex) 1번(100점): 추상적인 힌트.....5번(20점): 구체적인 힌트
- 4) 1번 그림힌트는 과학문화재의 일부를 그리거나 만화 퀴즈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5) 짝끼리 활동 하거나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혹은 한명이 나와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를 내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 6)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며 최종 우승자는 어떻게 정답을 추측할 수 있었는지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한국사	2. 조선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 세종의 뇌구조 그리기	학년	반
		이름 :	





세종 때의 문화와 과학 기술 ☆

땅따먹기 게임(조선의 과학 기술 탐구하기)

〈학생용〉



세종 때에 만들어진 동전의 이름은?

혼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의 위치,
입술과 ○○○의 모양,
하늘 □○○□사람의
모양을 본 떠 만들



4군 6진은 세종 때에
○○과 맞서 싸워서
오늘날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것의 이름은?



조선의 과학자인
이 분의 이름은?



이것의 이름은?

혼민정음이 없던
시대에는 어떤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무엇을 할 때 쓰는
도구인가요?



충신, 효자, 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이 책의 이름은?



혼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은?



이것의 쓰임새는?

조선의 현실에 잘 맞는
농사법이 자세하게 소개
되어 있고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 정리한 이
책의 이름은?



집현전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누구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가?

조선 시대
과학 기술의 발명은
백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1) 동전을 퓌긴 후 동전이 멈춘 곳의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합니다.
- 2) 알맞은 말을 하면 그곳은 자기 땅이 됩니다. (○, △을 이용해 자기땅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 3) 제한 시간(10분) 내에 더 많은 곳을 자기 땅으로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동전 놓는 자리〉



땅따먹기 게임(조선의 과학 기술 탐구하기)

〈교사용〉

 <p>세종 때에 만들어진 동전의 이름은? (조선통보)</p>	<p>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혀의 위치, 입술과 목구멍의 모양, 하늘 □ 땅 □ 사람의 모양을 본 떠 만들</p>	 <p>4군 6진은 세종 때에 어진과 맞서 싸워서 오늘날의 영토를 확보하였다.</p>	<p>이것의 이름은? (간의)</p>
 <p>조선의 과학자인 이 분의 이름은? (장영실)</p>	 <p>이것의 이름은? (자격부)</p>	<p>훈민정음이 없던 시대에는 어떤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한자)</p>	<p>무엇을 할 때 쓰는 도구인가요? (측우기/강우량 측정)</p>
 <p>충신, 효자, 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이 책의 이름은? (삼강행실도)</p>	 <p>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은? (한자를 모르는 일반백성들의 불편 해소)</p>	 <p>이것의 쓰임새는? (태양의 움직임 변화를 측정하여 시간을 측정)</p>	<p>조선의 현실에 잘 맞는 농사법이 자세하게 소개 되어 있고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 정리한 이 책의 이름은? (농사직설)</p>
 <p>집현전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학문연구 및 사서편찬)</p>	 <p>누구일까요? (세종대왕)</p>	<p>이것은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가? (혼천의 / 별자리의 위치 측정)</p>	<p>조선 시대 과학 기술의 발명은 백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시각, 절기, 계절등을 구분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줌)</p>

- 1) 동전을 툇긴 후 동전이 멈춘 곳의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한다.
- 2) 정답을 맞추면 그곳은 자기 땅이 됩니다. (○, △을 이용해 자기땅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 3) 제한 시간(10분) 내에 더 많은 곳을 자기 땅으로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동전 놓는 자리〉





세종 때의 문화와 과학 기술☆

내가 선택한 과학문화재 다섯고개 놀이하기 ♪

Q. 1 100점

(그림힌트)
그림의 일부나 확대한 모습을 그립니다.

Q. 2 80점 (문장힌트) _____

Q. 3 60점 (문장힌트) _____

Q. 4 40점 (문장힌트) _____

Q. 5 20점 (문장힌트) _____

정답>>

※ 자신이 낸 문제의 정답은 가려두고 모둠원끼리 돌아가며 문제를 내고 맞추는 활동을 합니다.
정답이 공개되더라도 문제를 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내가 선택한 과학문화재 다섯고개 놀이하기 ♪ <예>

Q. 1 100점



Q. 2 80점 (문장힌트) 세계 최초 발명!!(서양보다 약 200년 앞서서 발명) _____

Q. 3 60점 (문장힌트)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 _____

Q. 4 40점 (문장힌트) 조선 세종 때 만든 과학 기구 _____

Q. 5 20점 (문장힌트) 비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 _____

정답>>

측우기(a rain gauge)

※ 자신이 낸 문제의 정답은 가려두고 모둠원끼리 돌아가며 문제를 내고 맞추는 활동을 합니다.
정답이 공개되더라도 문제를 끝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7차시 판소리에 울고 웃다



수업 목표 -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

생각 열기 - 조선 후기 시대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배경지식으로 활용하여 경제생활과 신분 질서의 변화 이후 발달한 서민 문화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특히, 달라진 서민생활을 바탕으로 등장한 풍속화, 민화, 한글소설, 판소리, 탈놀이 등을 통해 서민 문화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교수 학습 과정

학 습 준비물	탈춤사진, 조선 후기 서민 문화 분류카드, 가위, 포스트잇, 필기도구 등
도 입	<p><동기유발>-2가지 중 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간포착 놀이!! <p>잠깐 동안 제시된 판소리나 탈춤 사진의 모습을 기억하여 친구들과 함께 그리면서 판소리와 탈춤의 특징을 알아보는 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나 탈춤과 관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생각 발표하기 <p>하회 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사이트(www.hahoemask.co.kr) / 판소리 사이트(pansori.gen.go.kr) 또는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116_00293</p> <p>출처: EBS 우리 가락 감상하기 - 춘향가 중 여사출두야</p>
전 개	<p><활동1> -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종류를 사진과 함께 익히기</p> <p><활동2> - 메모리게임</p> <p><활동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든 나누어 보아요 - 일정한 기준을 다양하게 정해서 분류해 보는 놀이/예-조선 전기와 후기의 문화 분류 <p>※놀이 방법은 참고자료 참조</p> <p><조선후기 서민 문화의 특징 찾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든 나누어 보아요 -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분류해 보는 놀이(예-조선 전기와 후기의 문화 분류)
정 리	<p>『조선 후기에 가면』 게임</p> <p>※놀이 방법은 참고자료 참조</p>

참고자료(그림, 문헌, 사진, 도표, 지도)

〈서민 문화〉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 부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들이 문화, 예술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이전까지의 양반 중심의 그림, 시조, 소설 등의 예술 활동이 조선 후기에는 서민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문학이나 미술 작품에는 서민의 생활상을 담은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서민 문화의 특징은 중인층과 서민층이 주체가 되어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며 풍부하고 적나라한 감정을 표현한 점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국경도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2016.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모습과 생활용품들의 특징〉

조선 후기에는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서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이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림	작품명 (종류)	작가	특징
	씨름 (풍속화)	김홍도	당시에 씨름이 유행하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씨름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인도 (풍속화)	신윤복	당시의 미인은 동그랗고 작은 얼굴과 가느다란 눈썹, 쌍꺼풀이 없이 긴 눈을 가진 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조도 (민화)	작자 미상	꽃과 새가 함께 있는 그림으로 암수 한 쌍의 새는 화목한 부부가 되고 싶은 바람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민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하였으며 서민들의 소망을 표현하고 집안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홍길동전 (한글소설)	허균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 탐관오리에 대한 처벌, 새로운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당시 한글이 보급되어 서민들도 소설을 즐길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청가 (판소리)	작자 미상	하나의 이야기를 노래와 설명, 몸짓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소리꾼이 즉흥적으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고 관중이 추임새를 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회별신굿 (탈놀이)	작자 미상	일종의 연극으로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후 사람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서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주로 양반이나 승려를 풍자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판소리에 울고 웃다 ☆

그림	이름	특징
	청화백자	흰 바탕에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주로 향아리, 술병, 접시, 필통 등 실용적인 것이 많습니다. 조선 초부터 감상용 자기로서 고급 도자기에 속했던 청화백자는 조선 말기에는 왕실 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한 일부 민간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옹기	곡식인 장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옹기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 옹기의 안과 밖의 공기를 순환시켜 곡식이나 장류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전통 생활용품입니다.
	나전칠기	옷칠을 한 나무 표면을 전복, 소라 등의 껍데기로 장식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목공예품입니다.
	떡살	떡을 만든 후 그 위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를 찍을 때 사용한 기구입니다. 보통은 단단한 박달나무나 참나무로 만드는데 사기나 백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각보	쓰다 남은 천 조각을 이어 만든 보자기로 한국 고유의 민속 문화입니다. 궁중보다는 주로 서민들 사이에서 쓰였던 것으로 천이 귀하던 시절에 옷이나 이불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을 모아 물건을 싸거나 밥상을 덮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소반	소반은 식기를 받치고 옮기는 기능을 했던쟁반이면서 방안에서는 작은 밥상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서양과 달리 침실과 거실, 식당이 분리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당한 편리한 생활도구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교사용지도서』, 교육부 2015.

※순간 포착 놀이



※놀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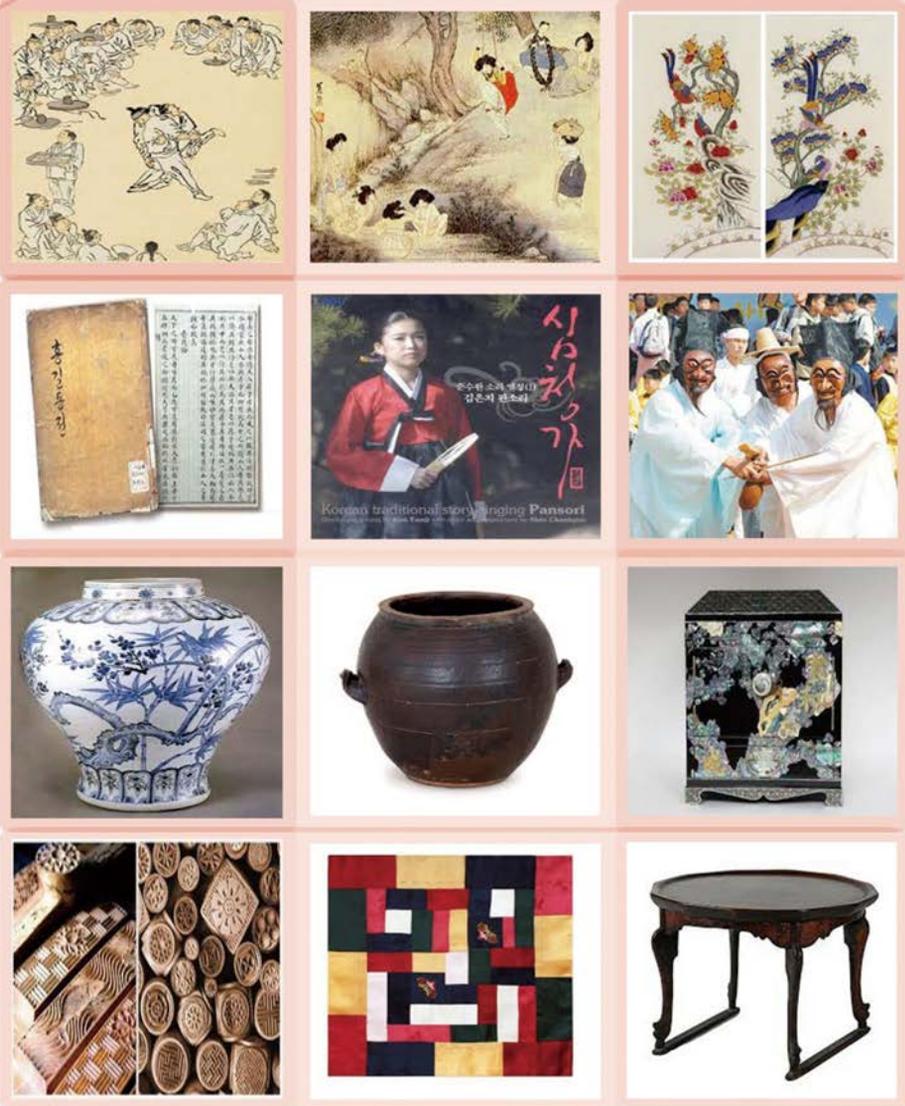
- 준비물: A4용지, 필기도구, 위 사진 2개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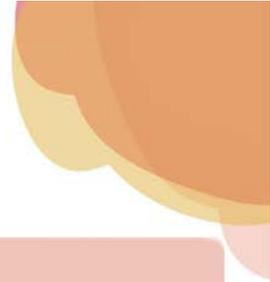
1. 3~4명으로 모둠을 구성합니다.
2. 교사는 위 사진 중 1개를 골라 학생들에게 10초간 보여줍니다.
3. 학생들은 모둠별로 제공된 A4용지에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4. 이번에는 다시 한번 5초간 보여줍니다.
5. 학생들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특징을 잘 살려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6. 그림을 그리고 난 후 이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장면인지 추측해 보며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발표하도록 합니다.
7. 순간 포착을 통해 그림을 잘 묘사하고 발표를 잘 한 팀이 승리합니다.



판소리에 울고 웃다 ☆

※조선 후기 서민문화 분류카드('메모리게임', '무엇이든 나누어 보아요' 활용)





김홍도의 씨름	신윤복의 미인도	작자 미상 화조도
허균 홍길동전	심청가	하회별신굿
청화백자	옹기	나전칠기
떡살	조각보	소반



판소리에 울고 웃다 ☆

※ 메모리게임 놀이방법(카드의 글자가 안비치도록 뒷면에 어두운 색 종이 붙여주기)

- 준비물: 조선 후기 서민문화 분류카드 24장(12장은 사진, 12장은 제목), 가위

1. 모둠별 3~4명으로 구성합니다.
2. 카드를 모아서 무작위로 섞은 후 뒤집어서 사각형 모양으로 바닥에 내려 놓습니다.
3. 모듬별로 한 줄로 선 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팀 대표가 먼저 나와서 카드 2장을 동시에 뒤집습니다. 사진과 제목이 서로 일치하면 해당 카드를 가져가게 되고 동시에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보너스를 갖게 됩니다.
4. 나중에 자신의 차례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다른 조 학생이 뒤집을 때에도 어느 위치에 어느 카드가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매칭되는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가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팀이 승리합니다.
6. 만약 동점인 경우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한 판 더 실시합니다.

※ '무엇이든 나누어 보아요' 놀이방법(짝활동)

- 준비물: 포스트잇, 필기도구

1. '조선 후기 서민문화'라는 주제로 두 사람이 포스트잇에 기억나는 사물이나 인물의 이름을 각각 4개씩 씁니다.
2.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이긴 사람 먼저 자신이 정한 기준을 말하고 기준에 맞게 사물이나 인물을 분류합니다.
ex)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나무인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등
3. 순서대로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기를 반복합니다.
4. 더 이상 분류 기준을 말하지 못하거나 제한 시간(10초)을 초과하면 지게 됩니다.
5. 우수한 학생에게는 작은 상품을 수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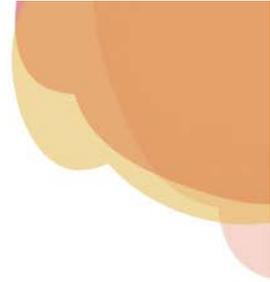
☞ TIP: 조선 후기와 전기, 다른 시대(선사 시대, 삼국 시대, 고려, 발해 등)의 사진과 혼합해서 시대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 '조선 후기에 가면' 놀이방법

- 준비물: 친구들의 하는 말을 잘 기억하겠다는 강인한 의지

1. 6~7명이 둘러앉은 후 가위바위보로 순서와 진행방향을 정합니다.
2. 놀이가 시작되면 4분의 4박자에 맞추어 '조선 후~ 기에 가면 ○○○도 있고'로 박자를 맞추어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서민문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3. 타이밍을 놓치거나 잘못 말하는 경우, 앞의 친구들이 말한 단어를 빠뜨린 경우, 중복된 단어를 말하는 경우에 탈락하며 탈락한 친구는 한쪽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옵니다.
4.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합니다.

☞ TIP: <https://www.youtube.com/watch?v=4BucroXn1ro> 유튜브 동영상 속 「학교에 가면」의 리듬은 그대로 살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으로 가사만 변경



3. 전근대(중등용)

1 차시 단군, 고조선을 세우다



수업 목표

- 청동기 시대 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 단군신화 속에 담긴 고조선 건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찾아본다.
- 사료를 통해 고조선의 생활모습에 대해 알아본다.

생각 열기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최초 국가는 어떤 나라였는지 조사해 봅시다.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건국신화를 찾아보고 단군신화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건국 신화는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신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고인돌 유적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거석문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 교수 학습 과정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과 단군신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단군왕검이 만주와 한반도 서북부 지방에 흩어져있던 여러 부족을 하나로 모아 건국하였습니다. 고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단군신화'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거나,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등 신화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이 세워질 당시 사회모습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사람으로 변한 곰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환웅 부족이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곰을 숭배하는 토착세력과 연합하여 고조선을 세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데리고 왔다는 것에서 고조선이 계급사회라는 것과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농경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왕검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뜻하는 단군과 정치적 지배자인 왕검이 합쳐진 말로 고조선은 제정일치 즉, 정치 지도자가 제사도 담당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발전과 위만 조선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한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요령과 한반도 북부를 잇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등 그 세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2세기 무렵 위만이라는 사람이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오면서 고조선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위만은 세력을 키운 뒤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위만의 고조선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세력을 통합하여 영토를 늘려갔으며 한반도 남부 지방의 여러 나라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통해 부강해졌습니다.

고조선의 멸망

고조선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자 불안을 느낀 한나라는 고조선을 쳐들어 왔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우거왕은 한나라의 침략을 1년 동안이나 막아내며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끈질긴 공격을 끝까지 막지 못해 결국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했습니다. 그 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옛 땅 일부에 군현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끈질긴 공격을 펼치자 한사군 세력은 물러났습니다.

! 단군, 고조선을 세우다 ☆

참고 자료

※단군 신화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열었다. 이 때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기를 빌었고 동굴 속에서 시험을 견딘 결과 곰만 여자로 변하였다. 여자가 된 곰의 부탁으로 환웅이 잠시 남자로 변하여 둘은 부부가 되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은 자라서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정리한 역사서로 정사 뿐만 아니라 전설, 신화 등 이전 시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다수 실려 있어 역사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활 풍속, 문화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단군신화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고조선의 법

고조선에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그것은 대게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데,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전을 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용서를 받아 보통백성이 되어도 여전히 부끄럽게 여겨 혼인을 하여도 짝을 구할 수 없다. 이리하여 백성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 대문을 닫고 하는 일이 없어졌다.

『한서』

고조선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개조의 법이 있었는데 그 중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3개로 중국 역사책 《한서》에 남아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고조선에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며 노동력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의 보호와 노비의 존재를 통해 고조선이 신분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고조선의 세력 범위》

현재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고조선의 영토를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으나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동검, 미송리형 토기의 출토 지역을 근거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단군, 고조선을 세우다 ☆

활동 1

다음은 단군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모습입니다. 해당 내용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을 아래 단군신화에서 찾아 번호를 써 넣으세요.

- 가) 제사와 정치가 합쳐진 제정일치 사회 :
- 나) 농경사회:
- 다) 홍익인간:
- 라) 토테미즘:

단군신화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①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②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열었다. 이 때 ③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기를 빌었고 동굴 속에서 시험을 견뎌 결과 곰만 여자로 변화였다. 여자가 된 곰의 부탁으로 환웅이 잠시 남자로 변하여 둘은 부부가 되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④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은 자라서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삼국유사》

활동 2 다음 중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추측할 수 있는 유물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1)	(2)	(3)	(4)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주먹도끼》	《탁자식 고인돌》

활동 3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 | | |
|-----|---|
| (가) | 고조선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자 불안을 느낀 한나라는 고조선을 쳐들어 왔습니다. 한나라의 끈질긴 공격에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했습니다. |
| (나) | 위만의 고조선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세력을 통합하여 영토를 늘려갔으며 한반도 남부 지방의 여러 나라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통해 부강해졌습니다. |
| (다) | 위만이라는 사람이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위만은 세력을 키운 뒤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
| (라) |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요령과 한반도 북부를 잇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등 그 세력을 발전시켰습니다. |



! 단군, 고조선을 세우다 ☆

활동 1

다음은 단군신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의 사회모습입니다. 해당 내용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을 아래 단군신화에서 찾아 번호를 써 넣으세요.

- 가) 제사와 정치가 합쳐진 제정일치 사회 :
- 나) 농경사회:
- 다) 홍익인간:
- 라) 토테미즘:

단군신화

하늘에서 환인의 아들 환웅이 ①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②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신시를 열었다. 이 때 ③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이 되기를 빌었고 동굴 속에서 시험을 견뎌 결과 곰만 여자로 변하였다. 여자가 된 곰의 부탁으로 환웅이 잠시 남자로 변하여 둘은 부부가 되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가 ④단군왕검이다. 단군왕검은 자라서 아사달에 도읍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삼국유사》

정답

- 가) 제사와 정치가 합쳐진 제정일치 사회 : ④
- 나) 농경사회: ②
- 다) 홍익인간: ①
- 라) 토테미즘: ③

활동 2 다음 중 고조선의 세력범위를 추측할 수 있는 유물이 아닌 것을 찾으세요.

(1) 	(2) 	(3) 	(4)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주먹도끼》	《탁자식 고인돌》

정답: (3)

활동 3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가)	고조선이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자 불안을 느낀 한나라는 고조선을 쳐들어 왔습니다. 한나라의 끈질긴 공격에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했습니다.
(나)	위만의 고조선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세력을 통합하여 영토를 늘려갔으며 한반도 남부 지방의 여러 나라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통해 부강해졌습니다.
(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위만은 세력을 키운 뒤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라)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요령과 한반도 북부를 잇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등 그 세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정답: **라** → **다** → **나** → **가**

2 차 시

다양한 삼국의 문화가 발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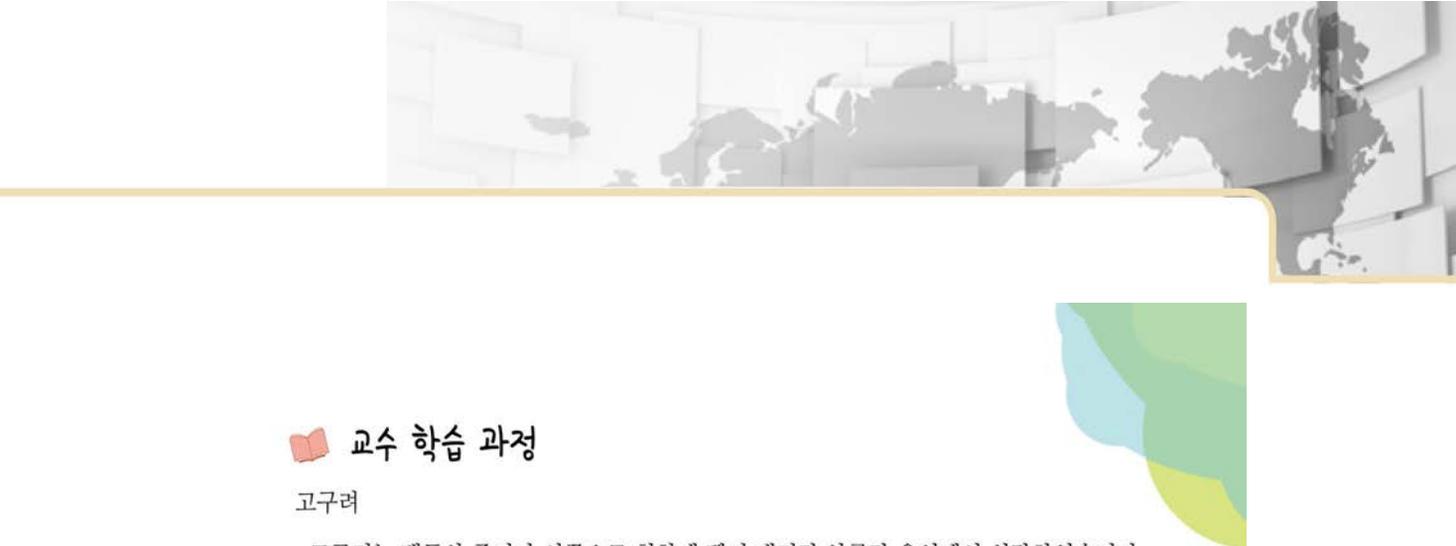


 수업 목표

-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 가야의 철기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양식을 비교해 본다.

 생각 열기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고대 왕국에 대해 조사해 봅시다.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고대 국가는 어떤 무덤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봅시다.
- 왜 고대 사람들은 무덤에 그림을 그리거나 껌문거리들을 함께 묻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교수 학습 과정

고구려

고구려는 백두산 줄기가 서쪽으로 힘차게 뻗어 내려간 압록강 유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고구려는 평야 지대가 적은 거친 자연환경 속에서 주변나라와 싸우면서 용맹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고구려는 군사력이 뛰어나고 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 체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뛰어난 기마전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은 고구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백제

백제는 한반도의 중심인 한강 유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한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와 바닷길과 육지로 향하는 편리한 교통은 백제가 중국 세력과 경쟁하면서도 풍요롭고 국제적인 국가로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백제는 주변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하였는데 특히 중국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다시 일본으로 전해주어 일본 문화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라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 자락에 치우쳐 있어 다른 나라와 문물을 교류할 기회가 적었고 가야와 왜의 공격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삼국 중 가장 발전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토착 문화의 기반 위에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감으로써 소박하지만 저력 있는 문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라는 6세기에 들어서며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고 결국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가야

가야 연맹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연맹을 유지하였습니다. 기름진 평야를 바탕으로 농업이 크게 발달하였으며 철을 활발히 생산하였습니다. 가야 사람들은 철을 일정한 크기의 덩이쇠로 만들어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가야지역의 덩이쇠는 일본에서도 많이 발견되어 가야와 일본사이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의 불교문화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며 불교를 받아들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전파하여 불교문화가 크게 발전합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많은 절과 탑이 세워지고 불상이 제작되었습니다.

! 다양한 삼국의 문화가 발전하다 ☆

참고 자료

◎ 고구려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 고구려 고분 벽화



장군총



안악3호분 벽화
-무덤의 주인



무용총 벽화
-수렵도



강서대묘 벽화
-사신도

고구려는 초기 크게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만든 돌무지무덤을 주로 만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장군총이 있습니다. 중기와 후기에는 돌로 방을 만든 굴식돌방무덤을 주로 만들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돌방의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벽화를 남겼습니다.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벽화의 내용을 통해 고구려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의 내용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무덤 주인의 생전 생활모습을 주로 그렸습니다. 이후 불교가 들어오면서 생전 생활 모습뿐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어서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별과 달, 해를 볼 수 있고 동서남북 방향을 지키는 사신도(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의 문화



칠지도
백제의 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이 왜왕에게 주었다고 전해지는 칠지도는 백제가 왜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금제관장식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금제관장식입니다. 웅진백제의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백제금동대향로
사비백제의 대표 유물입니다. 백제인들의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는 도읍을 두 번 옮기는데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를 거치며 각각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 도굴되지 않은 무덤,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



황남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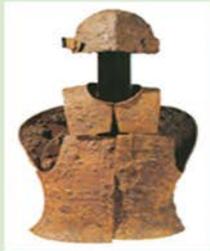
돌무지덧널무덤 구조



황남대총북분 출토 금관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은 돌무지덧널무덤입니다. 돌무지덧널무덤은 나무로 덧널을 만들고 그 안에 널과 껌문거리 등을 넣은 다음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신라의 무덤은 도굴 등 피해를 입지 않고 많은 유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 가야의 철기 문화



철제 갑옷과 투구



덩이쇠

가야는 철을 덩어리로 만든 덩이 쇠를 주변 여러 나라에 수출했습니다.

가야는 변한의 옛 땅인 낙동강 유역에서 풍부한 철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가야는 질 좋은 철을 매개로 주변 여러 나라와 교역하며 발전하였으며 갑옷, 투구, 덩이쇠 등 철로 된 유물을 많이 남겼습니다.

! 다양한 삼국의 문화가 발전하다 ☆

◎ 삼국의 불교 문화



연가칠년명금동불입상(고구려)



정림사지오층석탑(백제)



황룡사지 전경(신라)

삼국은 중국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삼국시대 불교는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불교 문화재를 남겼습니다.

◎ 삼국의 고분 관련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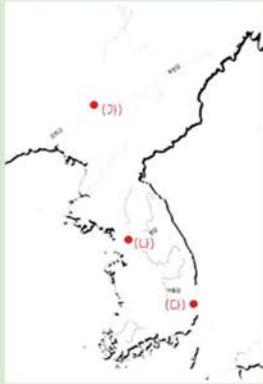
시대를 담은 그림 안악3호고분 벽화
<https://www.youtube.com/watch?v=8X7qRBdZx3s>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무령왕릉 - 비밀의 열쇠
<https://www.youtube.com/watch?v=cif-S54rSa8>
출처: EBS 문화유산코리아

천마총, 1500년만의 외출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30422_A0099
출처: EBS 클립영상



활동 1) 다음 지도에 표시된 곳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첫 도읍지입니다. 각각 어떤 나라의 도읍지인지 써보세요.



(가):

(나):

(다):

활동 2) 다음은 고구려 수산리고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벽화 속의 그림을 보면 치마를 입은 주인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뒤에 양산을 받쳐 주는 사람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 다양한 삼국의 문화가 발전하다 ☆

활동 1) 다음 지도에 표시된 곳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첫 도읍지입니다. 각각 어떤 나라의 도읍지인지 써보세요.



(가):

(나):

(다):

정답

(가): 고구려(졸본)

(나): 백제(위례성)

(다): 신라(금성)

활동 2) 다음은 고구려 수산리고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벽화 속의 그림을 보면 치마를 입은 주인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뒤에 양산을 받쳐 주는 사람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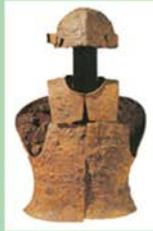
사람들의 크기를 다르게 그려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활동 3)

다음 유물 중 고구려의 것은 '고' 백제의 것은 '백' 신라의 것은 '신' 가야의 것은 '가' 라고 쓰세요.



(백)



(가)



(고)



(고)



(신)



(백)



 수업 목표

- 통일 후 신라가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 피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통일신라의 불교미술에 담겨있는 신라인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 통일신라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해 신라인들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예술성에 대해 살펴본다.

 생각 열기

-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재 중 과학적으로도 우수한 건축물을 조사해봅시다.
-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조사해봅시다.



교수 학습 과정

신라의 삼국 통일

신라는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있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발전이 늦었고 전성기도 가장 늦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6세기 이후 신라는 왕을 중심으로 힘을 키우고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신라는 국가 체제를 정비한 뒤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가야세력을 정복 하였으며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고구려와 전쟁을 하여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중국과 직접 해상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신라는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백제의 공격에 위협을 느낀 신라는 고구려와의 연합하려 했지만 고구려의 거절로 실패하자 당나라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립니다. 이후 당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자 신라는 전쟁을 통해 당을 물리치고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다

신라는 통일 이후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와 유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치 조직과 지방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발전시켰습니다.

계속 되던 전쟁이 끝나자 경제도 나아졌습니다. 넓어진 국토에서 나오는 세금을 전쟁이 아닌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일을 이룬 신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당과 다시 교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많은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의 문화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신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에 고구려와 백제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여 민족 문화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통일 직후에 만든 동궁과 월지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 문화가 크게 발전했는데 신라 사람들은 신라를 부처님의 나라로 여겨 많은 절과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불국사와 석굴암이라는 걸작을 마련하게 됩니다.

!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피다 ☆

참고 자료

◎ 동궁과 월지 (안압지)



《동궁과 월지 전경》



《임해전(복원)》

《삼국사기》에는 '문무왕 14년(674)에 큰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에 3개의 섬과 못의 북·동쪽으로 12 봉우리의 산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문무왕 19년 8월에 동궁을 짓고 비로소 안팎 여러 문의 이름을 지어 달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문무왕 때 동궁이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궁과 월지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의 여유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동궁과 월지에서는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귀족들의 생활모습을 짐작하게 합니다.

◎ 불국사 석굴암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석굴암 본존불》

불국사의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으로 신라인이 살고 있는 땅을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세운 절입니다. 백운교와 청운교, 석가탑과 다보탑 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불교적 이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굴암은 300여 개의 돌을 나무처럼 짜 맞추어 만든 인공 석굴 사원입니다. 석굴암의 본존불상은 부처의 위엄과 경건함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뛰어난 예술성과 과학기술이 녹아 있는 불교 문화의 최고 걸작이라 할 수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성덕대왕신종



《성덕대왕신종》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성덕대왕신종은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 혜공왕이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이며 통일신라 예술이 각 분야에 걸쳐 전성기를 이룰 때 만들어졌습니다. 뛰어난 균형미를 지녀 안정감이 있으며 종을 장식한 비천상 무늬는 매우 화려하고 세련되며 정교하여 이후 만들어진 종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 석굴암 불국사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Uyb2Ffk31w>

출처: EBS 문화유산코리아

!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피다 ☆

활동 1)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을 모두 조사해 써보세요 (2016년 현재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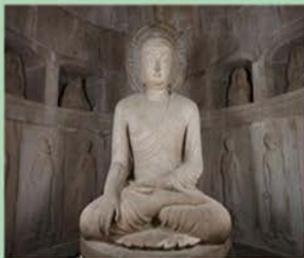
활동 2)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친구와 함께 경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친구에게 다음 문화재에 대한 소개를 해보세요.)



〈동궁과 월지〉



〈불국사 삼층석탑〉



〈석굴암〉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피다 ☆

활동 1)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을 모두 조사해 써보세요 (2016년 현재 12개)

정답

해인사 장경판전 (1995)
종묘 (1995)
석굴암과 불국사 (1995)
창덕궁 (1997)
화성 (1997)
경주 역사 지구 (2000)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2007)
조선 왕릉 (2009)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남한산성 (2014)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활동 2)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친구와 함께 경주로 여행을 왔습니다. 친구에게 다음 문화재에 대한 소개를 해보세요.)



〈동궁과 월지〉

〈동궁과 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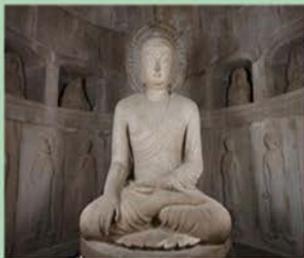
경주 동궁과 월지는 문무왕 때 지어진 신라의 별궁터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문무왕 13년에 지어진 길로 추정돼요. 동궁과 월지에서는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어 당시 신라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어요.



〈불국사 삼층석탑〉

〈불국사 삼층석탑〉

불국사 삼층석탑은 석가탑, 무영탑이라고도 불리고 통일 신라 석탑의 완벽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불국사 삼층석탑을 해체·보수하는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어요.



〈석굴암〉

〈석굴암〉

석굴암은 300여 개의 돌을 나무처럼 짜맞춰서 만든 인공 석굴 사원이에요. 석굴암의 본존불상은 부처의 위엄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4 차 시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다(고려)



 수업 목표

- 고려의 문화 화려하고 귀족적인 성격을 띄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고려의 다양한 불교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자.
- 고려청자의 우수함에 대해 알아보자.

 생각 열기

-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중세 문화는 어떠했는지 조사해봅시다.
-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언제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어있는지 알아봅시다.
-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재 중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독창적인 문화재를 소개해 봅시다.
- 다른 나라가 약탈해간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교수 학습 과정

국제적 감각의 귀족 문화

우리는 흔히 고려 문화재를 두고 귀족적이고 화려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려 문화재의 상당수가 왕실이나 귀족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예술 작품도 적지 않은데 이는 지배층이 문화를 감상하는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고려는 외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성강 유역의 국제무역항 벽란도를 통해 송, 일본은 물론 이슬람 국가들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국제 교류 덕분에 고려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르는 영어 이름이 고려에서 비롯된 KOREA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려의 귀족들은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 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수용해 발전시켰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문화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불교 문화재와 청자입니다.

화려하고 세련됨의 극치, 불교 문화재

고려의 불교 문화재는 규모는 작지만 화려하고 세련된 공예품과 회화 작품이 많습니다. 향을 담은 그릇, 물을 담아두는 정병, 금이나 청동으로 만든 탑 등은 고려의 뛰어난 공예 기법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고려 불교 문화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 고려 불화입니다. 최고급 안료와 황금을 써서 그린 고려시대 불화는 화려함과 세련됨, 그리고 세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탑을 통해서도 고려 문화의 분위기를 이해 할 수 있는데 대리석에 화려하고 세밀한 조각을 한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하제일의 비색, 고려청자

천하제일의 '비색'으로 유명한 청자도 고려 문화의 화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통일신라 말기부터 만들어 졌으나 중국과 흙, 나무, 물 등 환경이 달랐던 탓에 쉽게 만들어 낼 수 없었습니다. 고려의 도공들은 푸른빛의 청자를 만들기 위해 좋은 흙을 찾아 전국을 헤매었고 마침내 전라남도 강진에서 푸른빛을 내는 좋은 흙을 찾아내었습니다. 이후 청자를 만드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고려 고유의 비색을 내는 고려청자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고려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금속 공예에 쓰던 상감기법을 청자 제작에 활용하였습니다. 상감청자는 청자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자리에 흰 흙이나 붉은 흙을 채운 뒤 불에 구어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도 볼 수 없는 고려만의 기술입니다.

!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다 ☆

참고 자료



◎ 고려 시대 최대 무역항, 벽란도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가깝고 비교적 물이 깊어 자유롭게 배가 드나들 수 있어 송과 일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도 왕래하는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 고려 불화

왕실과 귀족의 예불과 감상을 위해 만든 고려의 불화는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려 불화는 국내에는 몇 점 남아있지 않고 일본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수월관음도〉



◎ 경천사지 십층석탑

이 탑은 원래 경기도 개풍군 경천사지에 남아 있었는데 일본에 불법 반출되었다가 서울 경복궁에 복원되었습니다.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전하면서 보존 등의 목적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다른 석탑들과는 달리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탑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고려 충목왕 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고려청자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



청자 상감
모란국화무늬
참외모양 병



청자 양각
녕쿨무늬
암막새



청자 투각
연꽃 무늬 배개

고려 시대 청자로 만들어진 것은 생활에 쓰이는 그릇에서 지붕에 얹는 기와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고려 시대 귀족들은 일상생활에서 화려함을 즐겼습니다.

◎ 고려청자 관련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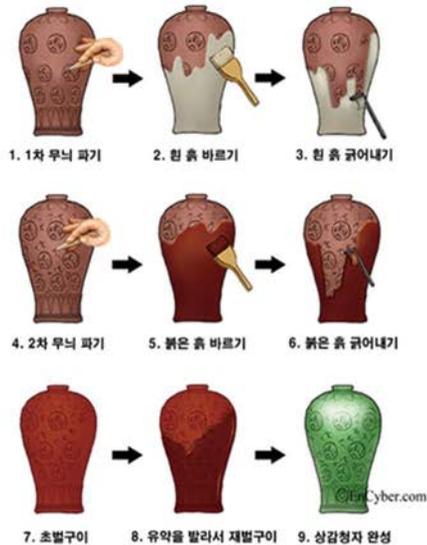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502_00135

출처: EBS 지식채널e

!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다 ☆

활동 1) 다음은 고려 상감청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 가) 흙을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어 그늘에 말립니다.
- 나) 700~800℃에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 다) 무늬를 새기고 다시 말립니다.
- 라) 무늬를 새긴 자리에 흰 흙과 붉은 흙을 번갈아 발라 채웁니다.
- 마) 1250~1300℃로 온도를 높여 재벌구이를 합니다.
- 바) 유약을 발라 말립니다.



출처: 두산백과



활동 2) 다음 중 고려의 문화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나나: 고려는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활발히 하여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탐: 고려시대에는 청자가 많이 만들어져서 일반 백성들도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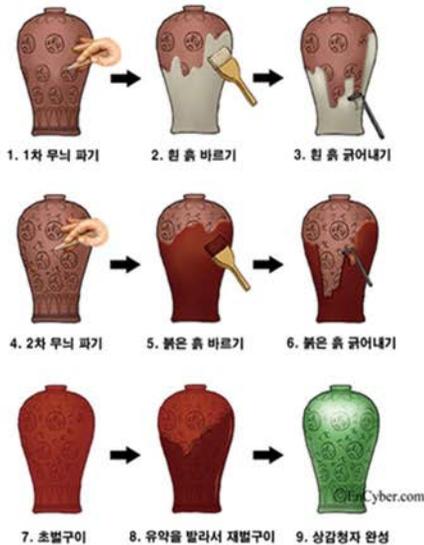
수호: 고려시대에는 최고급 안료와 금을 사용한 화려한 불화가 많이 그려졌어.

온유: 고려의 청자는 그 빛깔이 매우 아름다워 중국인들도 천하 제일의 비색이라고 칭찬하였어.

!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다 ☆

활동 1) 다음은 고려 상감청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 가) 흙을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어 그늘에 말립니다.
- 나) 700~800℃에서 초벌구이를 합니다.
- 다) 무늬를 새기고 다시 말립니다.
- 라) 무늬를 새긴 자리에 흰 흙과 붉은 흙을 번갈아 발라 채웁니다.
- 마) 1250~1300℃로 온도를 높여 재벌구이를 합니다.
- 바) 유약을 발라 말립니다.



정답
가) → 다) → 라) → 나) → 바) → 마)

출처: 두산백과



활동 2) 다음 중 고려의 문화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보세요.

나나: 고려는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활발히 하여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

탐: 고려시대에는 청자가 많이 만들어져서 일반 백성들도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었어.

수호: 고려시대에는 최고급 안료와 금을 사용한 화려한 불화가 많이 그려졌어.

온유: 고려의 청자는 그 빛깔이 매우 아름다워 중국인들도 천하 제일의 비색이라고 칭찬하였어.

정답: 탐

5 차 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를 만들다(고려)



 수업 목표

- 고려가 뛰어난 인쇄술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 목판 인쇄와 금속활자 인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 인쇄술의 발전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각 열기

-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가 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100대 사건 중 1위로 '금속활자의 발명'이 뽑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 고려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지만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책이 보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과 비교하여 알아봅시다.



📖 교수 학습 과정

목판 인쇄술의 발달

우리나라의 인쇄술은 통일신라시대 이후 불교 경전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불국사 3층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불국사 3층석탑(751년 조성)이 세워지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더욱 번성하여 불경 제작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고려의 목판인쇄 기술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고려에서는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제작하게 되면서 목판 인쇄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거란의 침입 때 '초조대장경'을 제작했고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자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이때 만든 대장경의 목판 수가 8만장이 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 부릅니다.

금속활자를 발명하다

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또 만들어야 할 책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종류의 책을 찍어 낼 수 있는 활자인쇄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목판 인쇄는 책의 종류에 따라 판을 만들어야고 나무판에 일일이 글자를 새겨야 했기 때문에 제작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목판에 새긴 글자는 금방 닳아 없어져서 책을 여러 권 찍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쇄가 끝난 목판의 보관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금속활자는 글자를 한자 한자 만들어 글자들을 조합하여 책을 만들기 때문에 한 개의 활자로 여러 내용의 글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속으로 만들 나무처럼 뒤틀리지 않아 실용성 면에서도 뛰어난 점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활자의 장점을 깨달은 고려는 삼국 시대부터 발달해온 청동 주조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1230년대에 《상정고금예문》을 금속활자로 찍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실물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입니다. 줄여서 《직지》라 부르는 이 책의 인쇄에 사용된 금속활자는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로 알려져 있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보다 80여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직지》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목판에서 금속활자로 이어진 고려의 인쇄 기술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뛰어난 금속활자인 계미자, 갑인자 등은 민족 문화의 발전과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를 만든다 ☆

📖 참고 자료



◎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고자 고려 현종 때 만든 고려 최초의 대장경입니다. 목판은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졌으나 그 인쇄본이 국내외의 여러 박물관과 일본 교토, 쓰시마 등지에 남아있습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의 불교 역량과 목판 인쇄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 고려대장경 목판, 합천해인사 장경판전



‘대장경’은 경과 율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해석한 논술을 모두 모은 것입니다. 고려대장경은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고려왕실은 대장도감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고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판수가 8만 4천여 개에 달해 팔만대장경이라 불리며 제작기간도 무려 16여 년이나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장경 제작에 참여했지만 한 사람이 판 듯이 글자 모양이 고르고 잘못된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고려대장경은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데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방대한 대장경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습도와 온도 유지 및 통풍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대장경과 제경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직지심체요절



《직지》의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입니다. 그 이름을 풀이하면 ‘백운화상이 부처가 한말 중 가장 중요한 것인 직지에 대한 뜻풀이를 고승들의 책에서 가져와 이를 편집했다’는 뜻이 됩니다. 《직지》는 승려들이 수행과 공부를 하는 데 학습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직지》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던 흥덕사에서 상·하권으로 만들어 인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하권 한 권만 발견되었으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직지》는 대한제국 때 외교관 콜랭 드 플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전해졌습니다.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콜랭 드 플랑시는 우리나라의 책과 미술품 등을 사들였는데 그 속에 《직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콜랭 드 플랑시가 가져간 《직지심체요절》은 1911년 고서 경매장을 통해서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에게 팔렸고 앙리 베베르가 세상을 떠나면서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하였습니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의 중국과 일본 책 속에 파묻혀 있던 《직지》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에 의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박병선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이 책이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 고려 활자



현재 고려 시대 활자가 남한과 북한에 각각 하나씩 남아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복’자가 북한의 개성박물관에는 ‘전’자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 모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글자는 아닙니다.

!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를 만든다 ☆

활동 1) 다음은 금속활자의 인쇄과정입니다. 어떻게 인쇄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까요?

직지 금속활자 인쇄과정



글자본 선정



지본 붙이기



어미자 만들기



말림가지 만들기



주형(거푸집)만들기



인쇄하기



조판



활자 다듬기



완성된 주조 활자



씻물뺏기

출처: 청주고인쇄박물관

동영상 보기: http://jikjiworld.cjcity.net/static/file_attach/jikji_vod/jikji_his.wmv

활동 2) 고려 시대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써봅시다.

조사보고서

0000년 0월 0일

1. 주제: 고려 시대 세계기록유산
2. 조사방법:
3. 조사한 문화유산

문화유산 이름	사진	설명
직지심체요절		제작시기: 소장되어 있는 곳: 특징: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고려대장경과 제경판		제작시기: 소장되어 있는 곳: 특징: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를 만든다 ☆

활동 1) 다음은 금속활자의 인쇄과정입니다. 어떻게 인쇄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까요?

직지 금속활자 인쇄과정



글자본 선정



자본 붙이기



어미자 만들기



말뭉개지 만들기



주형(거꾸집)만들기



인쇄하기



조판



활자 다듬기



완성된 주조 활자



씻물뿜기

출처: 청주고인쇄박물관

동영상 보기: http://jikjiworld.cjcity.net/static/file_attach/jikji_vod/jikji_his.wmv

활동 2) 고려 시대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써봅시다.

조사보고서

0000년 0월 0일

1. 주제: 고려 시대 세계기록유산
2. 조사방법:
3. 조사한 문화유산

문화유산 이름	사진	설명
직지심체요절		<p>제작시기: 14세기(1377년) 소장되어 있는 곳: 프랑스 국립도서관 특징: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인쇄한 책으로 승려들이 수행과 공부를 하는데 학습서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대한 제국때 외교관 폴랭 드 칼랑시에 의해 프랑스로 전해졌다가 1911년 고시 경매장에서 골동품 수집가인 앙리 베베르에게 팔렸지요. 그 후 앙리 베베르가 세상을 떠나면서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하였고 도서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에 의해 직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어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기 때문이에요.</p>
고려대장경과 제경판		<p>제작시기: 13세기 소장되어 있는 곳: 합천 해인사 강경판전 특징: 고려대장경은 부처님의 법으로 불공을 돌리치고사 제작되었어요. 판수가 8만 4천여 개나 되어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며 제작기간도 16년이나 걸렸지만 글자모양이 반듯하고 깨끗한 글자가 거의 없어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뛰어난 목판 인쇄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p>



 수업 목표

- 세종 때 민족 문화가 꽃 피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 조선 시대 다양한 과학 문화재에 대해 알아봅시다.

 생각 열기

-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문자와 한글을 비교해 봅시다.
- 당시 양반들이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한 이유를 생각해봅시다.
- 유교적 민본주의와 현대의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교수 학습 과정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다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르침을 유교에서 찾았으며 유교적 이상 국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먼저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새 나라의 중심지가 된 한양에는 경복궁과 종묘, 사직을 세워 유교의 원리에 맞는 도시로 만듭니다.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태종의 노력으로 조선은 건국 초기의 혼란을 딛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운 세종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이루어 놓은 안정된 왕권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학과 문화를 꽃피우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며 정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경제와 문화도 크게 발전하여 우리 역사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한 전성 시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은 인재를 기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있는 인재들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또한 집현전을 설치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정치·자문·왕실 교육·서적 편찬 등을 하였습니다.

조선경제의 중심인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우리 땅과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담은 《농사직설》을 편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농민생활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과학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천문관측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고 날씨의 변화를 관찰해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왕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수량을 측정하는 측우기, 별자리를 관측하는 혼천의 그리고 계절과 시간을 살펴볼 수 있는 해시계와 물시계 등이 만들어졌으며 한양을 기준으로 하늘의 모습과 별의 움직임을 계산한 책인 《칠정산》이 편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한자로 된 어려운 책으로는 백성을 가르치기 어렵다고 느낀 세종은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세종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하는 뜻의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국방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세종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태종과 함께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또한 북방 국경지역에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여진족을 쫓아내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국경선은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다 ☆

참고 자료

◎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서문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일반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은 만든 까닭과, 창제원리, 사용법을 자세히 기록한 훈민정음 해설서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덕분에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세종의 명을 받아 정초가 지은 농서입니다. 씨앗을 저장하는 방법, 모내기법, 거름사용법 등 각 절기에 맞는 농사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세종 때 만들어진 다양한 과학 기구



혼천의

천체 관측 기구로 해와 달, 오행성의 위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의 혼천의는 측정 때마다 기구를 조정해야 했는데 세종 때의 혼천의는 그러지 않아도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었습니다.



양부일구

둥근 가마솥 모양의 시계 판으로 구성된 해시계로 시각과 계절을 함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서울의 종로 1가 혜정교와 종로 4가 종묘 앞에 크게 만들어 세우고 오가는 이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격루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가 있는 물시계로 자동으로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려 주었습니다. 흐린 날이나 밤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해시계와 달리 하루 종일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참고 영상 : 자격루를 발명하다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10309_C0235
 출처: EBS 클립영상

《자격루(복원)》



측우기는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로 원통에 빗물을 받아 끈 물의 양을 재는 것입니다. 강우량은 농사의 풍년 또는 흉년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우기를 만든 것입니다. 세종 때의 측우기는 세계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우량계입니다.

《관상감 측우대》

!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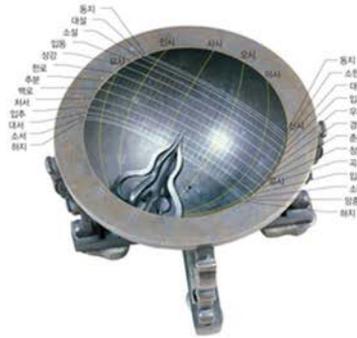
활동 1)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말에서 다음 단어의 소리를 한글로 표현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	
친구	
엄마	
아빠	

활동 2) 훈민정음 28자 중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쳐주세요.

ㅇ	ㄱ	ㅍ	ㄴ	ㅋ	ㅁ	ㅊ
ㅅ	ㅇ	ㅈ	△	ㅋ	·	ㅍ
ㅎ	ㅅ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활동 3) 해시계, 양부일구를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양부일구의 시간 읽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영침의 그림자 끝이 가리키는 선을 따라 읽으면 됩니다.

24절기 표

소만(小滿) 양력 1월 6일경	입하(立夏) 양력 5월 6일경	백로(白露) 양력 9월 8일경
대만(大滿) 양력 1월 21일경	소만(小滿) 양력 5월 21일경	추분(秋分) 양력 9월 23일경
입춘(立春) 양력 2월 4일경	망종(芒種) 양력 6월 6일경	한로(寒露) 양력 10월 8일경
우수(雨水) 양력 2월 19일경	하절(夏節) 양력 6월 21일경	상강(霜降) 양력 10월 23일경
경칩(驚蟄) 양력 3월 6일경	소서(小暑) 양력 7월 7일경	입동(立冬) 양력 11월 7일경
하절(夏至) 양력 3월 21일경	대서(大暑) 양력 7월 23일경	소설(小雪) 양력 11월 22일경
청명(淸明) 양력 4월 5일경	입추(立秋) 양력 8월 8일경	대설(大雪) 양력 12월 7일경
한우(寒雨) 양력 4월 20일경	곡서(穀書) 양력 8월 23일경	동지(冬至) 양력 12월 22일경

12간지 표

자시(子) 오후 11시~오전 1시	오시(戊) 오전 11시~오후 1시
축시(丑) 오전 1시~오전 3시	미시(己) 오후 1시~오후 3시
인시(寅) 오전 3시~오전 5시	신시(庚) 오후 3시~오후 5시
묘시(卯) 오전 5시~오전 7시	유시(辛) 오후 5시~오후 7시
진시(辰) 오전 7시~오전 9시	술시(壬) 오후 7시~오후 9시
사시(巳) 오전 9시~오전 11시	해시(癸) 오후 9시~오후 11시

!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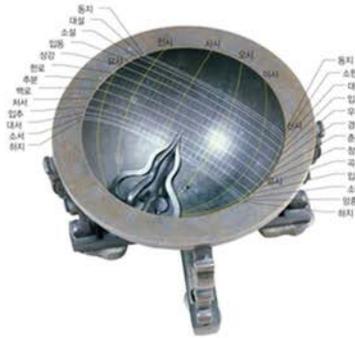
활동 1)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말에서 다음 단어의 소리를 한글로 표현해 보세요.

학교	스쿨
선생님	티저
친구	프랜드
엄마	마더
아빠	파더

활동 2) 훈민정음 28자 중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쳐보세요.

○	ㄱ	ㅍ	ㄴ	ㅋ	ㅁ	ㅊ
ㅅ	ㅇ	ㅈ	△	ㆁ	◉	ㅍ
ㅎ	ㅅ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ㅊ	ㄹ	○	ㅣ	ㅡ

활동 3) 해시계, 양부일구를 보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양부일구의 시간 읽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영침의 그림자 끝이 가리키는 선을 따라 읽으면 됩니다.

24절기 표

소만(小滿) 양력 1월 6일경	입하(立夏) 양력 5월 6일경	백로(白露) 양력 9월 8일경
대만(大滿) 양력 1월 21일경	소만(小滿) 양력 5월 21일경	추분(秋分) 양력 9월 23일경
입춘(立春) 양력 2월 4일경	망종(芒種) 양력 6월 6일경	한로(寒露) 양력 10월 8일경
우수(雨水) 양력 2월 19일경	하추(夏秋) 양력 6월 21일경	상강(霜降) 양력 10월 23일경
경칩(驚蟄) 양력 3월 6일경	소서(小暑) 양력 7월 7일경	입동(立冬) 양력 11월 7일경
하분(夏分) 양력 3월 21일경	대서(大暑) 양력 7월 23일경	소설(小雪) 양력 11월 22일경
청명(淸明) 양력 4월 5일경	입추(立秋) 양력 8월 8일경	대설(大雪) 양력 12월 7일경
한우(寒雨) 양력 4월 20일경	처서(處暑) 양력 8월 23일경	동지(冬至) 양력 12월 22일경

12간지 표

자시(子) 오후 11시~오전 1시	오시(戊) 오전 11시~오후 1시
축시(丑) 오전 1시~오전 3시	미시(己) 오후 1시~오후 3시
인시(寅) 오전 3시~오전 5시	신시(庚) 오후 3시~오후 5시
묘시(卯) 오전 5시~오전 7시	유시(辛) 오후 5시~오후 7시
진시(辰) 오전 7시~오전 9시	술시(壬) 오후 7시~오후 9시
사시(巳) 오전 9시~오전 11시	해시(癸) 오후 9시~오후 11시

7차시

서민 문화가 성장하다(조선 후기)



 수업 목표

-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 조선 후기 유행한 서민 문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자.

 생각 열기

- 조선 시대 양반들의 문화와 서민 문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문학작품 중 풍자와 해학이 담겨있는 문학작품을 찾아보고 그러한 작품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 서양의 가면극과 탈춤의 차이점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 교수 학습 과정

조선 후기에 이르러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서민들 중에서 생활에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나타났고 점차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한글이 보급되면서 글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서당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서민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서민들은 양반과 다른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민 문화는 감정의 격나라한 표현으로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고발하는 형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판소리

판소리는 소리꾼이 북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판소리에는 더 높은 신분에서 오르려는 서민들의 희망과 잘못된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시 등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여러 판소리 중 12개를 골라 정리했는데 이것을 고종 때 신재효가 6마당으로 정리했고 현재는 이 중에서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궁가〉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춤

조선 후기에는 신나는 춤사위와 함께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한 탈춤이 유행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신분이 낮은 서민이 양반을 비꼬는 게 불가능했지만 탈춤에서는 신분을 상징하는 탈을 쓰고 양반이나 벼슬아치들의 잘못된 점을 마음껏 비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탈춤으로는 봉산 탈춤, 하회 별신굿, 송파 산대놀이, 통영 오광대놀이, 북청 사자놀이 등이 있습니다.

한글 소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서민과 여성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소설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소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사회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인기 있는 한글 소설들은 판소리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허균의 《홍길동전》 서열이라는 신분 때문에 뜻을 펼 수 없었던 홍길동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울도국을 세운다는 내용으로 서민들에게 쌓여있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있습니다.

민화

민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서민들은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복을 빌며 출세를 바라는 마음을 민화 속에 담았습니다. 또한 민화는 나쁜 귀신을 몰아내고 경사스러운 일을 불러들이는 부적처럼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풍속화

풍속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 등은 주변 인물들을 소재로 당시 백성들의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생활모습을 고스란히 그림에 담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솔직히 표현한 풍속화 덕분에 우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서민 문화가 성장하다☆

참고 자료

◎ 김홍도와 신윤복



어릴 때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김홍도는 강세황의 추천으로 왕실의 도화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정조의 사랑을 받아 왕실에 필요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김홍도는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재치있게 담은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신윤복은 유명한 화원 집안에서 태어나 대를 이어 화원이 되었습니다. 신윤복은 남녀 간의 사랑을 솔직하게 담았으며 아름다운 여성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 민화의 다양한 소재



민화는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그림이 많은데 이름이 남겨지지 않은 화가들이 다양한 주제의 민화들을 남겼습니다.

서민들은 민화로 집을 장식하여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했습니다. 복을 부르는 새로 여겨진 까치, 잡귀를 쫓아내는 동물로 여겨진 호랑이, 장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십장생도, 학식이 높아 보이길 바라며 책거리 그림으로 방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 판소리

http://clipbank.ebs.co.kr/clip/view?clipId=VOD_20120116_00293

출처: EBS 우리 가락 감상하기 - 춘향가 중 어사출두야

! 서민 문화가 성장하다★

활동 1)

다음은 조선 후기 유행한 판소리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에 맞는 판소리의 제목을 찾아 이어보세요.

춘향가	●	●	용왕이 병이 들자 약에 쓸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하여 자라는 세상에 나와 토끼를 꺾어 용궁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나 토끼는 꺾을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내용
심청가	●	●	가난하고 착한 아우 흥보는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타서 보물들이 나와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모진 형 놀보는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타서 괴물들이 나와 망한다는 내용
수궁가	●	●	앞을 못 보는 심봉사의 딸 심청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동냥짓으로 자라는데 15세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에 빠졌으나 하늘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와 황후가 되고, 맹인잔치에서 아버지를 만나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
흥보가	●	●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기생 월매의 딸 춘향과 사랑하다가 헤어진 뒤, 춘향이 남원 신임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이몽룡이 전라어사가 되어 구한다는 내용

활동 2)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회화 작품 중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 소개해 봅시다.



밀레 <이삭줍는 시집부르> 1857년

활동 3)

조선 후기 서민들은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복을 바라는 마음을 민화 속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민화 속 소재들의 의미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내 방을 장식할 민화를 그려보세요.

모란-부귀, /십장생(학, 소나무, 바위 등)-장수, /까치-복을 부르는 새, /호랑이-잡귀를 물리침, /물고기-건강과 풍요, /꽃과 새-부부의 화목

! 서민 문화가 성장하다☆

활동 1)

다음은 조선 후기 유행한 판소리의 줄거리입니다. 줄거리에 맞는 판소리의 제목을 찾아 이어보세요.

춘향가		<p>용왕이 병이 들자 약에 쓸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하여 자라는 세상에 나와 토끼를 피어 용궁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나 토끼는 피를 내어 용왕을 속이고 살아 돌아온다는 내용</p>
심청가		<p>가난하고 착한 아우 흥보는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타서 보물들이 나와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모진 형 놀보는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어 박을 타서 괴물들이 나와 망한다는 내용</p>
수궁가		<p>앞을 못 보는 심봉사의 딸 심청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동냥짓으로 자라는데 15세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에 빠졌으나 하늘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와 황후가 되고, 맹인잔치에서 아버지를 만나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p>
흥보가		<p>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기생 월매의 딸 춘향과 사랑하다가 헤어진 뒤, 춘향이 남원 신임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이몽룡이 전라어사가 되어 구한다는 내용</p>

1-④, 2-③, 3-①, 4-②

활동 2)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회화 작품 중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골라 소개해 봅시다.



〈이삭 줍는 사람들〉은 1857년에 그려진 장 프랑수아 밀레의 대표작 중 하나다. 상류층을 비판하기 위해 전원적 풍경과 농부의 노동을 즐겨 그린 것이다. 전경을 차지하고 있는 여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원경에 보이는 저택과 말을 탄 사나이는 상류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멀리 쌓여있는 노적가리에 비해 여인들이 줍고 있는 이삭은 무척 소박하게 보인다. 이런 형상화를 통해 밀레는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농민과 노동자의 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활동 3)

조선 후기 서민들은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복을 바라는 마음을 민화 속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민화 속 소재들의 의미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내 방을 장식할 민화를 그려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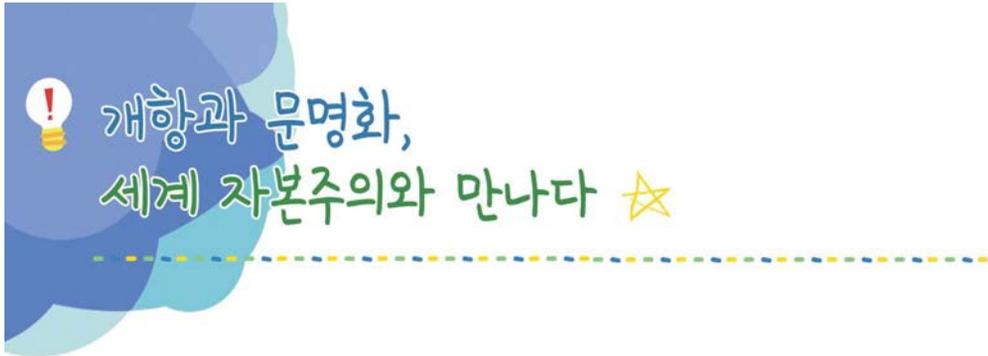
모란-부귀, / 십장생(학, 소나무, 바위 등)-장수, / 까치-복을 부르는 새, / 호랑이-잡귀를 물리침, / 물고기-건강과 풍요, / 꽃과 새-부부의 화목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4. 근현대

1 차시

개항과 문명화, 세계 자본주의와 만나다



수업 목표

개항은 굳게 닫혀 있던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문을 열었다는 의미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알아가 보자.

- 1876년 조선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 때, 국내의 상황을 이해한다.
- 개항의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이후에도 개방을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그들 사이에도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
- 문명화를 내세우며 개방을 추진한 결과 조선 사회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회문화 현상들이 나타났다.

생각 열기

서구 열강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19세기 중반경부터 동북아시아로 진출해 왔다. 열강은 무력을 앞세우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의 전통적인 국제질서를 부인 하였다.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조선이 문을 열고 자신들과 무역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을 비롯해 중국, 일본은 어떻게 문을 열고, 내부 갈등 속에서 문명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국가를 수립할 수 있었을까?

교수 학습 과정

※ 동아시아 3국의 개항 과정

동북아시아 3국은 중국, 일본, 조선 순서로 개항하였다. 중국은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여 남경조약(1842)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미국 해군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요코하마에 정박하자 청처럼 무력으로 충돌하지 않고 대화로 협의하여 마일 화친 조약(1854)을 맺었다.

조선은 일본 운요호가 허락도 없이 강화도에 접근하자 수비대가 포격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일본은 지금 인천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군대를 상륙시켜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후 군함과 군인을 동원하여 조선에 문을 열도록 위협하였다. 결국 조선 정부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지만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조·일 수호 조규(1876)를 체결하였다. 우리는 강화도에서 체결된 조약이라 하여 흔히들 강화도조약이라 말하고 있다.

3국의 개항은 군함을 동원한 열강이 압력을 넣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포함외교라도 말말한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조금씩 달랐다.

〈중국〉	〈일본〉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를 변방의 오랑케로 간주하여 무시하다 영국에 참패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하였다. - 열강은 자신의 생산품과 청의 광대한 영토에서 나오는 농산물, 비단, 도자기와 같은 상품을 수출입하여 이익을 얻는데 더 관심을 두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이 영국의 해군에 참패했다는 소식은 일본의 지배층에게 큰 충격이었다. 지배층은 열강과의 직접 충돌을 회피하였다. - 열강은 일본이 면화 등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라 간주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정부는 남경조약 등에 관한 소식을 듣고 더 강력하게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고수하였다. - 운요호 사건에 위기를 느끼고 서구와 일본이 다르며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항하였다.

※ 조선 개항 이후 문명화 전략

조선 정부는 강화도조약에 이어 미국과 조약을 체결(1882)하는 등 여러 국가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양반을 비롯해 지식인층 내부에서는 크게 세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 위정척사운동 : 조선의 정치 이념인 성리학, 통치 체계의 핵심인 절대 군주제를 내세워 개화를 반대하였다. 시대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 온건 개화파 :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던 양무운동의 영향을 받아 유교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한다. 그래서 동도/서기(東道/西器)파라고도 말하고 있다.
- 급진 개화파 :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문명개화론을 적극 주장하였다. 신분제를 폐지하자, 군주의 권한을 제약하고 상공업을 비롯해 경제를 진흥시키고 종교의 자유도 보장하는 개화였다. 기존의 제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개화당, 독립당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개항과 문명화, 세계 자본주의와 만나다 ☆

※ 어떻게 세상을 배웠을까.

조선 정부는 개항 직후 유럽과 미국에 직접 가서 자본주의 경제와 근대 제도를 배우지 않았다. 일본과 청에 먼저 가서 그들이 이해하고 추진하는 경제와 제도를 알아보고 국제정세를 파악하고자 파견단을 보냈다.

일본에 보낸 파견단을 수신사(1876, 1880)라 말하고, 청에 보낸 파견단을 영선사(1881)라 한다. 일본의 정세를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자 비밀리에 조사(朝士)시찰단도 파견하였다(1881)

그런데 조사시찰단에 참가한 개화파 인사인 박정양과 홍영식은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게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평가를 달리한 보고는 이후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방향의 차이로 드러났다.

고 종 : 일본의 제도가 굉장하고 정치가 부강하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러한가?

홍영식 : 그 제도가 굉장하기는 하나 다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한마음으로 힘을 합한 데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그 한 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 종 : 일본의 강약이 어떠한가?

박정양 : 일본은 겉모습을 보면 자못 부강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은 그렇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서양과 통교한 이후로는 단지 교묘한 것을 좇을 줄만 알고 재정이 고갈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기계를 설치할 때마다 외국에 전 부채의 액수가 심히 많습니다. 이상 <<승정원일기>>(1881)

※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 파견단의 보고에 따라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개화파 인사가 대거 참가한 통리기무아문이란 행정 기구를 설치하였다(1880)
- 박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였습니다.(1883). '순보'란 10일에 한 번씩 간행되는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한문을 사용한 한성순보는 10일에 1회씩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24면 구성이었습니다.
- 나라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부국강병(富國強兵) 정책의 핵심 정책인 군사 제도를 개편하였다. 사관 생도를 기르기 위해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인 교관의 지휘 아래 신식 무기를 가지고 군사 훈련을 받았다.
- 1882년 청의 주선으로 서양 여러 나라 가운데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하였다(1882). 청은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점차 남하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한편, 강화도 조약 이후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 청은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강요하여 조선이 자신의 속국임을 명문화하였다. 이에 조선정부의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는 청과의 관계를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되었다.

<활동>

1. 다음은 동북아시아 3국의 수도와 처음 개항한 도시들을 표시한 것이다. 공통점을 말해 보자.



2. 다음은 강화도 조약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제1관 조선국은 자주(自主)의 나라이며, ()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3. 개항 이후에 대한 설명 가운데 맞는 것은?

- 1) 조선 정부가 외교 관계를 맺은 첫 서양 국가는 영국이다.
 - 2) 박문국에서는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 3) 미국의 요청을 받은 청은 조선 정부와의 사이를 주선하여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조선 정부는 청과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개화 정책을 알아보고자, 각각 수신사와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4.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 정부에 이를 보완하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이다. 이로 인해 조선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로 말해보자.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조·일 무역 규칙>

제7칙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 개항과 문명화, 세계 자본주의와 만나다 ☆

<활동>

1. 다음은 동북아시아 3국의 수도와 처음 개항한 도시들을 표시한 것이다. 공통점을 말해 보자.



답 : 항구
내륙의 육지가 아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서구와 동북아시아가 교류할 때 가장 익숙하고
효율적인 방식은 배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2. 다음은 강화도 조약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답 : 청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3. 개항 이후에 대한 설명 가운데 맞는 것은? 답 : 3. 1-미국, 2-독립협회, 4-청 영선사, 일본 수신사

- 1) 조선 정부가 외교 관계를 맺은 첫 서양 국가는 영국이다.
- 2) 박문국에서는 독립신문을 간행하였다.
- 3) 미국의 요청을 받은 청은 조선 정부와의 사이를 주선하여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조선 정부는 청과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개화 정책을 알아보고자, 각각 수신사와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 
4.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 정부에 이를 보완하는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내용의 일부이다. 이로 인해 조선 경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로 말해보자.

답: 일본인 상업자본이 개항장을 통해 들어옴. 특히 쌀과 면직물 등이 유출되어 오히려 조선경계를 혼란시켰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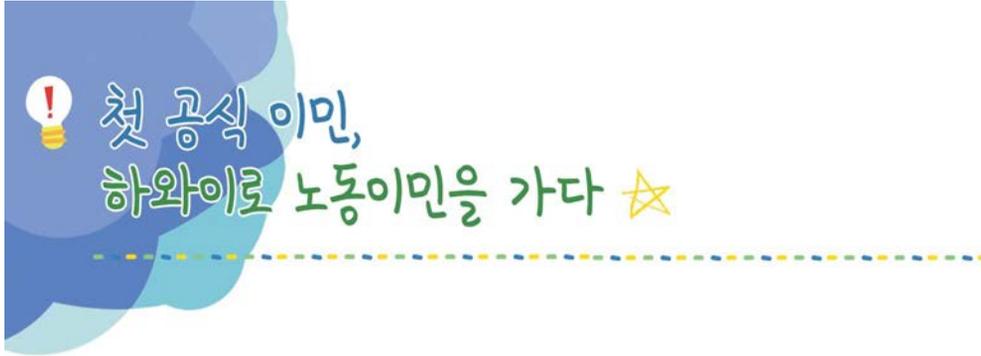
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조·일 무역 규칙〉

제7칙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2 차 시

첫 공식 이민,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가다



 수업 목표

북간도에 가서 정착한 조선인은 19세기 말에도 있었다. 하지만 조선(대한제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이민자는 1902년 12월 22일 하와이로 이주하기 위해 떠난 사람들이었다. 이번 차시에는 그들이 하와이로 가는 과정부터 미주지역에 한인사회가 형성되는 과정까지 알아보자. 다만 그들의 삶은 1910년 한국병합을 전후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해해 보자.

- 대한제국이 하와이 이민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하와이에 이주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 이즈음 하와이 이외의 미주지역 한인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생각 열기

이민은 지금보다 더 낡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제까지 자신이 함께했던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말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이주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자신이 선택 곳에 이주를 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다. 흔히들 전자를 이동요인, 후자를 유인요인이라고 말한다. 두 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출발지와 도착지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바뀐다. 그에 따라 이민자들의 직업 등이 다를 수 있다. 1903년 1월 13일 조선인 첫 공식 이민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와이를 이민지로 선택했을까?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갔을까?



교수 학습 과정

※ 고종이 이민을 승인한 이유는?

원래 한국인은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상이 묻혀 있는 곳을 떠남으로써 모실 수 없게 된다는 유교적 관념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하지만 고종은 가뭄 등 자연재해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 백성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생각에서 이민을 승인하였다. 또한 1882년 중국인 이민금지법으로 중국인의 이민이 금지된 상황에서 한국인의 입국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고종은 높이 평가하였다. 1902년 12월 10일 알렌 주한미국공사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고종 황제는 중국인이 갈 수 없는 미국에 한국인이 갈 수 있다는 데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지난 여름 본인이 미국에서 이곳에 귀입하자 곧 황제가 보낸 사신이 찾아와 미국에는 중국인은 못 가지만 한국인은 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물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회답하고 다시 이민에 관한 미국법, 즉 중국인 배척법 및 계약 노동자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사탕수수업자들이 한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인 이유는?

중국인 배척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이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미국이 처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서부지역이 크게 개발되면서 사람이 이 몰렸다. 하지만 설탕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통적인 설탕 공급지였던 미시시피 강 하류 지역은 1861년 내 남북전쟁의 발발로 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사탕수수업자들은 하와이 왕국의 통치 지역을 대체 지역으로 간주하고 개발에 나섰다.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은 20세기 들어서도 계속 확장되었지만, 중국인의 대신 늘어난 일본인 이민자가 늘어나자 하와이의 일본인화를 우려한 미국정부는 일본인 이민을 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더구나 하와이 원주민은 백인의 이주와 더불어 확산된 전염병 때문에 인구가 급감한데다, 규칙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자본주의적 노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므로 대체 노동력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 모집 과정과 기독교 감리교

한국인 이민자를 모집한 사람은 미국인 사업가 데셀러(David Deshler)다. 그는 주한 미국 공사 알렌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하였다. 알렌은 원래 의사 선교사로 한국에 와 고종의 주치의까지 된 사람이다. 그런 그가 1897년 주한 미국 공사가 되는데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미국 오하이오 주지사이자 절친한 친구인 내쉬(George Nash)이다. 데셀러는 내쉬의 양아들이다.

하와이 이주자의 절반 가량은 '제물포 웨슬러 메모리얼 교회(현재 인천내리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든(George Herber Jones, 한국 이름 조원시)의 설득과 권유를 받은 교인과 그 주변 사람이었다.

첫 공식 이민,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가다 ☆

※ 모집 광고(1903년 8월 6일)

- 대미국 하와이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공포함.
- 하와이 군도로 누구든지 일신이나 혹 권속을 데리고 와서 정착하고자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편리함을 공급하노라
 - 기후는 온화하여 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으므로 각인의 기질에 합당함.
 - 학교설립법이 광대하여 모든 섬에 다 학교가 있어 영문을 가르치며 학비를 받지 아니함.
 - 농부들을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절기든지 직업 얻기가 용이한데 신체가 강건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은 안정되고 장구한 직업을 얻기 더욱 무난하고 법률의 제반 보호를 받게 함.
 - 월급은 미국 금전으로 매월 심오원(일본 금화 삼십원 : 대한 돈으로 오십칠원 가량)씩이고 일하는 시간은 매일 십시 동안이요 일요일에는 휴식함.
 - 농부의 유숙하는 집과 나무와 식수와 병을 치료하는 경비는 고용하는 주인이 지급하고 농부에게는 받지 아니함.
 - 대한제국이 고시를 공고하는 권한을 줌.

호놀룰루
일천구백삼년 팔월 육일
대미국 영지 하와이 이민 감독 겸 광고 대리 사무관 랜싱 고백

※ 이주자들의 삶과 사진신부

- 인천->켄카이마루(玄海丸)로 나가사키->켈리호로 호놀룰루에 102명의 이주자들이 1903년 1월 13일 도착하였다. 한국인의 미주지역 이민사가 시작된 것이다. 하와이 이주자는 1905년 4월 일본이 금지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총 65편의 선박으로 약 7천 명이였다.
- 사탕수수 농장에 배치된 이주자들은 인종적인 차별을 받고 혹독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실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은 한국에서 농민, 전직 군인, 도시의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 주로 인천 부산 원산과 같은 개항장과 서울 평양 등의 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특정 지방 출신자들 또는 농부가 많았던 중국인, 일본인 이주자들과 달랐다. 도시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서양 문화와 종교, 서구적 근대 도시에 비교적 순탄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
- 이주자들의 상당수는 미혼 남성이었다. 그들은 사진만을 통해 한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하였다. 1910년 11월부터 1924년 10월까지 '사진신부(picture brides)'가 약 1천 명 가량 건너왔다. 하와이에 951명, 미국 본토에 115명 정도.
- 사진신부가 늘어감에 따라 안정된 가정을 이룬 남성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보다 미국에 정착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들은 가혹한 노동과 낮은 급료 때문에 농장에서 이탈하여 호놀룰루 시내에 거주하든지 본토로 2차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귀국한 사람은 136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본토 이주자는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주로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하였다. 1910년대 미주지역 독립운동이 이곳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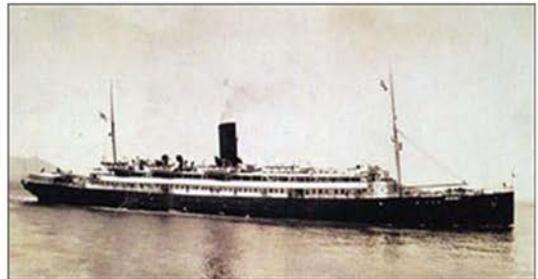
<활동>

1. 대한제국의 첫 공식 이민이 시작된 때는 ?

- 1) 1876년
- 2) 1902년
- 3) 1905년
- 4) 1910년

2. 아래 사진의 배는 하와이 이주민을 태운 배이다.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 1) 운요호
- 2) 제너럴 서먼호
- 3) 겐릭호
- 4) 인디펜던트호



3.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1) 미국 서부지역에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설탕 수요도 크게 늘었다.
- 2) 한국에 온 감리교 목사 등이 한국인의 이주에 도움을 주었다.
- 3) 1882년 미국정부는 일본인 배척법을 제정하여 이민을 금지하였다.
- 4) 고종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이 새로운 삶을 찾는데 찬성하였다.

4. 1876년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 연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03년 한국인의 하와이 이주가 공식 시작되었다. 개항한지 34년 만인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있으면 말해보자. 그리고 현지인들의 이주와 관련된 일이 있었는지도 이야기해 보자.

! 첫 공식 이민,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가다 ☆

<활동>

1. 대한제국의 첫 공식 이민이 시작된 때는? **답 2**

- 1) 1876년 2) 1902년 3) 1905년 4) 1910년

2. 아래 사진의 배는 하와이 이주민을 태운 배이다.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답 3**

- 1) 운요호 2) 제너럴 셔먼호 3) 젤릭호 4) 인디펜던트호



3.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1) 미국 서부지역에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설탕 수요도 크게 늘었다.
- 2) 한국에 온 감리교 목사 등이 한국인의 이주에 도움을 주었다.
- 3) 1882년 미국정부는 일본인 배척법을 제정하여 이민을 금지하였다.
- 4) 고종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이 새로운 삶을 찾는데 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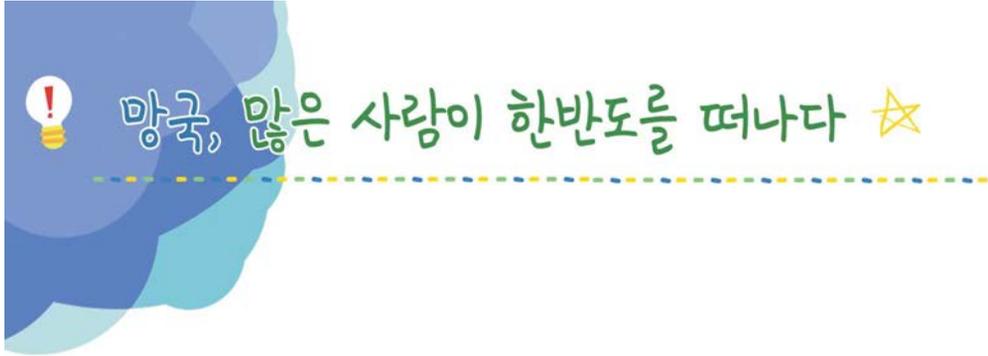
답 3) 1882년 중국인 이민금지법 제정



4. 1876년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 연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03년 한국인의 하와이 이주가 공식 시작되었다. 개항한지 34년 만인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있으면 말해보자. 그리고 현지인들의 이주와 관련된 일이 있었는지도 이야기해 보자.

3 차 시

독립을 위해 이주를 가다



 수업 목표

1910년 일본에 나라가 망한 이후 한인의 이민은 이전의 하와이 이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곳으로 많은 사람이 한반도를 떠나 새로운 생활공간을 찾아 이주하였다. 여기에서는 1910년부터 1931년 이전까지 한인의 해외 이주 현황에 대해 공부해 본다.

- 한인이 주로 이주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자.
- 이주한인이 정착하는 과정을 지역별로 확인해 보자.
- 이들 지역을 서로 비교하며 그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보자.
- 이주한인의 정착과 민족운동을 연관 지어 파악해보자.

 생각 열기

1910년은 한인의 이민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해였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나라가 망한 현실은 사람의 정체성과 함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였다. 나는 한인인가, 아니면 일본인인가. 일본이 싫어서, 아니면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해외로 떠난 사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갔다. 일본이 지배하는 동안 해외로 떠난 한인은 어디에 정착하여 무엇을 하며 살아 갔을까?



교수 학습 과정

※ 만주,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

한인의 만주 이주는 1910년 이전에도 활발하였다. 19세기 들어 조선의 정치가 문란하고 가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에 인접한 사람들은 만주와 시베리아로 이주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또한 20세기 들어 청의 군대가 만주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군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원래 청 왕실은 자신의 발상지인 만주를 신성한 곳으로 간주하여 출입 자체를 금지했는데, 세금을 거두고자 한인의 이주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봉금(封禁) 해제라 말한다.

처음 만주에 이주한 한인은 아침에 강을 건너가 농사를 짓고 저녁에 돌아오거나, 농사철인 봄에 강을 건너가 가을걷이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가족이민이 조금씩 늘어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주자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에 가까운 곳에 정착하였다. 이주자들의 출신지도 압록강 너머에는 평안도, 두만강 너머에는 함경도 출신자가 많았다. ‘일송정 푸른 술은 …’으로 시작되는 노래 ‘선구자’의 배경지인 용정도 이 즈음 형성되었다.

한국병합 이후 한인의 만주 이주는 급속히 늘어났다. 매년 평균 1만 3천여 명이 늘어날 정도였다. 특히 한국 병합과 3·1운동이 있었던 1910년과 1919년에는 3만여 명이 이주할 정도였다. 이들은 이전의 이주자와 달리 만주의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가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가운 물에서도 논농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의 장춘, 길림, 하얼빈 일대까지 이주한인이 진출할 수 있었던 데는, 쌀농사가 밭농사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사실을 안 중국인 지주들이 한인의 농사기술을 필요로 했던 것도 이유였다. 이에 따라 농농사 경험이 풍부한 남부와 중부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도 이주하였다.

민족운동가들도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으면서도 강만 건너면 고국 땅인 만주를 주목했다. 이주한인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경제적인 측면도 주목하였다. 항일운동의에 하는데 필요한 안정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주한인과 민족운동가들은 새로운 정착지에 가면 반드시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는 전통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서당이 아니라 서구식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그래서 학교는 근대적 민족의식과 민주주의를 갖춘 새로운 항일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었다. 한인의 학교는 대부분 곧 독립운동가 양성소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 대표적인 학교가 만주에서 최초의 한인 학교인 북간도의 서천서숙(1906),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서간도의 신흥학교(1911)였다.

※ 일본, 일용직 노동으로 돈으로 벌기 위해 가는 곳

1910년 일본에 거주한 한인은 2천5백 명 정도였다. 한국병합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이 꾸준히 늘어 1922년에는 6만 명 가까이 될 정도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경제가 호황 국면에 진입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한인 이주자가 메웠기 때문이었다. 1922년 12월 일본정부가 ‘자유도항제’를 실시하자 일본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 3년만인 1925년에 이르면 두 배가 넘는 13만4천명이나 되었다. 한인의 일본 이주는 만주 이민과 비교하면, 농촌에 정착하는 가족이민이 아니라 도시에서 노동하는 개인이민 형태였다. 이들 가운데 8할은 만주지역 이주자와 달리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이었다.



망국, 많은 사람이 한반도를 떠나다 ☆

※ 미주의 대한민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정 공급소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운동 단체는 안창호, 박용만 등이 중심되어 만든 대한민국민회였다. 국민회는 1912년부터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은 1년에 한 사람당 5원=5달러의 의무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가 아니라 국민된 의무로서의 ‘의무금’을 말한 것이다.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하던 한인 노동자가 한 달에 20달러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금은 매우 큰 비중이었다. 특히 가정을 갖는 사람이면 그 부담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이렇게 의무금을 강조했을까?

“지나간 양년에 우리가 의무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하였으면 우리 단체가 양년 동안에 얼마나 더 흥왕하며 유력하였사오리까. 이 말이 어찌하면 의무금만 각각 잘 내면 독립을 하나 하고 혹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돈 오원으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무를 중히 여겨 잘할 지경이면 이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이 일제히 합한 것이라, 세상에 그 나라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이 합할 지경이면 무슨 일에 두렵고 어려움이 있으리오.”(國民報, 1914.2.7.)

의무금은 그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정성을 확인하고 서로의 단결을 강화하려는 매개물이자 상징이었던 것이다.

국민회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무금으로 1인당 1년에 1달러를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시정부의 노동국에서 총판이란 자리에 있던 안창호는 1921년 2월 임시정부에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곳은 국민회 뿐이라고 말하며, 미주지역 한인사회가 1년에 최대 3만5천달러 정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실제 국민회는 미주지역 한인 사회에서 1918년 11월부터 1922년 4월까지 민족운동 자금으로 모두 24만 8천달러를 모집할 정도였다. 당시 국내와의 연결 시스템이었던 임시정부의 연통제가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무너졌고, 만주지역의 민족운동 단체는 좌우를 불문하고 자신의 존립기반을 위해 운동자금을 사용하고 있어 임시정부에 의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 당시로서는 임시정부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경비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정된 곳이 미주지역 한인사회였던 것이다.

※ 연해주, 동토의 땅을 개척한 사람들

연해주 일대에 한인의 이주는 18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08년경 4만5천여 명에 이르렀다. 이주한인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다. 제정러시아정부는 한인이 미개척지를 개간하는 조건으로 이주한인의 장기 체류를 허락 하였지만, 귀화를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4만5천여 명의 한인 가운데 1만6천여 명만이 귀화하였다.

연해주에 이주한 한인들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식민지가 되자 1911년 권업회(勸業會)라는 민족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한인사회의 단결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제정러시아정부는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모든 한인단체를 해산하였다. 이에 따라 연해주의 민족운동가들은 대부분 만주나 상해 등지로 가서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1917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 처음 일어났다.

<활동>

1. 다음 가운데 만주의 대표적인 민족학교는 ?

- 1) 금릉학교 2) 나성학교 3) 인성학교 4) 서전서숙

2. 이주와 민족운동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 1) 미주지역 한인사회는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의무금을 납부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큰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 2) 제정러시아정부는 연해주를 개발할 목적으로 한인의 이주를 통제하지 않았다.
- 3) 차가운 물에서도 모내기를 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만주의 깊숙한 곳까지 한인의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 4)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경제적 호황국면에 들어선 일본은 한인의 이주를 받아들여 노동력의 부족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었다.

3. 다음 지도의 민족운동 단체와 이민에 관해 맞게 설명한 것은?



- 1) 압록강에 인접한 중국 땅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였다.
- 2) 노래 선구자의 배경인 용정은 참의부의 활동구역이다.
- 3) 이들 단체의 경제력은 차가운 물에서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 4) 만주에는 개인이민이, 일본에는 가족이민이 많았다.

4.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한국사와 동아시아 지역사, 그리고 세계사와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한다. 역사에서는 이때의 전쟁을 '세계(世界)''대전(大戰)'이라 부른다. 미국이 참전하고, 유럽에서만 일어난 전쟁인데 왜 이때의 전쟁을 세계대전이라 부를까. 유럽의 열강이 지배하고 있던 세계 여러 곳의 식민지들이 모두 이 전쟁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 영국의 식민지 인도 사람이 모두 유럽에 가서 전쟁에 참전하였다. 일본도 독일에 선전을 포고하고 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청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독일군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획득하였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가는 제1차 세계대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한인의 이주와 비교하며 설명함으로써 한국사와 지역사, 세계사와의 연관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망국, 많은 사람이 한반도를 떠나다 ☆

<활동>

1. 다음 가운데 만주의 대표적인 민족학교는? **답 4) 동만주=북간도에 있었던 학교**
- 1) 금릉학교 2) 나성학교 3) 인성학교 4) 서전서숙
2. 이주와 민족운동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답 2) 제한적 허용이었다.**
- 1) 미주지역 한인사회는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의무금을 납부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큰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2) 제정러시아정부는 연해주를 개발할 목적으로 한인의 이주를 통제하지 않았다.
 3) 차가운 물에서도 모내기를 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만주의 깊숙한 곳까지 한인의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4)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경제적 호황국면에 들어선 일본은 한인의 이주를 받아들여 노동력의 부족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었다.
3. 다음 지도의 민족운동 단체와 이민에 관해 맞게 설명한 것은?



- 1) 압록강에 인접한 중국 땅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였다.
 2) 노래 선구자의 배경인 용정은 참의부의 활동구역이다.
 3) 이들 단체의 경제력은 차가운 물에서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4) 만주에는 개인이민이, 일본에는 가족이민이 많았다.

답 : 3)

1)-평안도, 2) 정의부, 4) 만주-가족이민, 일본-개인이민



4.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한국사와 동아시아 지역사, 그리고 세계사와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1914년부터 1918년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한다. 역사에서는 이때의 전쟁을 '세계(世界)' '대전(大戰)'이라 부른다. 미국이 참전하고, 유럽에서만 일어난 전쟁인데 왜 이때의 전쟁을 세계대전이라 부를까.

유럽의 열강이 지배하고 있던 세계 여러 곳의 식민지들이 모두 이 전쟁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식민지 베트남, 영국의 식민지 인도 사람이 모두 유럽에 가서 전쟁에 참전하였다. 일본도 독일에 선전을 포고하고 전쟁에 참전하였다. 중국의 산둥반도에 있는 청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독일군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획득하였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가는 제1차 세계대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조사해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한인의 이주와 비교하며 설명함으로써 한국사와 지역사, 세계사와의 연관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수업 목표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만주사변 때부터 1945년 연합국에 항복할 때까지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동원되었을까. 여기에서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집행한 강제동원의 양상을 검토해 본다.

-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은 한인의 만주 이주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
-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한 일본은 식민지 조선사회를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바꾸어 갔을까?
-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의 아시아태평양전쟁 때 얼마나 많은 한인이 어디로 강제동원되었을까?

생각 열기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세웠다. 1937년 베이징과 상하이 등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이어 193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차이나지역을 침략하였다. 1941년 말레이시아와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15년 동안 일본은 쉬지 않고 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그들은 이에 필요한 사람, 물자를 일본 내에서만 동원하여 충당할 수 없었다.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사람의 동원에서 식민지 조선의 위치는 특별하였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확대하며 한인을 어디로, 얼마나 동원했을까?



교수 학습 과정

※ 만주침략, 대규모의 계획적인 이민(국책이민, 國策移民)을 실시하다.

한인의 만주 이민은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이 큰 전환점이었다. 일본은 본토로 한인이 이주하는 것을 억제하고 대신에 만주로 대규모 이주를 추진하기 위해 이전에 없었던 계획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했던 이제까지와 달랐다. 특히 일본은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개척민이란 이름으로 강제성을 은폐한 채 적극적으로 대규모 이주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민 담당자는 개척민이란 신규 이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할당 인원을 채우기 위해 사기를 치거나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이주자가 정착지를 스스로 개간하고 집을 지어야 하는 등 모집 당시 '몸만 가면 될' 것처럼 선전했던 것과도 달랐다.

이민자가 정착한 곳은 모두 집단부락이었다. 집단부락에서 연대책임제 적용되었다.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로 이동하고 귀가하는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만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도 다시 한 곳에 모아 집단부락을 만들어 통제하였다. 1930년대 말에 가면 집단부락에 수용된 사람이 중국인을 포함해 5백만 명에 달하였다. 만주는 거대한 수용소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이민은 개척(開拓)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동원(動員)이었고, '식민(植民)으로서의 이주'였다.

강제 이민은 이주한인의 항일적 태도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던 민족운동을 압박하고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집단부락의 설치는 민족운동과 대중을 분리시키는 정책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침략전쟁이 장기화되고 태평양까지 확대되면서 개척민의 이름으로 강제된 일본의 대규모 이민 정책은 지속될 수 없었다. 공업화 또는 자본주의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강제된 국책이민이었으므로 일본이 패전한 직후 집단부락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한편, 만주침략이 '만주분'이 일어났다. 일부 한인은 만주드림을 꿈꾸며 갔습니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관료와 교사를 비롯해 고학력의 한인이 출현하여 만주국을 기회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도시로의 이주가 기본적으로 이주자의 자발적 선택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같은 시기 농업이민과 달랐다.

※ 중일전쟁, 조선사회를 전시 총동원 사회로 바꾸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사회를 총동원체제로 바꾸어갔다.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을 결성하였다. 연맹의 맨 아래에는 10가구를 1개 반으로 한 애국반이 결성되었다.

전쟁을 위한 총동원사회로 바꾸어가는 구체적인 정책은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한글과 한국사를 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청년을 군대로 끌고 가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하였다. 충성스러운 천황의 신민(臣民)을 기른다는 명분으로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하고 천황이 있는 도교를 향해 매일 절을 하도록 하였다.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게 하는 창씨개명도 실시하였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고자 1938년 5월부터 '할당모집'이란 이름으로 강제동원도 실시하였다.

! 강제 동원, 강제 이주 ☆

※ 아시아태평양전쟁,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한인을 강제동원한 전쟁

식민지 조선에서 총동원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침략정책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일본은 특히 전쟁을 중국에서만 아니라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병력을 더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할 때 일본군 병력은 32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킬 때는 1백만 명이 넘어 갔다. 7년 사이에 3배로 팽창한 것이다. 병력의 증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941년 연합국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2백만 명을 넘어 섰다. 4년 사이에 2배 증가한 것이다. 이후 전황이 더욱 불리 해졌지만 병력 동원은 더욱 늘어나 1943년 3백만 명, 1944년 5백만 명, 마침내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당시 일본군 병력은 8백만 명이 넘었다.

병력 동원은 특정 연령대의 남성을 집중적으로 군대에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연령대의 남성은 산업현장, 특히 남성의 근력이 필요한 토목, 광산, 조선과 같은 중공업 분야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다. 할당모집(38.5-45.4), 국민징용(39.10-45.4), 관알선(42.2-45.4)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된 수십만 명의 한인은 이런 곳에 집중 배치되었다. 1944년 시점에서 국민징용을 거부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징병과 같은 성격의 노동력 동원정책을 실시하였다. 동원된 한인은 높은 임금을 업무도 내지 못한 채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작업장인 탄광과 건설 현장 등에 대거 투입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러다 목숨을 잃더라도 그에 대한 보답은 아무 것도 없었다.

동원된 사람 가운데는 여성도 있었다. ‘몸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란 뜻의 정신대(挺身隊)는 여성의 강제동원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기에 속아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란 존재는 일본인의 공격적인 성의식,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를 문화적 배경으로 하는 유례없는 반인륜 범죄행위를 상징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민만으로 병력을 충당할 수 없어 1944년부터 한인, 1945년부터 타이완인을 상대로 징병을 실시 하였다. 한인의 경우 전투 병력으로 징병당한 9만 명을 포함해 일본이 패전할 당시까지 40만 명 가량 동원되었다. 이들 가운데 5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도 있다. 군대를 위해 일하는 민간인이어서 군대의 법률로 통제 받는 사람으로 오늘날 한국군의 군무원에 해당하는 군속(軍屬, a civilian attached to the military)도 있었다. 군속은 약 20만 명이 동원되어 7만 명이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들은 침략국가 일본 제국주의의 승리를 위해 강제동원된 사람이었다. 민족의 ‘적’을 위해 ‘나’를 희생시켜야 했던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는 더욱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

※ 고려인, 중앙아시아에 강제로 정착하다

1937년 소련의 스탈린은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면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이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할 줄 모르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18만 명의 한인은 자신의 살림도 챙겨가지 못한 채 6천km나 떨어진 중앙아시아까지 위생시설 하나 없는 기차에 실려 가야만 하였다. 이동하는 도중이 피부병이 번져 수많은 노약자, 어린이가 죽었다. 거의 사막지대나 다름없는 곳에 버려진 그들은 토막집을 짓고, 손으로 물길을 만들어가며 논농사를 시작하였다. 1952년까지 거주제한을 받아 고등교육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 후손을 ‘고려인’이라 부른다.



<활동>

1. 일본이 이용한 인력동원 방법이 아닌 것은?

- 1) 할당모집
- 2) 관알선
- 3) 설득
- 4) 국민징용

2. 다음 도표는 강제동원의 현황을 나타낸다. 한인이 강제동원되지 않은 곳은?



- 1) 사할린
- 2) 인도
- 3) 인도네시아
- 4) 남양군도

3. 전쟁과 사람의 이동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 1) 1932년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대대적인 모집활동을 벌여 한인의 자발적인 이주를 권장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 2) 일본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1945년부터 한인과 타이완인을 상대로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 3) 소련의 스탈린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첩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 4)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여성 가운데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다.

4.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한국사와 동아시아 지역사, 그리고 세계사와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며 유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1941년 일본군이 말레이시아에 상륙하고 하와이의 미군을 공격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역사는 이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이라 말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전쟁이었다. 중국과 소련에서는 사망자의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인의 경우도 그때까지 겪은 역사적 경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희생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동한 사람도 가장 규모가 컸다.

-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말해보자.
- 우리의 역사와 비교하며 세계사적인 격동 속에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토론해 보자.

! 강제 동원, 강제 이주 ☆

<활동>

1. 일본이 이용한 인력동원 방법이 아닌 것은? **답 3)**

- 1) 할당모집 2) 관알선 3) 설득 4) 국민징용

2. 다음 도표는 강제동원의 현황을 나타낸다. 한인이 강제동원되지 않은 곳은? **답 2)**



- 1) 사할린
2) 인도
3) 인도네시아
4) 남양군도

3. 전쟁과 사람의 이동에 관해 맞게 설명한 것은?

- 1) 1932년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대대적인 모집활동을 벌여 한인의 자발적인 이주를 권장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 2) 일본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1945년부터 한인과 타이완인을 상대로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 3) 소련의 스탈린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첩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 4)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여성 가운데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다.

답 4). 1)-강제적 2) 한인-1944년 3)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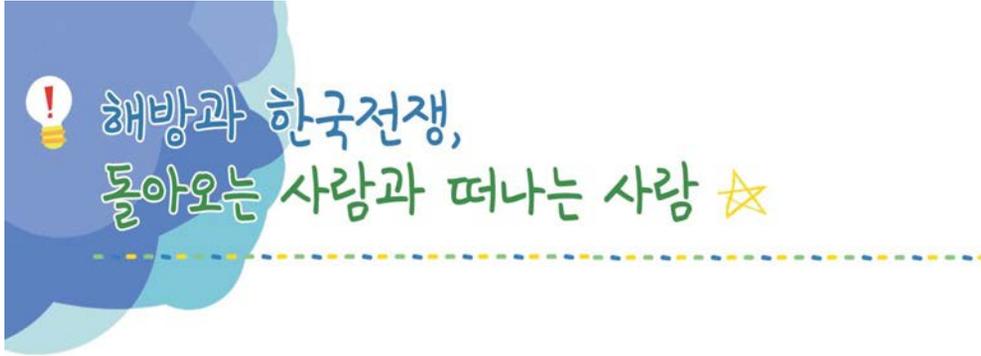


4.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한국사와 동아시아 지역사, 그리고 세계사와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며 유럽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1941년 일본군이 말레이시아에 상륙하고 하와이의 미군을 공격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역사는 이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이라 말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전쟁이었다. 중국과 소련에서는 사망자의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인의 경우도 그때까지 겪은 역사적 경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희생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동한 사람도 가장 규모가 컸다.

-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말해보자.
- 우리의 역사와 비교하며 세계사적인 격동 속에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토론해 보자.



수업 목표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한반도로 돌아오는 한인, 한반도에서 떠나야만 하는 일본인이 매우 많았다. 2년여간 진행된 한인의 귀환과 일본인의 귀국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리해보자. 그리고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고아들의 이주도 알아보자.

- 1945년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어떤 원칙을 갖고 인구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했는지 파악해보자.
- 한인과 일본인의 귀환과 귀국 과정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알아보자.
-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의 해외 이주에 대해 살펴보자.

생각 열기

1945년 일본의 패전은 패전국 일본인만이 아니라 강제동원되어 해외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던 한인의 귀환문제를 중대한 사안으로 만들었다.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경제, 위생, 치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한인의 귀환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한반도로 돌아왔을까? 그들이 귀환하는 동안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의 운명은 어떠했을까?



교수 학습 과정

※ 귀환자의 규모

패전 이후부터 1946년까지 일본인 귀환자는 최소한 64만 명에서 최대 700만 명 정도 되었다. 당시 일본인 전체 인구가 7천만 명 가량 되었으니 전체 인구의 9~10%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한인 귀환자는 240만 명 가량이 돌아왔다. 당시 한인 전체 인구가 2천5백만 명이 되지 않았으니 대략 10% 정도 차지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바다를 건너야 했다. 2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모두 한반도와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1천만 명 정도의 인구 이동은 세계사에서도 보기드문 사건이다.

※ 귀환 양상 - 귀환 출발지와 도착지

한인은 미국과 시베리아에서도 귀환했으며, 절반이 넘는 140만 명 정도가 일본에서 부산으로 돌아왔다. 만주에서의 귀환자는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인의 이동은 일본 제국주의 질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다를 건너 귀환하는 사람은 주로 부산으로 들어왔으며, 일부가 인천, 군산, 목포, 여수로 들어왔다. 한편, 일본인은 10명 가운데 4명이 중국 본토와 만주에서 돌아간 사람이었다. 한반도에서 귀환자는 10명 가운데 1명이 조금 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하카다와 사세보로 입국했다. 연합국은 귀환자를 통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무기의 반입 등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을 차단하고자 특정 항구를 도착지로 지정한 것이다.

귀환지별로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사할린과 같은 소련 점령지역에서는 귀환이 봉쇄되었다. 동남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인과 동일 조건 하에 비교적 체계적으로 송환되었다. 중국 본토에서는 상당수가 현지인의 배타적인 태도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생존을 위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소련군이 점령한 만주에서는 개별적으로 귀환한 사람도 있었다.

※ 귀환 양상 - 군인과 민간인

연합국은 사용 가능한 배도 한정된 데다, 전쟁을 확실히 종결짓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군인을 우선 귀환시켰다. 38도선 이북과 만주의 일본군과 함께 시베리아로 끌려가 1948년에서야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만주와 북한에서 바로 귀환한 사람도 있었다. 38도선 이남의 일본군은 1945년 10월까지 모두 일본으로 돌아갔다.

만주 봉천에 설치된 임시수용소에 있던 한인은 소련군 소속 한인 여성 장교 때문에 3일만에 수용소를 나온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질문자 : 나올 때 이제 나가지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것을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포로수용소에서 나왔어요?

답변자 : 조선여자가 소련 모스크바에서 왔다고 이러면서 전부 조선사람 나오라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태극기 붙이고 이름 붙이고 다 해서 그래서 전부 다 나가니깐 말이지, 그냥 막 외출증 없이 나가라하는 기라. 그래 나가서 서탑에 가면 서탑이라는 데 가면 전부 다 느그 받아주게 되가 있으니께네 그리 가라고. 봉천 서탑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

민간인의 귀환은 1946년 들어 본격화했다. 때문에 한인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귀환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다 침몰 사고를 당하거나, 더딘 이송 등으로 그냥 일본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날 연변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받아 정착한 사람도 많았다. 중국 본토에서는 수용소에 수용되어 친일 협력을 조사받는 사람도 있었다.



해방과 한국전쟁, 돌아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

※ 귀환 양상 - 수용소 생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직후 사람들이 바로 귀환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도 1년여를 수용소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예를 들어 태국의 방콕으로 모여든 700명은 1946년 5월에서야 고국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하와이의 수용소에서는 1년 이상 된 사람들도 많았다.

하와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자유한인보>>라는 주보(週報)도 발행하는 자치활동도 벌였다. 미군과 영국군이 점령한 지역에 수용된 한인은 영어과 상식도 배웠던데 비해, 시베리아로 간 한인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타이완의 타이베이에 모여든 한인은 '조선 청년 독립대대'를 구성하고 1946년 3월까지 군사훈련을 하는 등 다채롭게 생활하였다.

모표에는 획일적으로 태극을 달았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단체활동을 많이 벌였다. 그 후부터는 일본군들의 천대를 받지 않았다. 도리어 조선 청년들을 못살게 학대하던 일본 장교놈들을 불러내다가 톡톡히 때려주고 교훈을 주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일본군들이 우리 조선 청년을 두려워했다.

매일 아침마다 노랫소리가 우렁차고 축구운동회, 시사 강연회, 문화학습, 오락회, 유람관광 등을 다채롭게 계획하여 일본 군대에 온 이래 처음으로 상쾌한 나날, 뜻 있는 나날을 보았다.

※ 남한에서 일본인의 귀환

패전국 일본인의 귀환은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 따라 '일괄송환'과 '집단 억류-압송'이라는 상반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한반도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공간이었다.

남한의 일본인은 세화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귀환했다. 미군정은 10월까지 군인의 송환을 끝낸데 이어 1946년 3월까지 일본인의 송환을 대체적으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기업 등의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하고 몰래 돌아가거나, 패전의 울분을 못 참고 조선인을 죽이는 일본인도 있었다. 때문에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인정하던 남한 여론이 시간이 흐르면서 공격적으로 바뀌어 갔다. 귀환한 일본인은 1인당 현금을 1,000엔 이상 소지할 수 없었다. 미군이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 한국전쟁과 '전쟁부인', '전쟁고아'

8·15해방 후 한국인이 가장 선호한 정착지는 미국이었다.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될 때까지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 이민자 10명에 8명은 전쟁부인, 전쟁고아였다. 1950년부터 1965년 사이에 이주한 1만5천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들이었다.

하지만 미주지역 한인사회는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해방 당시 1만여 명에 불과했던 미주지역 한인사회가 독립이란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급격히 해체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고아로 미국에 온 사람이 10대를 지나면서 점차 민족적 인종적 주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정신적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활동>

1. 한인의 귀환 과정과 상관이 없는 말은?

- 1) 부산
- 2) 세화회
- 3) 시베리아 수용소
- 4) 자유한인보

2. 해방 이후 귀환과 이민에 관해 잘못 설명한 것은?

- 1)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인의 미국 이주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2)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 따라 한인의 귀환 방식이 상당히 달랐다.
- 3) 일본의 패전 직후 귀환하는 한인은 전체 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할만큼 큰 비중이었다.
- 4) 미군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일본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1천엔 이상을 반입할 수 없게 하였다.

3.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한국사와 동아시아 지역사, 그리고 세계사와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설명해 보자.

민족운동가 안재홍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다음 날인 8월 16일에 경성라디오 방송국에서 연설할 때, 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5백만 조선동포가 일본국민 제씨와 한가지로 수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 재주 일백 기십만의 일본주민 제씨의 생명 재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총명한 국민 제씨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인 바인 것을 의심치 아니합니다. 제위의 심대한 주의를 요청하여 마지아니합니다.

- 위 언급의 핵심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에 대한 학대나 폭행은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 남아 있는 한인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 35년의 지배를 받으며 갖은 악행과 비인간적인 강제동원에 시달렸던 당시의 한인의 심정으로 돌아가, 안재홍의 제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
- 토론할 때는 자신의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1945년과도 비교하며 말해보자.

4. 다음 사진은 1945년 해방 이후 38도선의 모습입니다. 오늘과 비교하며 자유롭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 해방과 한국전쟁, 돌아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

<활동>

1. 한인의 귀환 과정과 상관이 없는 말은? **답 2)-일본인**
- 1) 부산 2) 세화회 3) 시베리아 수용소 4) 자유한인보

2. 해방 이후 귀환과 이민에 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답 1) - 개별적 이민**

- 1)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인의 미국 이주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미군과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 따라 한인의 귀환 방식이 상당히 달랐다.
 3) 일본의 패전 직후 귀환하는 한인은 전체 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할만큼 큰 비중이었다.
 4) 미군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일본인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1천엔 이상을 반입할 수 없게 하였다.

3. 다음 설명을 참조하여 한국사와 동아시아 지역사, 그리고 세계사와의 연관성을 비교하며 설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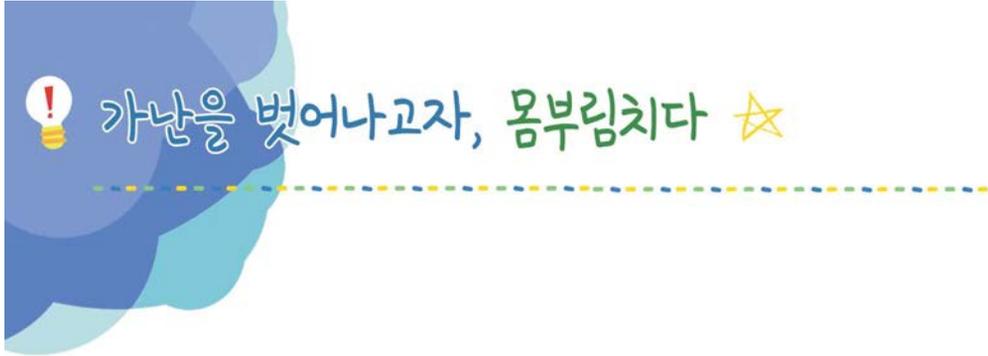
민족운동가 안재홍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다음 날인 8월 16일에 경성라디오 방송국에서 연설할 때, 끝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5백만 조선동포가 일본국민 제씨와 한가지로 수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조선 재주 일백 기십만의 일본주민 제씨의 생명 재산의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총명한 국민 제씨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인 바인 것을 의심치 아니합니다. 제위의 심대한 주의를 요청하여 마지아니합니다.

- 위 언급의 핵심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에 대한 학대나 폭행은 일본을 포함하여 다른 곳에 남아 있는 한인이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 35년의 지배를 받으며 갖은 악행과 비인간적인 강제동원에 시달렸던 당시의 한인의 심정으로 돌아가, 안재홍의 제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
- 토론할 때는 자신의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1945년과도 비교하며 말해보자.

4. 다음 사진은 1945년 해방 이후 38도선의 모습입니다. 오늘과 비교하며 자유롭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수업 목표

1960년대는 한국인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의 여러 곳으로 이주를 시작한 때이다. 1990년대 들어 세계화가 진행되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세계경제에 우뚝 서기 이전까지 이민의 국가별, 대륙별 특징을 알아보자.

- 미국 이민의 특징적인 양상을 알아보자.
-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에 파견되는 과정을 통해 독일의 한인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 중남미 이민은 농업이민이었다. 지금의 중남미지역 한인사회와 비교하며 이주의 역사를 알아보자.

생각 열기

196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바뀌어 갔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많은 한국인은 이즈음부터 다양한 이유로 여러 국가에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의 목적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주한인의 현지 정착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이주한 미국, 그리고 그에 인접한 캐나다, 유럽의 독일, 중남미의 브라질 등지로 거주자를 옮긴 이민의 특징은 무엇일까?



교수 학습 과정

※ 미국, 1965년 이민법의 개정

1965년 미국 정부는 '이민과 귀화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다양한 민족 집단의 구성비에 따라 신규 이민 비자를 발급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가에 일정한 수의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민 제도를 변경하였다. 새로운 이민법은 여러 방면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회 흐름과 같은 선상에 있었다.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되면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배경에 커다란 특징적인 변화가 생겼다. 우선, 그때까지 이민자의 81%를 차지하던 유럽 출신을 대신하여 아시아와 중남미 출신자의 이민이 급증하였다. 이민법이 적용된 최초 10년 동안 유럽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25%를 차지한데 비해, 아시아와 중남미 출신자는 각각 30%, 40%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문직과 숙련된 이민자를 중심으로 배정되던 비자 발급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을 초청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달러쇼크, 오일쇼크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미국 정부가 노동 시장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직업 이민 대신 가족이 재결합하는 이민의 비율을 확대한 결과였다.

※ 미국 이주 양상의 특징적인 변화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한인의 미국 이민 양상도 크게 바뀌어 놓았다. 이때까지 한인의 미국이민은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이 가족을 초청하는 비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새로운 이민법이 시행된 최초 10년 동안에는 전체 이민자의 30% 가량이 취업 이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들이 거주 기간 5년을 보낸 뒤 시민권을 획득하고 한국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었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미국 이민이 본격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 초청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에 의해 이민하는 사람보다 사회 경제적 배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인 이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대도시에서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주택, 직업, 종교, 여가 등을 해결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1970년대 들어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유지함에 따라 두텁게 형성되어 가던 중산층 사이에서 미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이민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 미국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갔다. 그러나 1990년 미국이 이민법을 개정하여 미국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학력자, 전문직을 선호하면서 다시 화이트칼라 이민자의 비율이 늘어갔다. 특히 1997년 발생한 한국경제의 위환위기는 화이트칼라층의 미국 이민을 더욱 자극하였다. 더구나 영어라는 언어 획득을 선호하는 자녀교육의 영향도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

※ 재미한인의 존재 양상

재미한인은 특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의 대도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3할 이상이 모여 살고 있다. 다른 민족에 비해 비교적 짧은 이주사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경제활동을 벌인 결과 백인층보다 더 높은 연평균 소득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도 적극적이어서 고교를 졸업한 한인 자녀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하지만 1992년 LA폭언폭동의 희생양이었던 경험을 알 수 있듯이,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지역사회의 더욱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다 ☆

※ 캐나다, 다시 이민하는 사람이 많았던 이민지

캐나다는 미국이란 그늘에 가려 한국인의 시선을 제대로 끌지 못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국과 비슷한 시점인 1967년 이민법을 개정하여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사람에게 캐나다의 정책변화는 또 하나의 기회였다.

한국인의 캐나다 이민은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인 1965년 93명이 이주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한국에서 직접 이민 가는 사람보다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던 한인들이 캐나다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영주권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주한 사례도 많았다. 이들은 캐나다 한인사회 형성의 선구자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주한 한인은 몬트리올과 영어권 캐나다의 중심지인 토론토(1969년 2천여 명)에 주로 모여 살았다. 생계형 이민자가 많았으므로 취업과 사업에 유리한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고장 노동자로 취직하거나 편의점 등의 자영업에 종사하였다.

※ 중남미, 농업이민으로부터 시작된 교민사회

중남미 지역의 한인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이민은 농업이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이 산업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던 1960년대 초의 상황에서 농업이민에 대해 사람들이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다. 중남미 국가들도 이민자를 환영하였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았다. 특히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제 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이 없었다.

1962년 브라질농업이민이 부산항을 출발한 이래 200세대의 농업이민이 있었다.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도 이즈음 농업이민 있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황무지를 개간할 기본적인 자금, 농업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 농업이민에 실패한 사람들은 도시로 진출하여 봉제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세 나라의 한인사회는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 독일,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부터 시작된 교민사회

독일에 한인사회가 형성된 것은 1960년대 중반경 광부와 간호사 파견되면서부터였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독일측이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한 결과 한국의 노동력을 수요하기로 결정했기에 가능하였다. 1976년 독일정부가 집단 노동이주를 실질적으로 중단할 때까지 간호 인력을 1만여 명, 광산 노동자는 1963년 247명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23명이 파견되었다.

이후 독일의 한인 이주는 유학생 등 개별적인 이주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학위를 받으면 바로 귀국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독일 또는 유럽 지사 주재원과 언론사 특파원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있었다. 독일이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이었고, 경제 수준도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잠시 머무르는 체류자의 성격이 강하여 한인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활동>

1. 미국에 한인의 이주가 본격화할 수 있는 이민법이 제정된 시기는?

- 1) 1960년
- 2) 1965년
- 3) 1970년
- 4) 1963년

2. 1960년대 이후 한인의 해외 이주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 1) 중남미지역으로 이주한 한인은 전문직이 많았다.
- 2) 서독에서 한인사회가 형성된 것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면서였다.
- 3) 초창기 캐나다에 이주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이주했다 다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 4) 미국에 한인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코리아타운이 몇몇 도시에 생겼다.

3.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은?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되면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배경에 커다란 특징적인 변화가 생겼다. 우선, 그때까지 이민자의 81%를 차지하던 유럽 출신을 대신하여 ()와 () 출신자의 이민이 급증하였다. 이민법이 적용된 최초 10년 동안 유럽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25%를 차지한데 비해, ()와 () 출신자는 각각 30%, 40%를 차지하였다.

4. 위 3번의 이민 경향이 나타난 이유를 말해보고, 자기 가족의 이주 동기와 비교해 보자.

5. 두 사진을 보고 196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민과 연관 지어 보고, 두 정착지를 비교해 보자.



그림1
1966년 서독 프랑크푸르트 공항. 간호사를 환영하는 모습.



그림2
1962년 브라질 이민자를 태우고 있는 치차렌카호(부산).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다 ☆

<활동>

1. 미국에 한인의 이주가 본격화할 수 있는 이민법이 제정된 시기는? **답 2)**
- 1) 1960년 2) 1965년 3) 1970년 4) 1963년

2. 1960년대 이후 한인의 해외 이주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답 1) 농업이민**

- 1) 중남미지역으로 이주한 한인은 전문직이 많았다.
- 2) 서독에서 한인사회가 형성된 것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면서였다.
- 3) 초창기 캐나다에 이주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이주했다 다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 4) 미국에 한인 이주자가 늘어나면서 코리아타운이 몇몇 도시에 생겼다.

3.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은? **답 아시아, 중남미**

새로운 이민법이 적용되면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배경에 커다란 특징적인 변화가 생겼다. 우선, 그때까지 이민자의 81%를 차지하던 유럽 출신을 대신하여 ()와 () 출신자의 이민이 급증하였다. 이민법이 적용된 최초 10년 동안 유럽 출신자가 전체 이민자의 25%를 차지한데 비해, ()와 () 출신자는 각각 30%, 40%를 차지하였다.

4. 위 3번의 이민 경향이 나타난 이유를 말해보고, 자기 가족의 이주 동기와 비교해 보자.

이유 - 국가별 이민쿼터.

5. 두 사진을 보고 196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이민과 연관 지어 보고, 두 정착지를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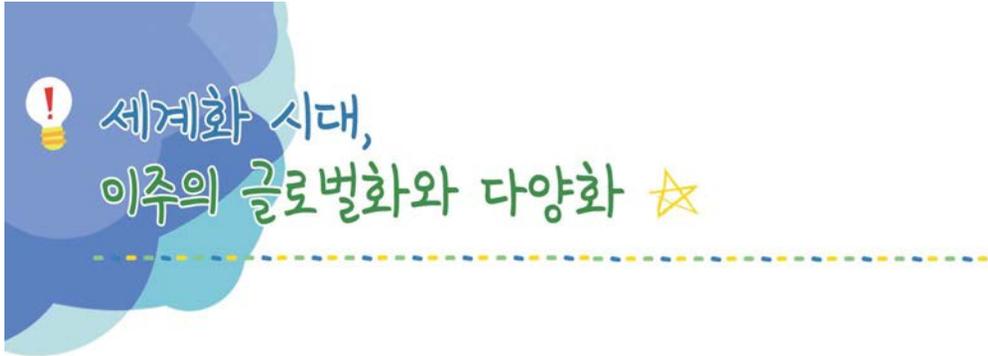


그림1
1966년 서독 프랑크푸르트 공항.
간호사를 환영하는 모습.



그림2
1962년 브라질 이민자를 태우고
있는 치차렌카호(부산).

답 가난,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노동이민, 농업이민을 떠났다.



수업 목표

한국경제는 1980년대에도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도 한국은 1996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삼성, LG,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등장하였다. 더구나 이때까지 갈 수 없었던 중국, 소련, 베트남을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국교를 수립하고 기업들도 매우 활발히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해외 이민지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 이민의 동기도 여러 곳에 경제적 이유를 비롯해 다양합니다. 여기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해외 이주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전반을 파악해 본다.

- 한국인이 진출한 국가는 모두 몇 개국?
- 한국인의 이주가 중국과 미국, 일본에 집중된 이유는?
- 1990년대 들어 한국인의 이주가 매우 활발한 국가는? 그 이유는?

생각 열기

1990년대 들어 냉전체제가 해체되며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각국은 세계화 시대에 들어섰으며 국가 정책을 여기에 맞추고 있다. 국가와 민족의 장벽이 낮아지면 자본과 기업의 이동이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도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는 모두 몇 나라일까?

교수 학습 과정

한국인은 2015년 현재 175개국에 7백 2십만 명이 진출해 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30개 국가와 이 가운데 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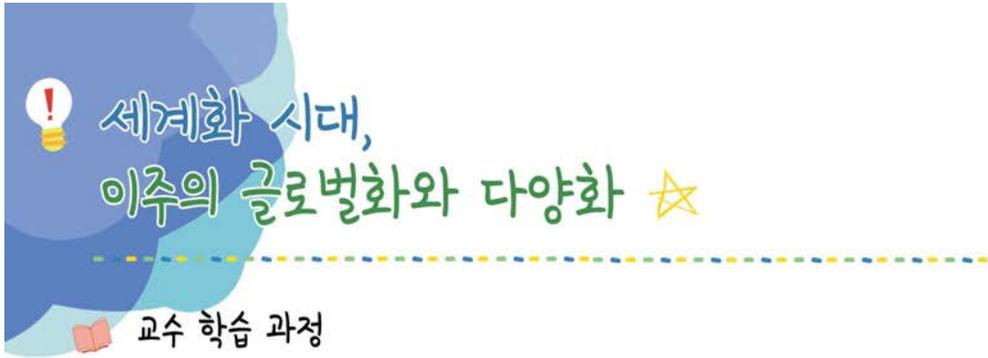
〈표 1〉 재외동포 현황(1~30위)

국가별	총계 (명)
세계	7,184,872
중국	2,585,993
미국	2,238,989
일본	855,725
캐나다	224,054
우즈베키스탄	186,186
러시아	166,956
오스트레일리아	153,653
베트남	108,850
카자흐스탄	107,613
필리핀	89,037
브라질	50,418
인도네시아	40,741
영국	40,263
독일	39,047
뉴질랜드	30,174
아르헨티나	22,730
태국	19,700
싱가포르	19,450
키르기스스탄	18,709
프랑스	15,000
우크라이나	13,103
홍콩	12,815
말레이시아	12,690
멕시코	11,484
아랍에미리트	10,356
인도	10,178
캄보디아	8,445
사우디아라비아	5,189
과테말라	5,162
파라과이	5,090
대만	4,828
이탈리아	4,148

〈표 2〉 아시아 국가들에서 재외동포의 변화 추이(명)

국가별/연도	2015	2001	1993
중국	2,585,993	1,887,558	1,927,278
일본	855,725	640,234	712,519
우즈베키스탄	186,186	230,800	198,055
베트남	108,850	6,226	498
카자흐스탄	107,613	99,700	105,150
필리핀	89,037	24,618	5,038
인도네시아	40,741	18,879	7,572
태국	19,700	9,870	2,055
싱가포르	19,450	4,960	3,654
키르기스스탄	18,709	20,000	19,010
홍콩	12,815	6,019	4,567
말레이시아	12,690	2,937	2,018
아랍에미리트	10,356	853	535
인도	10,178	1,646	385
캄보디아	8,445	400	-
대만	4,828	2,945	2,740

1. 〈표 1〉에 나온 국가들을 대륙별(동북아, 동남아,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중미, 남미, 서유럽, 동유럽, 아프리카)로 분류하고 서로 비교해 봅시다.
2. 〈표 2〉에 언급된 국가들에서 한인의 인구 추이에 관한 통계이다.
 - 2015년 현재 1,2,3위의 국가에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사적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봅시다.
 - 한인이 급속히 늘어난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를 말해봅시다.
 - 인구 추이에 큰 변화가 없는 국가들을 찾아봅시다.
3.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표 2〉의 특징과 비교하여 말해 봅시다.
4.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가 포함된 경우, 〈표 1〉에 나온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봅시다.



세계화 시대, 이주의 글로벌화와 다양화 ☆

교수 학습 과정

한국인은 2015년 현재 175개국에 7백 2십만 명이 진출해 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30개 국가와 이 가운데 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표 1>에 나온 국가들을 대륙별로 분류하여 보자.

새로운 이주자가 급속히 늘어난 곳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체된 곳은 일본, 중앙아시아, 러시아. 북미는 이전과 대비하여 꾸준히 증가

2. 이 가운데 <표 2> 언급된 국가들에서 한인의 인구 추이가 갖는 특징을 말해 보자.

- 2015년 현재 1,2,3위의 국가에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사적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봅시다.

중국 - 1992년 국교 수립 이후 한국 기업과 유학생의 대거 진출,

미국-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꾸준한 증가,

일본-1945년 해방 때 미귀환자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 유지.

- 한인이 급속히 늘어난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를 말해봅시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화, 한국 경제의 세계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 인구 추이에 큰 변화가 없는 국가들을 찾아봅시다.

일본,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3.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표 2>의 특징과 비교하여 말해보자.

4.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가 포함된 경우, <표 1>에 나온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자.



한글학교 역사교육 보조교재 및 캠프 프로그램 개발



III

P A R T

한글학교 역사교육 캠프 프로그램(시안)

1. 프로그램 개요
2.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세부사항
4. 참고

III PART

한글학교 역사교육 캠프 프로그램(시안)

1. 프로그램 개요

(1) 대상

재외동포 초·중·고등학생(단, 초등학생은 4학년 이상)

(2) 필요성

주말한글학교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전문성 있는 교사 및 시간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교과로서의 역사보다 정체성 교육의 일환으로 체험 학습을 우선시 하고 있다.

이에 역사문화캠프는 탐구 의식과 활동을 통해 한국계 현지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실 중심의 한국어 수업에서 벗어나 한국어를 활용하며 모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도록 하여 언어적 완성과 함께 새로운 탐구 및 자기 발견의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문화캠프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매우 드문 학생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제한성을 보완하고 비슷한 처지의 한국계끼리 모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목적

① 민족 정체성 정립과 자긍심 고취

한국의 언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와 민족 정체성 정립과 한국계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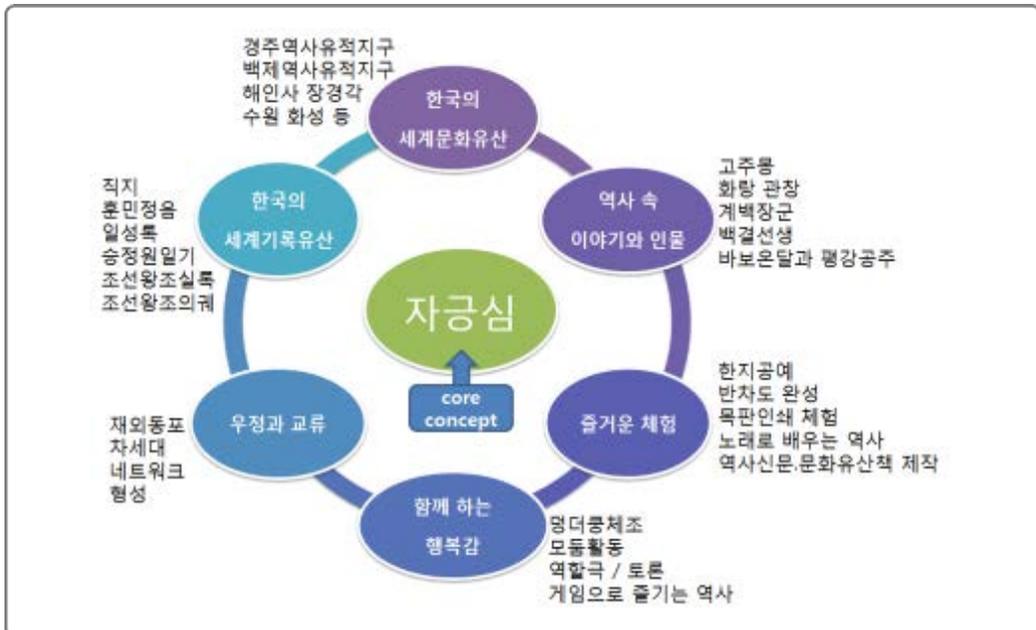
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② 역사·문화 교육 경험 공유를 통한 동질감 회복 및 탐구정신 함양
 유서 깊은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계 후세로서의 동질감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역사문화에 대한 탐구정신을 함양한다.

③ 차세대 인재 육성 및 네트워크의 장
 재외동포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차세대 인재 육성과 함께 한인커뮤니티의 차세대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한다.

④ 민족 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와 역사교육의 발전 방법 모색
 한인 사회에 민족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을 축적시켜 재외동포 역사문화교육의 발전적 방법을 모색한다.

(4) 프로그램 추진 방향 및 구성



본 프로그램은 재외동포 아동청소년의 정체성을 ‘한국계 현지인’, 즉 한국에 뿌리를 둔 현지 시민으로 규정하고 구성하였다. 현지에서 제대로 교육받기 힘든 한국의 역사문화를 역사교육 캠프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현지 문화와 한국문화를 조화롭게 종합하는 균형 잡힌 세계시민 육성 차원에서 기획하였음을 밝히며, 아래의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 ① 본 프로그램은 재외동포 아동청소년들에게 모국과 한국계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핵심 개념 및 기본 추진 방향으로 삼는다.
- ② 이를 위해 한국의 자산 중 세계가 인정하는 기록유산과 문화유산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여 그 우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정신적 가치로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 ③ 그러므로 학습 내용은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중심의 활동과 체험, 인물과 이야기를 통해 즐겁게 학습함으로써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갖는다.
- ④ 또한 우리 가락에 맞춘 체조를 하며 함께 아침을 열고, 모둠 수업을 통해 협동 정신을 쌓으며, 토론하고 게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탐구정신과 도전정신을 배양한다.
- ⑤ 이를 통해 참가자 간 우정을 쌓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발전적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이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5) 프로그램 운영 및 활용 방침

- ① 본 프로그램은 2박 3일용으로 구성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1일, 1박2일, 2박3일’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 추진력과 목표를 확실히 하였다.
 - 첫째 날은 ‘자랑스런 한국’을 주제로 한국의 개략적 역사와 대표적 문화유산을 체험한다. 1일만 시행할 경우 첫째 날 일정을 실시하면 된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 일정 중 유용하다 판단되는 수업과 교체 운영할 수 있다.
 - 둘째 날은 ‘살펴보자 우리 기록’을 주제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즐겁게 배우고 체험한다. ‘1박 2일’을 시행할 경우 첫째 날, 둘째 날 일정을 실시하면 된다. 그리고 셋째 날 일정 중 유용하다 판단되는 수업과 교체 운영할 수 있다.
 - 셋째 날은 ‘가보자 우리 유산’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과 관계된 기록유산을 함

계 배우고 캠프 기간에 배운 기록유산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든다.

* 2박 3일의 경우, 해산 시간을 당기기 위해 발표 연습을 둘째 날 저녁 이후로 하고 5, 6교시 시간을 조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② 한 수업 당 한 반을 운영하며,

- 특강 및 문화체험, 야외 수업을 제외하고, 한 반의 학생 수를 12~20명으로 한다(프로그램에 합반 가능 표시하였음).
- 반의 이름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과 같이 한국 역사와 관련된 국가명을 사용한다.
- 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체험 및 활동 위주의 수업이므로 인지적 능력이 변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게 구성하였다. 다만 아래의 변인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인원수가 많을 때는 학생의 수준 및 환경에 따라 여러 반으로 구성하고 동일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한다(예: 초등·중등 / 초급·중급·고급).

③ 한글학교 수업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수업 성격에 따라 모듈(4~6명)을 구성하여 모듈원 간에 협력하도록 한다.
- 수업 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동영상 자료 음향이 잘 구현되도록 확인한다.

④ 캠프장은 역사문화 체험 장소임을 느낄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한다(내용은 다음 쪽, 6)의 (1)에 명시함).

⑤ 캠프 기간 동안 한국어 사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학습 내용이 어려운 수준이면 현지어로 번역한 내용을 자료집에 추가한다.

⑥ 담임교사는 학생 출석을 상시 확인하고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한다.

⑦ 답임교사 및 강사 외 다음의 인력을 구성한다.

• 의료 인력

- 학생의 안전사고 대비, 의사 혹은 간호사(의료 경력이 있는 분으로 대처 가능)가 상시 함께 한다.

• 기타 인력

- 조리사
- 안전요원: 전문 안전 요원 외, 봉사직으로 한글학교 출신 및 한인 대학생 중에서 모집하여 한인 아동·청소년·대학생의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한다.

⑧ 자료집에 학생 정보를 넣어 행사 후에도 우정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캠프 참석을 위해 다음의 행정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점검한다.

• 캠프 공고

- 주최 측이 홈페이지 혹은 안내문, 기타 매체 등을 통해 공고 및 홍보

• 참가자 선정

- 정원 초과되었을 시에는 주최 측의 기준(선착순, 혹은 최초 참가 우선 등)에 따라 선정

• 참가자에게 구체 프로그램, 준비물, 유의 사항 등 발송

- 미성년 학생들이므로 특별히 안전에 관한 준비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긴급 상황 시 의료활동 동의서를 참가 신청서와 함께 받는다.
- 식단을 미리 공지하고 알레르기가 있거나 삼가는 음식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대체 음식을 마련하며, 관계자 및 답임은 숙지한다.

* 메뉴는 한식을 중심으로 구성함

(6)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환경 요건

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기간, 한국 역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전시함으로써 역사체험 공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전시 부스가 있어야 한다.

- ▶ 한국의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 전시관
 - 한국 지도에 해당 내용을 전시한다.
 - 학생들이 수업 후, 자유롭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활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학생들이 유산에 대한 소감을 붙임).
 - 박병선 박사, 안의·손흥록, 김영환 대령 등 우리 유산을 지킨 분들의 업적을 게시한다.
- ▶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역사관
 - 고주몽,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고구려), 화랑관창과 계백(신라), 백결선생(백제)과 관련된 시대 설명과 관련 인물 및 이야기를 전시한다.
- ▶ 학생 작품관
 - 학생들이 작업하고 활동한 내용을 전시한다.

- ② 강의실: PPT 실현 및 동영상 자료 구현이 가능해야 한다.
- ③ 입교식/수료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전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및 공터가 있어야 한다.
- ④ 위생적인 식사 공급 및 숙박 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곳이어야 한다.

(7) 안전 교육 및 유의사항

- ① 안전교육
 - 수업 시작 전과 수업이 끝난 직후 인원 점검을 한다.
 -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수업 장소 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도한다.
 - 캠프 중 명찰을 항상 착용하도록 한다.

② 유의사항 및 준비물

- 학생 준비물: 필기도구, 한국어 사전(스마트폰 사전 어플도 가능)
단, 한국어 사전 이외의 용도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압수 후에 돌려준다.
- 가져오면 안 되는 물품: 게임기, 고가의 물품이나 현금(분실 우려)
- 활동 중심의 캠프이므로 간편하고 편한 복장을 준비한다.
- 교사 준비물: 명찰, 출석부, 활동 재료, 수업 계획서

2. 프로그램

시간 \ 요일	1일	2일	3일
주제	자랑스런 한국	살펴보자, 우리 기록	가보자, 우리 유산
1교시 9:00-9:30 (30분)	개강식 및 행사 안내	덩더쿵 체조 배우기	덩더쿵 체조 및 부스 구경
2교시 9:30-10:50 (80분)	자랑스런 인쇄문화 - 직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 목판인쇄 체험(한국 지도)	세계문화유산과 기록문화유산 특강 - 인물 중심 -	가보자 우리 유산 1 수원화성은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까요? - 수원화성, 조선왕조의궤 학습 - 조선시대 행사도(반차도) 한 그림으로 완성하기
3교시 11:00-12:20 (80분)	한국역사 특강 (2교시의 지도를 이용, 삼국·고려·조선시대 영토 표시, 현 주요 도시 및 문화유산 도시 파악)	살펴보자 우리 기록 1 조선왕조실록 - 역사 신문 만들기	가보자 우리 유산 2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잘 보존되었을까요? - 해인사 장경각과 팔만대장경 학습 나만의 활자 제작
12:20-13:30	점 심		
4교시 13:30-14:50 (80분)	최고의 명품 한지 - 한지의 우수성 강의 - 한지공예 체험 (한지등, 악기, 쟁반)	살펴보자 우리 기록 2 승정원일기 - '왕의 하루' 역할극 (후에 발표)	드높이사 우리 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소개 책자 만들기
5교시 15:00-16:20 (80분)	최고의 문자 한글 - 훈민정음 강의 - 전형필 선생 소개 [한글 자판 연습, 물건찾기 게임(Scavenger hunt)]	살펴보자 역사이야기 얘기하고 노래해요 스토리텔링과 노래로 배우는 역사 빙고게임	작품 전시 준비 및 발표 연습
6교시 16:30-17:50 (80분)	고백신 피구 - 삼국시대 영토 확장 놀이	러닝맨 게임 - 역사 퀴즈를 통한 미션 달성	작품 감상 및 발표 폐강식 및 시상식
18:00-19:30	저녁	저녁	환송 만찬
7교시 19:30-20:50 (80분)	오늘의 마무리	역사 속에서 만난 인물에게 편지 쓰기	집으로

3. 프로그램 세부 사항

【 1일 】 주제: 자랑스런 한국

- [학습 개요] 1. 한국역사의 개략적 특징과 함께 문화유산이 있는 주요 도시를 안다.
 2. 세계 최고(最古)인 우리의 목판인쇄본과 금속활자본을 안다.
 3. 세계 최고(最高)인 한글과 한지에 대해 알고 체험한다.

시간	학습 및 활동	준비물	비고
1교시 9:00-9:30 (30분)	개강식	명찰 애국가 및 현지 국가 음원	
2교시 9:30-10:50 (80분)	자랑스런 인쇄문화 - 직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고 박병선박사 소개, 불국사 석가탑 등 소개) - 목판인쇄 체험(한국 지도)	1. 강의 PPT 2. 한국 지도 목판 3. 한지, 먹, 밀개	* 합반 가능
3교시 11:00-12:20 (80분)	한국역사 특강 (2교시의 지도 이용, 삼국, 고려, 조선 시대 영토 표시, 현재 주요 도시 및 문화재 도시 파악 등)	1. 특강 PPT 2. 세계지도 3. 한지(목판인쇄된 한국 지도) 4. 시대별 영토를 나타내는 색지, 도시 표시용 스티커, 기록용 포스트잇	시대별 특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영토 변화에 대한 내용은 색지, 주요 도시는 스티커, 포스트잇을 활용한다. * 합반 가능
12:20-13:30	점 심		
4교시 13:30-14:50 (80분)	최고의 명품 한지 - 한지의 우수성 강의 - 한지공예 체험 (한지등, 악기, 쟁반)	1. 한지 강의 ppt 2. 한지 만드는 과정 동영상 3. 한지 공예 재료 (한지등, 미니 쟁반, 풀, 붓)	한지 만드는 과정은 사전에 게시물 부착 * 합반 가능
5교시 15:00-16:20 (80분)	최고의 문자 한글 - 훈민정음 강의 - 전형필 선생 소개 [한글 자판 연습, 물건찾기 게임(Scavenger hunt)] * 참고 2)	1. 한글 강의 PPT 2. 한글 자판 모형 3. 전형필 선생이 지켜낸 문화재 그림 & 설명 카드 4. 문화재 이름 기록된 전지(2장)	문화재 자료를 색칠하고 특징 써넣기. 이것을 숨기고 찾기. 이후 특징 및 그림을 보고 문화재 이름에 부착하기)
6교시 16:30-17:50 (80분)	고백신 피구 - 삼국시대 영토 확장 경기	1. 피구공(1개), 작은 콘(영역표시)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을 2. 상징하는 머리띠(학생 수 만큼)	고백신 피구 경기 설명 * 참고 3) * 합반가능
18:00-19:30	저녁		
7교시 19:30-20:50 (80분)	생각을 나누어요 - 수업 소감 토론	반별 자유토론	* 1일 프로그램일 때는 해산식 및 정리

【 2일 】 주제: 살펴보자, 우리 기록

[학습 개요] 1. 한국의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을 안다.

2. 조선의 드높은 기록정신과 시대별 유명 인물을 체험하고 드높인다.

시간	학습 및 활동	준비물	비고
1교시 9:00-9:30 (30분)	덩더쿵체조 배우기	덩더쿵체조 동영상	
2교시 9:30-10:50 (80분)	세계문화유산과 기록유산 특강 - 인물 중심 -	강의 PPT 동영상 자료(유산 소개 시)	* 합반가능
3교시 11:00-12:20 (80분)	살펴보자 우리 기록 1 조선왕조실록 - 역사신문 만들기	1. 조선왕조실록 중 한글로 번역한 자료(인물, 사건 등 신문 기사가 될 만한 자료 10개) 2. 역사신문 작업을 위한 재료(역사 신문 샘플, 4절지 종이, 사진 자료, 종이, 풀, 가위, 펜, 색연필)	역사신문 샘플을 준비 하여 참고 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창의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12:20-13:30	점심		
4교시 13:30-14:50 (80분)	살펴보자 우리 기록 2 승정원일기, 일성록 -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살펴기 - '왕의 하루' 역할극	1.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정표 2. '왕의 하루' 대본 3. 배역 정하기 위한 자료(왕, 도승지, 내관, 영의정 등 조선시대 직책이 그려진 카드)	왕의 하루 일과를 통해 조선의 정치 운영을 살핀다. 현대 조직과 비교하며 관직과 승정원 조직 및 업무도 소개.
5교시 15:00-16:20 (80분)	살펴보자 역사이야기 얘기하고 노래해요 스토리텔링과 노래로 배우는 역사 빙고게임	1. 스토리텔링 읽기 자료 2. 역사노래 및 악보 3. 빙고게임을 위한 판 * 스토리와 가사 중심 어휘	* '어린이 역사노래회'의 음원 구입: 고주몽, 바보손달과 평강 『공주, 화랑 관창, 계백장군, 백결선생 떡방아 * 합반 가능
6교시 16:30-17:50 (80분)	러닝맨 게임 - 역사 퀴즈를 통한 미션 달성	1. 역사문화퀴즈 문제 및 봉투 2. 타이머	* 보물찾기를 응용한 활동, 제한 시간 내에 숨겨진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하기
18:00-19:30	저녁		
7교시 19:30-20:50 (80분)	역사 속에서 만난 인물에게 편지 쓰기	편지지	* 후에 우수 작품 수상 * 1박 2일 코스일 경우, 해산식 및 정리(5교시 후 정리도 가능)

【 3일 】 주제: 가보자, 우리 유산

- [학습 개요] 1. 수원화성과 조선왕조의궤,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의 우수성을 알고 두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의 연관성을 안다.
2.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든다.

시간	학습 및 활동	준비물	비고
1교시 9:00-9:30 (30분)	덩더쿵 체조 및 부스 구경	덩더쿵 체조 동영상	체조 후 발표 연습을 하는 등 마무리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2교시 9:30-10:50 (80분)	가보자 우리 유산 1 수원 화성은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을까? - 수원화성, 의궤 학습 - 조선시대 행사도(반차도) 한 그림으로 완성하기	1. 수원화성과 조선왕조 의궤 학습 PPT 2. 반차도[흑백(일반용 의궤, 학생 색칠용) & 컬러(어람용 의궤, 색칠을 위한 견본용)] 3. 색칠도구	* 수원 화성 색칠 * 반차도 완성: 각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는 반차도(흑백)를 한 쪽씩 색칠 후 하나의 종이로 연결하여 행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완성
3교시 11:00-12:20 (80분)	가보자 우리 유산 2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잘 보존되었을까? - 해인사 장경각과 팔만대장경 학습 - 나만의 활자 제작	1.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장경각 학습 PPT 2. 점보지우개, 커터칼(또는 조각칼), 스탬프, 장갑, 싸인펜, 4절지 등	* 글자 도안 또는 시안(한글 자음, 모음)으로 나만의 활자 및 글자, 인장을 만들어 찍어 보기 * 후에 우수 작품 시상
12:20-13:30	점심		
4교시 13:30-14:50 (50분)	드높이저 우리 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 한국의 세계유산 소개 책자 만들기	1. 책자용 내지와 오침 안정법 사용 재료 2. 기록유산, 문화유산 사진 및 그림 3. 채색 및 필기도구	* 전통책(옛 책) 엮는 법 체험하기 * 캠프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쓰기 작업 및 활동 * 후에 우수 작품 시상
5교시 15:00-16:20 (50분)	작품 전시 준비 및 발표 연습		
6교시 16:30-17:50 (50분)	작품 감상 및 발표 폐강식 및 시상식	수료증 상장 작품 전시물	각 활동 결과물에 대한 시상 및 우정상, 협동상 등 다양한 상 수여하기
18:00-19:30	환송 만찬		
7교시 19:30-20:50 (50분)	집으로		

4. 참고

(1)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년도	세계기록유산	등재년도
석굴암·불국사	1995	훈민정음	1997
해인사 장경판전	1995	조선왕조실록	1997
종묘	1995	직지심체요절	2001
창덕궁	1997	승정원일기	2001
수원 화성	1997	조선왕조의궤	2007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	2007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2000	동의보감	2009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일성록	2011
조선왕릉	2009	5·18 관련 기록물	2011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	난중일기	2013
남한산성	2014	새마을운동기록물	2013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한국의 유교책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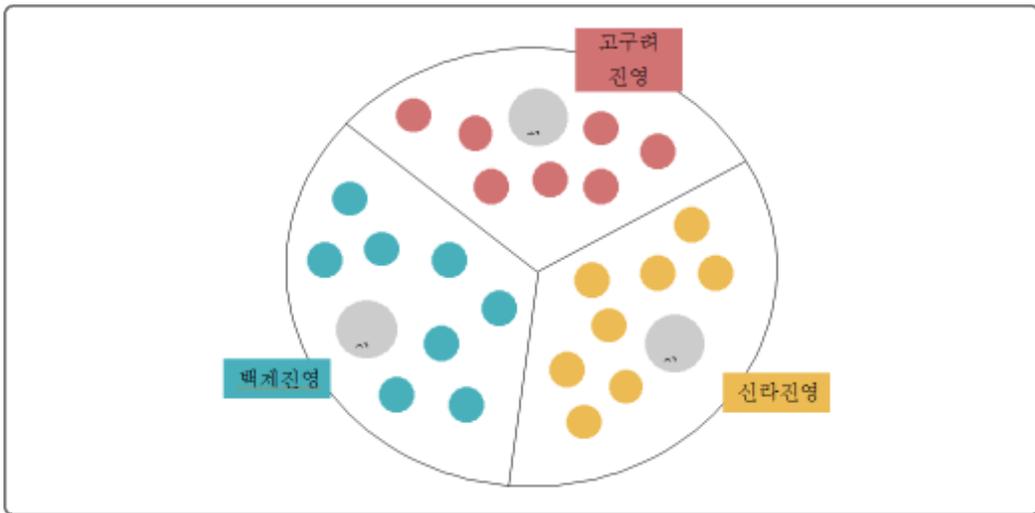
(2) 물건 찾기 게임(Scavenger hunt)

- [준 비] 1. 전형필 선생이 찾은 문화재에 대한 학습을 한 후, 해당 문화재 카드를 나누어 주고 색칠하게 한다. 그리고 주요 특징을 쓴다. 이후 그림과 특징 부분을 분리한다.
2. 학생을 두 편으로 나눈다.

- [준 비 물] 1. 문화재 카드(흑백을 학생들이 색칠한 것)
2. 문화재의 특징을 설명한 카드
3. 문화재 카드와 설명 카드 부착을 위한 전지 2장(문화재 이름만 제시되어 있고 그림과 설명 부분은 비워 놓은 것. 벽에 부착해 놓음)

- [게임 방법] 1. 학생이 색칠한 카드를 교사는 교실 여러 곳에 숨긴다.
 2. 학생은 문화재 카드와 설명 카드를 찾아 해당되는 곳에 붙인다.
 3. 전지를 먼저 완성시키는 팀이 이긴다.

(3) 고백신 피구



[경 기 장] 동그란 원을 그리고 영역을 삼등분 한다.

[팀 구 성] 남녀를 섞어서 각 팀의 인원을 고르게 나눈다.

단, 인원이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 명의 선수가 몫을 1개 더 갖는다. 몫을 1개 더 갖는 사람은 가위, 바위, 보로 정한다.

[도 구] 피구공 1개를 사용한다.

왕은 각 나라의 색을 상징하는 머리끈을 착용한다.

[게임 방법] 가위 바위 보로 이긴 진영에서 공격을 시작, 왕이 공에 맞으면 진다.

*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남은 팀을 서로 협력하여 집중 공격하는 등 삼국 시대 영토쟁탈전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고백신 피구라고 함.

〈한글학교 역사캠프 응급처치 동의 안내〉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에 마음마저 포근해 짐을 느끼면서 가족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글학교 역사캠프에서는 사고 시 응급처치에 대한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아동들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급처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 한글 학교 장

----- 〈자르지 마세요〉

2000 한글학교 역사캠프 학생 응급처치 동의서

1. 응급처치의 절차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는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글학교 역사캠프에서는 사고 발생 시 날짜와 시간을 가장 먼저 학부모에게 연락합니다.

아버지 연락처	어머니 연락처
---------	---------

2. 응급상황 시 학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사람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름		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관계	

3. 필요한 경우 ○○○구조대와 연락할 것이며, 학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학부모님께서 정하신 의료기관()으로 응급 수송할 것입니다.
▶ 비용은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4. 의료기관 수송 후에는 다음 의료보험으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보험의 종류	직장, 지역, 의료보험 중 ○표
번호	
기관	

○○○ 한글학교에서는 사고 시 응급처치에 대한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기 연락처로 연락을 취할 것이며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본교 한글학교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보호자 : (인)

○○ 초등학교장 귀하

수료장



한글학교 역사캠프 ○ ○ ○

위 학생은 ○○○○한글학교 역사캠프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글학교 교장 ○ ○ ○

IV

P A R T



제언

IV PART

한글학교 역사교육 보조교재 및 캠프 프로그램 개발

제언

■ 선행 교재들의 특징

- 통사식 개설서가 대부분이다.
- 한국에서 배우는 학생의 '한국사' 교과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교재가 간행된 경우가 많았다.
- 역사와 문화를 분리한 교재가 대부분이다.

■ 선행 교재들이 고려하지 않은 학생의 특징

- 현지 학생은 '한국계'이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 그들은 잘 해야 1주에 1회 정도의 주말수업에 참가할 수 있다.
- 많은 학생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 이유를 잘 납득하고 있지 않다.

■ 선행 교재들이 고려하지 않은 교사의 특징

- 한국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학과를 졸업한 교사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 참고자료가 많이 부족함에도 교사 스스로 공부하여 가르쳐야 한다.

■ 제언 1 : 이번 작업의 보완 방향

- 이번 보조교재는 위와 같은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하지만 편집기술, 글의 수준, 방향에서 내용의 완성도는 아직 부족하다.
- 차기 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조교재를 만들기보다 형식과 내용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완해야 할 내용은,
이번 작업이 '이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재일동포, 중국 조선족, 카레이스키 등의 역사**를 서술할 수 없었다.

■ 제언 2 - 교재의 성격이 분명해야 한다.

- 개발하는 책자의 성격과 대상이 명확하고 다양해야 한다.
그에 맞는 편집형식과 내용을 갖춘 완성도 높은 교재가 나와야 한다.
 - ☞ 교재, 보조교재
 - ☞ 학생용(초등, 중등), 일반인용, 교사용
 - ☞ 이때 교재의 분량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50쪽 전후의 적은 분량으로 워크북 형식의 보조교재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 통사적인 개설서만이 아니라 시대를 구분한 특별한 교재가 필요하다.
 - ☞ 예 : 전근대, 근현대
 - ☞ 특히 근현대에 방점을 둔 교재가 더 필요하다.
- 상시적 고민틀로서 **교재개발위원회** 내지는 **교육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 제언 3 - 국가 또는 지역별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교재

→ 국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까지를 고려한 **국가별, 지역별 보조교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달효과를 극대화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한국계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국가 : 미국(멕시코, 캐나다 포함), 중국, 일본

☞ 지역 : 동남아시아, 유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중남미, 오세아니아(태평양 諸島 포함)

→ 이런 교재에는 **지역사, 세계사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의 해외 청소년에게 ‘한국 것’, 또는 ‘우리 것’만을 강조해서는 오히려 기대하는 학습효과가 크게 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별첨 : 보조교재용 동영상 목록(파일 별도)**

구 분	차 시	주 제	동영상	
전근대	1	아동용	선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중등용	단군, 고조선을 세우다	○
	2	아동용	살아있는 삼국시대 박물관	○
		중등용	다양한 삼국의 문화가 발전하다	○
	3	아동용	역사해설가가 전하는 삼국 통일과 발해의 건국	○
		중등용	찬란한 불교문화가 꽃피다(남북국)	○
	4	아동용	내가 제일 잘 나가 고려의 찬란한 문화	○
		중등용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다(고려)	○
	5	아동용	과학기술로 발전하는 고려의 생활모습	○
		중등용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를 만들다(고려)	○
	6	아동용	세종대의 문화와 과학기술	○
		중등용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우다(조선)	○
	7	아동용	판소리에 울고 웃다	
		중등용	서민 문화가 성장하다(조선 후기)	○
근현대	8	개항과 문명화, 세계 자본주의와 만나다	○	
	9	첫 공식 이민,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가다	○	
	10	망국, 많은 사람이 한반도를 떠나다	○	
	11	강제 동원, 강제 이주	○	
	12	해방과 한국전쟁, 돌아오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	
	13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다	○	
	14	세계화 시대, 이주의 글로벌화와 다양화		

2016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보고서

한글학교 역사교육 보조교재 및 캠프 프로그램 개발

발 행 일 2017년 4월 30일
발 행 처 재외동포재단
발 행 인 주 철 기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 화 82-2-3415-0100(대)
팩 스 82-2-3415-0117
홈 페이지 www.okf.or.kr, www.Korean.net
인 쇄 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82-2-761-0031)

ISBN 979-11-85409-27-6 (93370)

(비매품)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